

2008. **5** Vol. 197  
www.bscculture.busan.k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 예술에의 초대



2006  
최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BMC**  
부산도시공사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BMC**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  
| Tel. 051)808-2662 | Fax. 051)810-1400 | <http://www.bmc.busan.kr> |

클래식 선율에 흐르는 재즈의 미학

# 클로드 볼링 내한공연

Variety Claude Bolling Septet



2008년 5월 24일 (토) 오후 7시 |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Saturday, 24 May, 2008 at Busan Cultural Center

Tickets | R석 7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예매 | 티켓링크 <sup>h</sup> www.ticketlink.co.kr 1588-7890 / CJticket  www.cjticket.co.kr 1577-8888

주최 | (주)영브라더스  플랜제닛 후원 |  Sunsetlive Busan

협찬 | (주)래옹  Angel-in-us Coffee  해운대센텀호텔  부산독일문화원 GOETHE ZENTRUM  한국담수토부

공연문의 | (주)영브라더스 051)467-5747 017-841-2303

클래식계의 거장 첼리스트 정명화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천재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환상적인 만남!

YE-SUNG  
Planning Presented

# 정명화 김선욱 듀오 콘서트

Myoung Hwa, Jeong - Sun Wook, Kim Duo Concert



공연문의 을숙도문화회관 051)220-5341~3  
공연기획 예성 051)582-2 0 2 6

2008년 5월 31일 토요일 오후5시

을숙도 문화회관

주최 :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 부산일보    주관 : 공연기획 예성    협찬 : 한진중공업    양산병원    고운세상 김양제 피부과  
티켓 :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예매처 : ticketlink, 인터파크, 부산은행 전지점)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 Dynamanic Festival

다이너믹 페스티벌

사회: 손지현 (부산MBC 아나운서)

2008. 5.17 (토) 2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박호성)  
부산시립무용단(안무 홍기태)  
박현빈(가수) / 드리프터즈 크루(B-boy)  
버숨새(풍물패) / 박성희, 정선희(소리꾼)

5.18 (일) 20:00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 김정택)  
부산시립합창단  
김영환(테너) / 박정원(소프라노)  
정수라(가수) / 비트 씨클(타악 퍼포먼스)

해운대 씨네파크-야외공연  
(부산시립미술관 옆)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1~8, 6057  
www.bsCulture.busan.kr

무료관람

주최



부산일보사

주관



부산문화회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부산문화의관 개관 20주년  
20th Anniversary  
Busan Cultural Center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since 1973

35주년기념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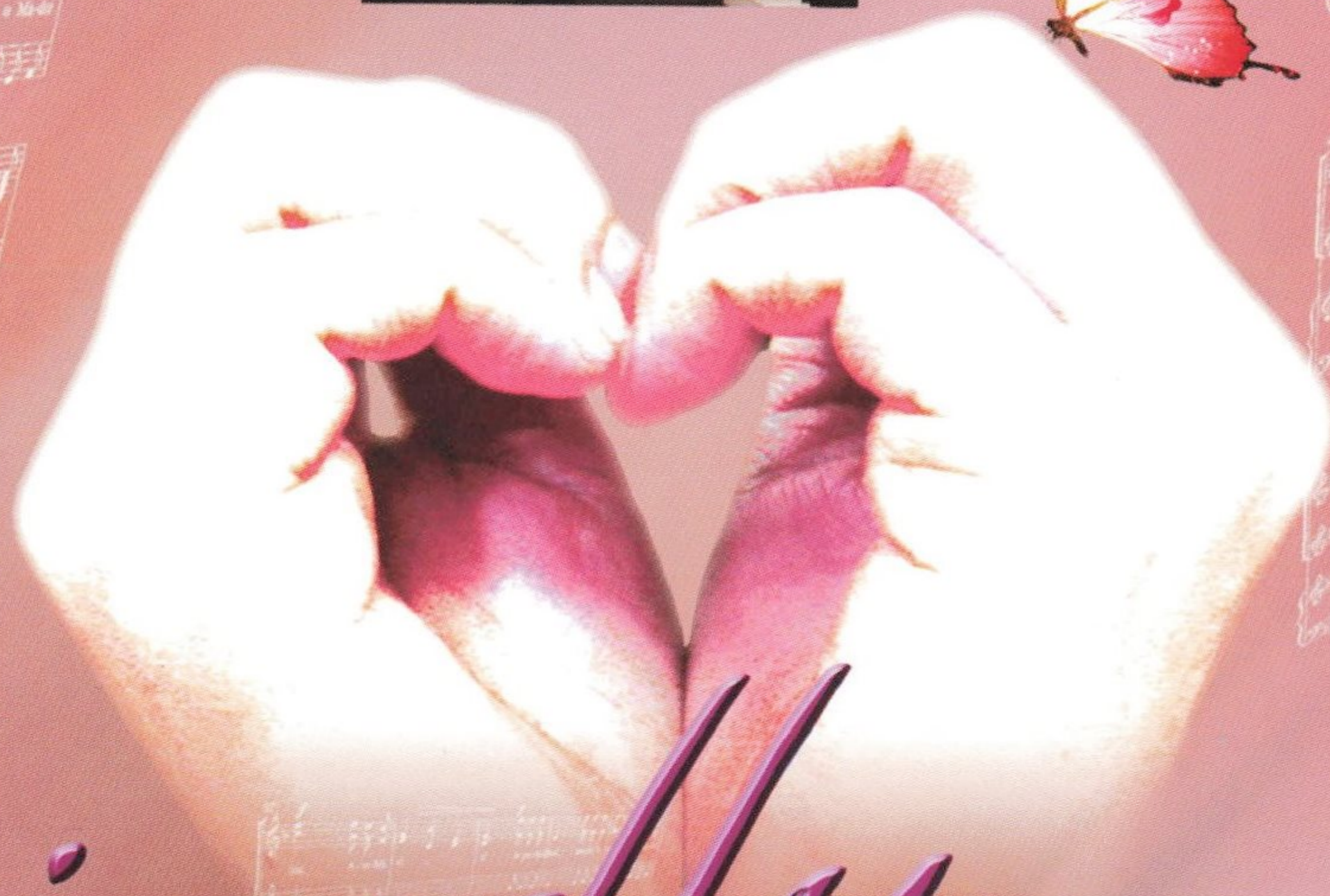
르노삼성자동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합니다.

# 제 3대 전상철 수석지휘자

## 취임연주회

제 122회 정기연주회



# Friendly Concert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최석태의 축제 미사 (2008년 위촉 작품- 한국초연)  
· Kyrie(자비를 구하는 기도) · Gloria(대영광송)  
· Sanctus(거룩하시다) · Agnus Dei(신의 어린양)

- 부산진구어린이합창단  
· 아리랑 · 코시코스곡의 우편마차 · 어머니

### 특별출연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 임명운)

부산진구어린이합창단 (지휘 : 박훈)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반달 · 나란히 · 고기잡이 · 꼬부랑 할머니 · 어린이날 노래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 Sancta Maria · Nella Fantasia · 파마이 또레오 아로하  
· 아가 코끼리 걸음마 · 아프리카인 댄스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새야 새야 파랑새야 · 춤추는 춘향이 · 경북궁타령 · 추천가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후원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2008. 5. 31(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2,000원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6131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ulture.busan.kr

■ 티켓링크 -콜센터(1588-7890) www.ticketlink.co.kr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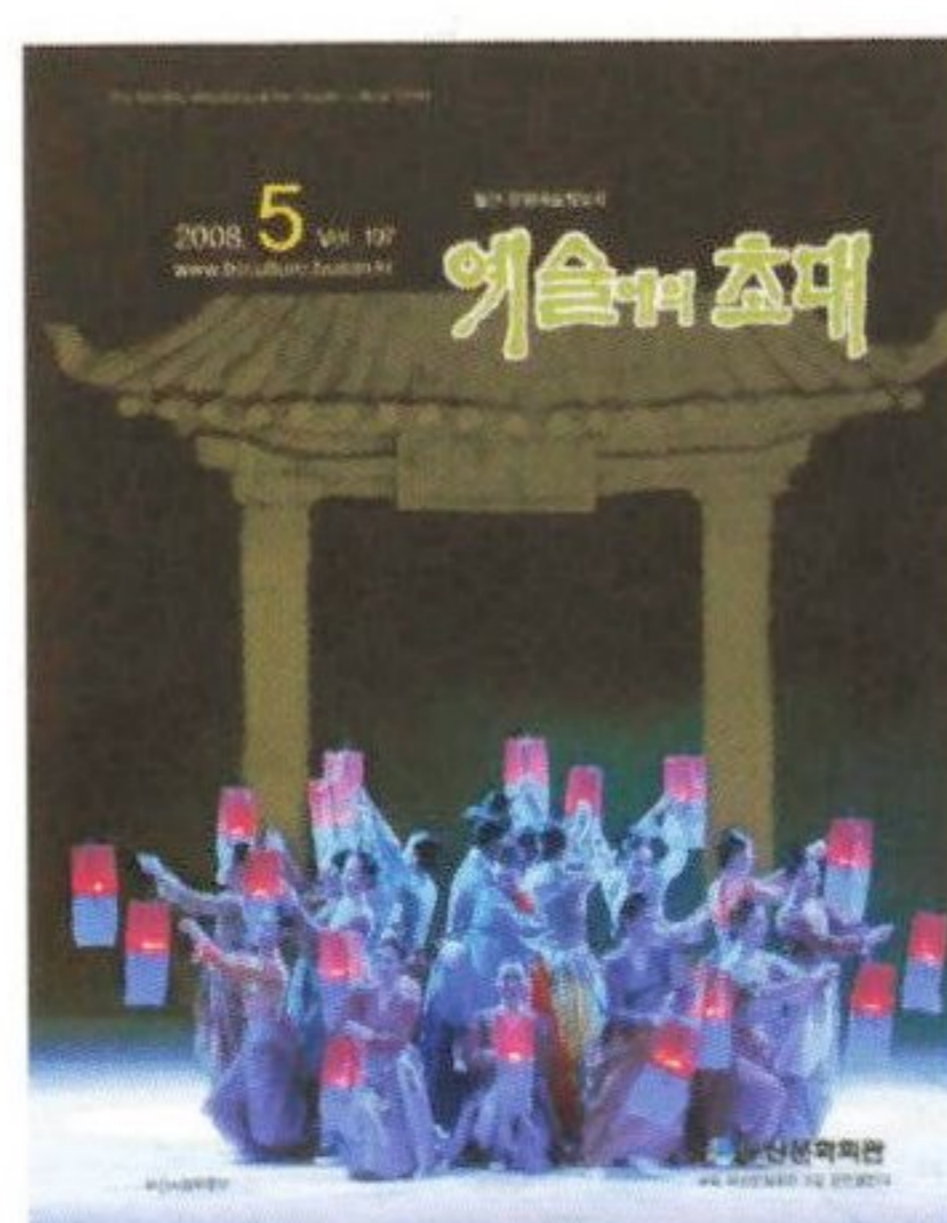


20



26

커버스토리	08	부산시립무용단 제 58회 정기공연 춤극 '천생연분'
프리뷰	10	
반갑습니다	16	2008 부산연극제 작품상 수상한 극단 맥 대표 이정남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18	귀애 쟁쟁한 김순애의 '그대 있음에' _ 김상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20	미국 시애틀 파라마운트 극장과 리버댄스 순회공연 _ 김현숙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23	변모하는 파두의 모습 _ 황윤기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24	지폐에 깃든 역사와 문화 _ 채경혜
그곳에 가면	26	남해 해오름 예술촌
우리는 문화 가족	28	POP 판화 동호회
쉽게 듣는 클래식	29	고음악을 연주하는 기수들 3 _ 곽근수
프로그램 가이드	30	
나의 애청음반	42	
새로나온 책	43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44	
부산문화회관소식	46	
100자 토크	4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49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 (대연 4동 848-4)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4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5월 22일~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부산시립무용단 춤극 '천생연분'



May 2008

#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 전시실

- 추사서화예술전국대전-대전시실  
5월 2일(금)-5월 5일(월)  
김종영(752-8587, 011-772-8587)
- 갤러리 예가 개관 5주년 기념  
정경연초대전-중전시실  
5월 1일(목)-5월 13일(화)  
갤러리 예가(011-572-2872, 624-0933)
- 2008 부산 국제아트페어  
'미술의 바다, 색채의 물결'  
5월 16일(금)-5월 22일(목)  
허숙(803-8830, 011-882-8150)
- 제28회 전국서도민전-대·중전시실  
5월 23일(금)-5월 28일(수)  
김성균(441-7081, 011-864-6288)
- 제12회 부산회화제-대·중전시실  
6월 2일(월)-6월 8일(일)  
부산미술협회(632-2400)

## 국제회의장

- 제 2기 부산문화대학 강좌  
5월 7일(수) 14:00  
PIFF와 부산축제-장길항
- 5월 14일(수) 14:00  
공연기획의 실제-이명아
- 5월 21일(수) 14:00  
우리것이 좋은 것이야-박성희  
문의:부산문화회관(607-6057)
- 부산서예전람회 시상식  
5월 2일(금) 13:00  
김종영(752-8587, 011-772-8587)
- 제28회 전국 서도민전 시상식  
5월 24일(토) 13:00  
김성균(441-7081, 011-864-6288)

Sunday	Monday	Tuesday
4	5	6
<p>대   2008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퀼크 오페라 'BIPAF: The Opera' 18:00 2만 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중   2008 부산국제연극제 2008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극단 맥 '환생신화' 18:0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대   MAGNUS DREAM 한국 오페라 60주년 기념 매그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 '돈지오반니 &amp; 카르멘'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매그너스 드림(016-760-1233)</p> <p>중   2008 부산국제연극제 2008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 극단 맥 '환생신화'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11	12	13
		<p>대   2008 부산국제연극제 트러스트 무용 '올리브 나무_all live' 19:30 1만5천원 ·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소   2008 부산국제연극제 명창 박성희의 소리마당2 - 흥보가 19:30 1만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18	19	20
<p>중   오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19:30 초대/오현정(010-4126-2128)</p> <p>소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창단연주회 17:00 초대/김태훈(017-548-0883)</p>	<p>중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 8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태희(010-5299-7446)</p>	
25	26	27
<p>대   피아니스트 황성훈 독주회 19:30 5만원 · 3만원 · 2만원/예은예술기획(632-6904)</p> <p>중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독주회 17:00 2만원 · 1만원/최영경(010-4565-7115)</p>	<p>대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21회 무용 정기공연 19:30 초대/부산예술고등학교(515-8106)</p> <p>중   바리톤 공정배 독창회 19:30 초대/클래식아트매니저(016-368-2445)</p>	<p>대   부산예술고등학교 제2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p> <p>중   한낮의 유콘서트; 24th '꽃과 전원' 11:00 균일 1만 5천원/국제신문(500-5222) 예술기획(0505-700-9798)</p> <p>부산콘서트콰이어 '5월의 향기' 19:30 균일 1만원 클래식아트매니저(016-368-2445)</p>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p>소   최재호, 진형준의 2인음악회 '경과 령의 만남' 19:30 초대/진형준(017-9523-8518)</p>		<p>대   2008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킨크 오페라 'BIPAF: The Opera' 19:00 2만 5천원 · 2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7	8	9	10
<p>대   2008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서울시뮤지컬단 '소나기' 19:30 2만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대   부산시립합창단 7080 가요합창음악회 네번째 이야기 이정선과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 하는 '아직도 못 다한 우리들의 이야기' 19:30 2만원 ·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p> <p>중   2008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코믹 트러스트 카바레 쇼 나프탈렌 19:30 일반 1만 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1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중   2008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코믹 트러스트 카바레 쇼 나프탈렌 19:30 일반 1만 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중   2008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코믹 트러스트 카바레 쇼 나프탈렌 19:30 일반 1만 5천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소   2008 부산국제연극제 명창 박성희의 소리마당1 - 수궁가 19:30 1만 5천원 · 1만원/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14	15	16	17
<p>대   2008 부산국제연극제 트러스트 무용단 '올리브 나무_all live' 19:30 1만5천원 ·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중   2008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서울시뮤지컬단 '소나기' 19:30 2만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중   2008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서울시뮤지컬단 '소나기' 19:30 2만 5천원 · 2만원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p>	<p>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와 미국의 근대음악'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p> <p>중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소프라노 전미나의 '행복한 엄마의 노래' 19:30 균일 2만원/대한사회복지회부산지부(621-7003, 757-7400)</p>	<p>대   부산하모니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 '내겐 합창이 필요해요' 19:00 초대/장연수(610-1304, 016-593-1651)</p> <p>중   제 3회 오퍼스앙상블 정기연주회 '최은주, 김은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19:30 김은희(702-5567, 019-9269-5567)</p> <p>소   토요일상설무대 '서지영 무용단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21	22	23	24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 58회 정기공연 춤극 '이쁜 이 시집가는날-천생연분'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p> <p>중   오현정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예은예술기획(632-6904)</p> <p>소   신희원 · 박영신 피아노 2중주 리사이틀 19:30 초대/박영신(011-562-2694)</p>	<p>대   부산시립무용단 제 58회 정기공연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날-천생연분'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p> <p>중   제 3회 부산챔버 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iTrio 연주회 19:30 3만원 · 2만원/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p> <p>소   Liebhaver konzert 19:30 임혜민(010-3376-2246)</p>	<p>대   버라이어티 클로드 볼링 Seventet+재즈보컬 내한공연 19:00 7만원 · 6만원 · 4만원/영브라더스(467-5747)</p> <p>중   동그라미 노래모임 제 14회 정기공연 17:00 균일 1만원/김병준(011-562-4305)</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합창단 '5월은 동요세상'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28	29	30	31
<p>중   꿈유빌로 정기연주회 19:30 초대/이창룡(240-2824), 클래식아트매니저(016-368-2445)</p> <p>소   2인음악회 19:30 노가현(010-7122-1653)</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2회 정기연주회 및 부산MBC 창사 49주년 기념 '혁명의 그랜드 심포니'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중   제 1085회 MBC목요음악회-가정의 달 특집 '부산소년소녀현악합주단 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 김지세(010-6505-4030), 문화 도시네트워크(760-1494)</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및 창단 35주년 기 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122회 정기연주 회 'Friendly Concert' 17:00 균일 2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p> <p>중   어린이 들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음악회 15:00, 19:00 균일 1만원/손옥(011-9520-4649)</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류전국악그룹 '희나래' 공연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의 힘

부산시립무용단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

# ‘천생연분’





“일반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춤 하면 너무나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 부산시립무용단에서 그런 편견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부산시립무용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춤극 ‘천생연분’으로 재구성, 새롭게 선보인다. 홍기태 수석안무자와 전 단원들이 의욕적으로 준비한 ‘천생연분’은 2007년에 선보인 ‘이쁜이 시집가는 날’을 더욱 다양한 장면 구성과 역동적인 흐름으로 업그레이드시킨 무대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 춤의 아름다운 선과 의상, 무대 세트와 조명, 소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하나의 종합예술 작품이다.

‘천생연분’은 한국 전통 혼례 풍습 속에 녹아 있는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양한 인물들의 아름답고 신명난 춤으로 승화시켰고 무용수들의 몸짓과 장면의 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원작의 2막 5장을 3막 8장으로 나누었다.

수석안무자 홍기태는 무용수들의 극적 표현연기를 살리기 위해 안무에서 동작 하나 하나에 신경을 많이 썼다. 우리 춤이 가지고 있는 몸의 흐름을 요즘 몸짓에 맞게 잘 어울리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극무용 스타일하고는 다소 차이가 날 것이라고 귀뜸. 작품을 구태의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극적 포인트를 살려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출을 맡은 하현관은 모두가 다 아는 희곡인 만큼 이야기의 나열 보다는 아름다움에 중점을 두고 무용 대본을 각색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마을과 우물 장면을 새로이 첨가했다. 재물과 권력, 명예욕이 넘치는 인간본연의 모습이 안무와 연출의 손길을 거쳐 무용수들의 화사한 몸짓으로 표현된다.

새로운 작품은 많은 사람들이 산고를 겪어야만 가능한 만큼 부산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천생연분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공연 때와 달리 이번 작품에서는 무대 세트와 작품의 흐름, 주역무용수들은 대폭 교체했다. 주인공 ‘이쁜이’역에 22일에 윤은하, 23일에 김진영, ‘갑분이’역에 22일 이현정, 23일 김주령, ‘김미연’역에 22일 류권홍, 23일 강모세가 더블 캐스팅되어 자신만의 춤 색깔로 색다르게 열연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천생연분’ 공연에 앞서 ‘춤은 어렵다’는 고정 관념을 없애기 위해 5회의 쇼케이스와 ‘주인공과 추억만들기’ ‘사진전시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 쇼케이스 주요일정

5월 3일(토) 19:00 덕천초등학교

5월 14일(수) 15:30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5월 17일(토) 20:00 씨네파크

2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공연 및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부산시립합창단 7080 가요합창음악회 네번째 이야기

# 아직도 못 다한 우리들의 이야기

- 5월 7일~ 8일 수~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대중문화의 새로운 코드로 떠오른 7080 문화를 수준 높은 클래식합창음악으로 승화시킨 부산시립합창단의 7080 가요합창음악회 네 번째 무대가 5월 7일과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7080 콘서트는 2005년 특별공연으로 기획되어 중장년층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면서 부산시립합창단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네 번째 무대인 올해는 김강규 예술감독의 지휘, 해설로 7080 세대에게 추억이 담긴 대중가요와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이번 무대를 위해 포크 가수 이정선이 부산을 찾는다.

이정선은 자연과 사람을 소재로 한 '섬소년' '구름·들꽃·돌·여인' '몽계구름' 등 아름다운 포크 송들과 가톨릭회관 '해바라기' 노래 공연을 진두지휘하며 1970년대 청년 문화의 흐름을 주도했던 포크가수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신촌 블루스' 활동을 통해 이 땅에 본격적인 일렉트릭 블루스를 도입하고 포크와 더불어 록과 블루스를 넘나들며 자기 색깔이 뚜렷한 소리여행을 계속해왔다.

현재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이정선은 데뷔 31주년을 맞은 지난 2003년 11월, 9년 만에 11집 'Hand Made'를 발표하며 기념 공연을 열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 이정선은 섬소년을 시작으로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한 진솔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예술감독 김 강 규



포크가수 이 정 선

### 프로그램

2007 세 번째 이야기 회상/산골 소년의 사랑이야기, 행복한 사람, 광야에서  
 꿈 가득한 노래/네 꿈을 펼쳐라, 솔개, 아에이오우  
 정태춘 노래 돌/촛불, 시인의 마을  
 어버이 날에...드리는 노래 꾸러미/부모(유주용), 애비(최백호), 아빠의 청춘(오기택), 당신만 곁에  
 있어 준다면(양희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송창식 모음/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사랑이야, 그대 있음에  
 패티김 메들리(여성합창)/이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 그대 그리고 나  
 초대 가수 이정선/섬소년...이정선의 삶과 음악 등

- 지휘·해설/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 협연/이정선(포크가수), 김진훈(드럼), 김정태(포크기타)
- 편곡/하순봉, 최석태, 윤지영, 백현주

**입장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 어버이날의 부모송(父母頌)

- 5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청중들을 위해 마련하는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고 동부민요 명창 박수관, 가수 김태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전학수, 이주현, 신문범, 최오성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어버이에 대한 넓고 깊은 사랑을 되돌아 보는 어버이날을 위한 창작관현악 '아름다운 인생'을 비롯해 창과 국악관현악 '나나니',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첫 무대를 장식할 김선제 곡 '아름다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위해 노력하는 인간의 갈등과 욕망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박성희가 협연하는 박범훈 곡 '나나니'는 황해도가 고향인 갯가 아낙네들이 인천지역 어촌에 모여 살면서 어민들의 삶의 애환과 신명을 그려낸 '나나니' 가락을 노래와 관현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호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픔과 애절함으로 민초들의 애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동부민요 '상주아리랑', '한오백년', '치이야 칭칭나네'는 동부민요 명창 박수관의 구수하면서도 힘찬 목소리로 들려준다. 프랑스 IRMA 세계전통음악가 인명사전에 한국인 최초로 등재된 명창 박수관은 그동안 미국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콘서트홀 초청공연 등 미주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국내외 무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대중가수 김태곤은 그의 대표곡인 '망부석', '신강강술래'를 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장단과 리듬에 맞춰 들려준다.

마지막 곡인 박범훈 곡 '신모듬'은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가락이 성공적으로 만난 사물놀이 협주곡으로, 지난 1988년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이주현(뽕과리), 최오성(장구), 신문범(북), 전학수(징)의 신명나는 사물 연주로 펼쳐진다.



예술감독 박 호 성



동부민요 명창 박 수 관



가수 김 태 곤



박 성 희



전학수, 이주현, 신문범, 최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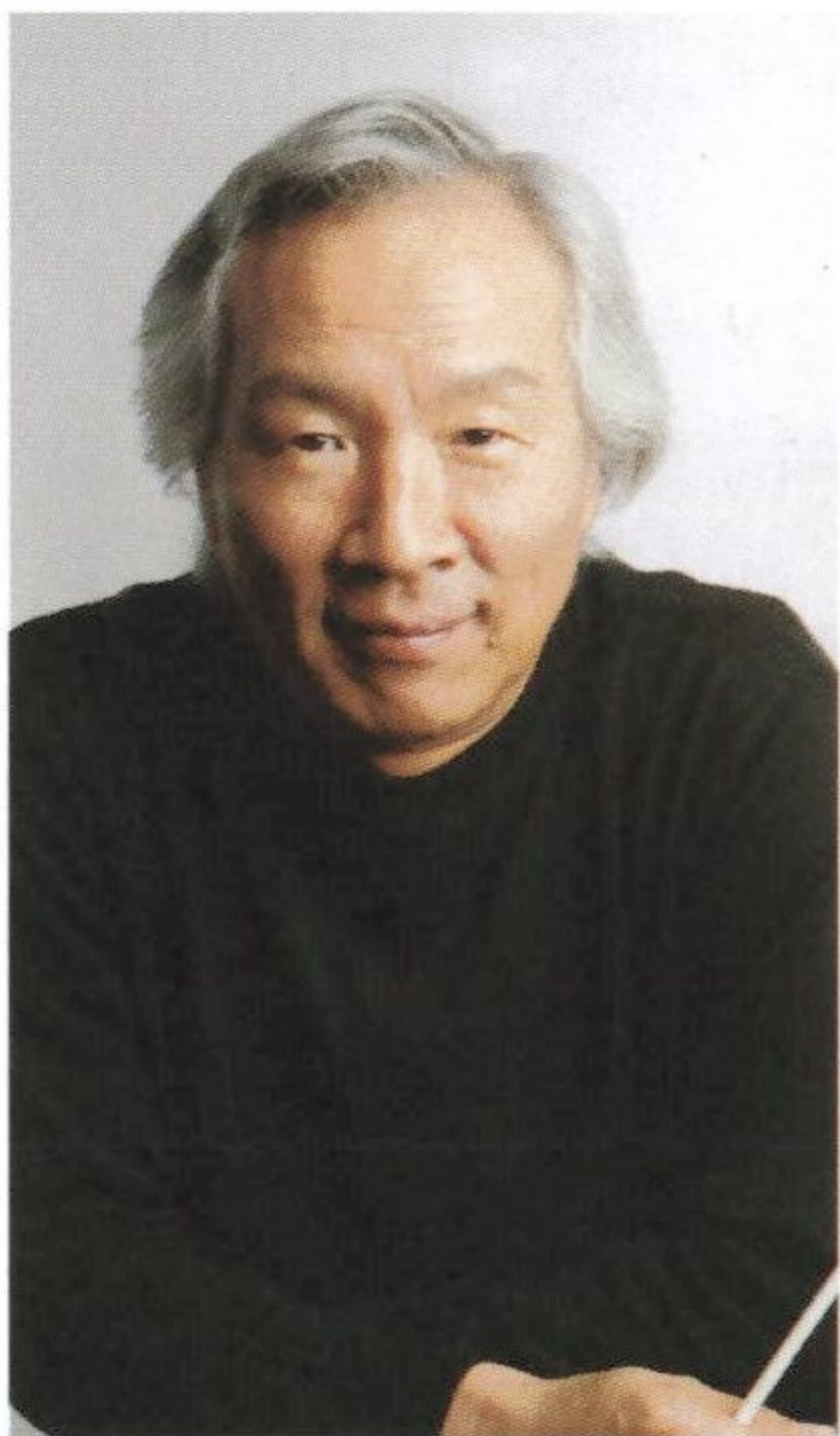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제 441회 정기연주회

■ 5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곽 승



피아니스트 제이슨 곽

지난 4월 세 차례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봄의 환희를 클래식 선율에 담아 들려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5월 9일 제 44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협주곡이자 명곡으로 꼽히는 슈만의 피아노협주곡과 드보르작의 걸작 교향곡으로 수준높은 정통 클래식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휘자 곽승이 지휘하고 현재 미국 텍사스 A&M대학교 교수로 있는 재미교포 피아니스트 제이슨 곽의 협연으로 마련된다.

이번 무대로 처음 부산을 찾는 피아니스트 제이슨 곽은 서울에서 태어나 8살 때 도미했다. 이스트만 음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제이슨 곽은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Teaching Assistant로 일하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어린 나이에 각종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일찍부터 피아니스트로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애틀랜타 스타인웨이 소사이어티 콩쿠르 1위, 한독 피아노 콩쿠르 1위, 미국 남부 피아노 콩쿠르 1위, 애틀랜타 음악 클럽 콩쿠르 1위

등에 입상한 바 있다. 미국 전역에서 왕성한 연주 활동을 펼치며 애틀랜타 폭스 극장, 탕글우드 음악축제 등 주요 연주홀에서 연주회를 가진 제이슨 곽은 독주자로서 뿐 아니라 실내악, 협연 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 메조 소프라노 김신자, 피아니스트 호세 파갈리, 바이올리니스트 빈센트 프리텔리, 피아니스트 니콜라이 페트로프 등 국제적 명성의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회를 가졌다.

협연자 제이슨 곽의 연주로 들려줄 슈만 '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작품 54'는 관현악과 하나되는 환상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선율로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이 곡은 자신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해달라는 슈만의 부인 클라라의 요청에 따라 작곡된 곡으로, 1846년 1월 1일 라이프찌히에서 클라라의 피아노 독주와 멘델스존의 지휘로 연주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무대에서 첫 곡으로 연주되는 번스타인의 '캔디드' 서곡은 18세기 프랑스 문인 볼테르가 쓴 동명의 모험 풍자담을 소재로 한 오페레타이다. 쾌활하면서도 힘찬 팡파레로 시작하는 서곡은 경쾌하면서도 발랄한 선율로 독립적으로도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마지막 곡인 드보르작 교향곡 제 9번 마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는 미국 뉴욕국립음악원 원장으로 초빙되어 2년간 미국에 머물렀던 작곡가 드보르작이 당시 미국에서 받았던 인상과 소박한 미국민요, 흑인영가에서 받은 감동과 함께 낯선 미국 땅에서 느끼는 향수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애수편 선율로 표현한 명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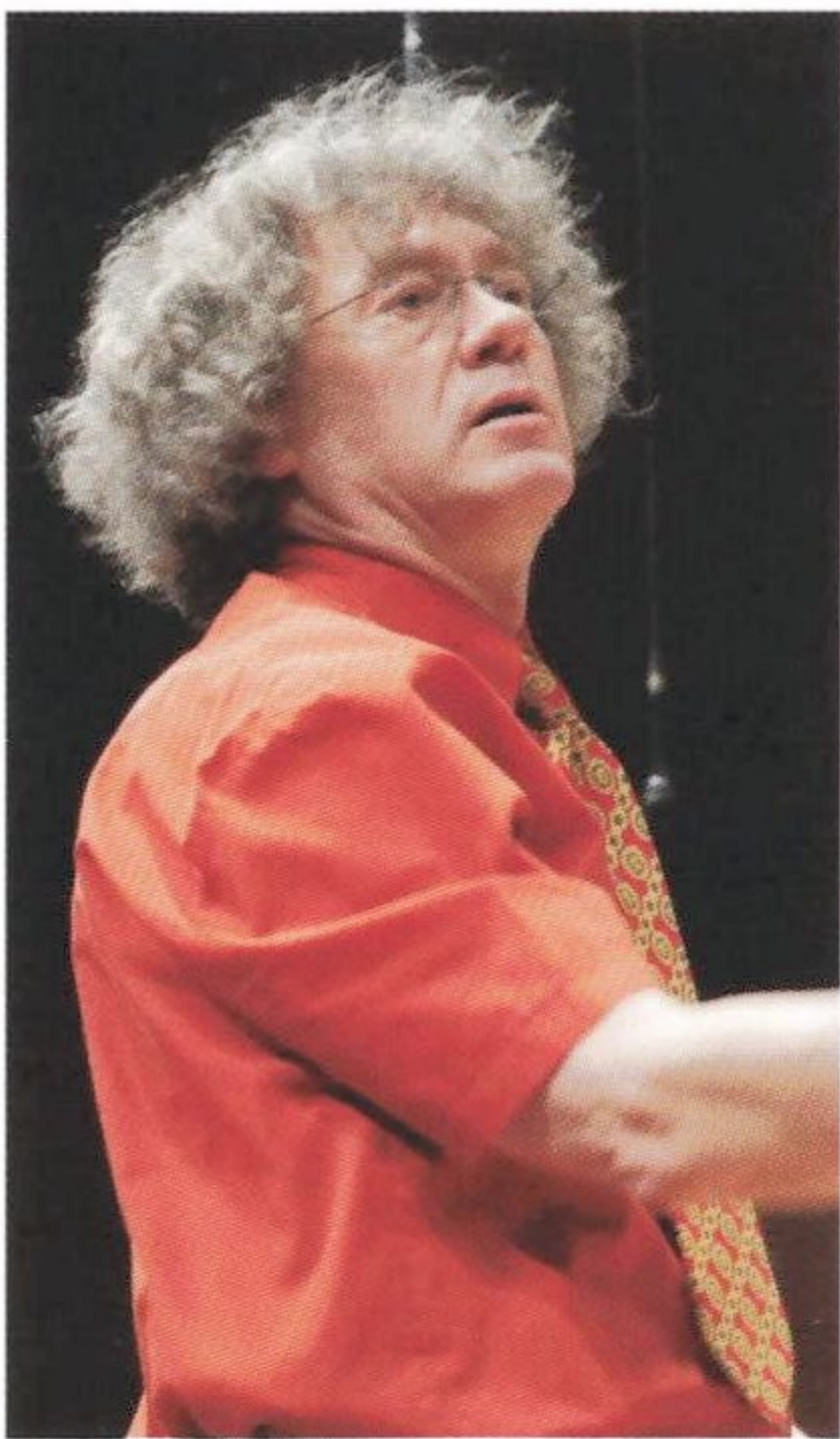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2회 정기연주회

부산MBC 창사 49주년 기념

## 혁명의 그랜드 심포니

-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바이올리니스트 마라 비젠갈리에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5월 9일 정기연주회에 이어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지휘로 5월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한다.

이번 무대 협연자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마라 비젠갈리에프(Marat Bisengaliev)가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마라 비젠갈리에프는 '놀라운 바이올린 연주가' (더 타임스), '벨기에의 천재적 바이올리니스트 외젠 이자이의 뒤를 잇는 연주가' (아메리칸 음악저널 팡파레지) 등의 찬사를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이다. 9살의 나이로 데뷔한 마라 비젠갈리에프는 1988년 라이프치히 국제 바흐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1991년 스페인 국제 니카노르 자발레타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입상과 동시에 콩쿠르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를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 연주상' 을 수상하였다.

1989년 카자흐스탄 챔버 오케스트라, 2003년에는 웨스트 카자흐스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마라 비젠갈리에프는 2008/2009시즌에 뉴질랜드, 미국, 카자흐스탄, 스페인,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 태국, 영국 등지에서 연주회를 가질 뿐 아니라 소니BMG사와 함께 '명연주가 앨범' 을 통해 주요 협주곡의 편집판 및 엘가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나이젤 히치콕의 마음의 기억 등과 같은 곡을 녹음할 예정이다.

1부 무대를 열 마라 비젠갈리에프는 하차투리안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를 들려준다. 이 곡은 금세기의 바이올린 협주곡 가운데 가장 대중성을 지닌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2부에서는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 11번 사단조 작품 103 '1905년' 을 연주한다. 이곡은 전체 연주시간이 60분에 이르는 장대한 곡으로 1905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러시아 제 1차 혁명을 소재로 작곡된 곡이다. 혁명시대에 살았던 예술가의 고독한 내면적 혁명이 음악으로 승화된 이 작품은 우리의 광주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는 뜻깊은 무대이다. 쇼스타코비치는 곡 중 6개의 혁명가를 인용했다. 표제와 대중적인 혁명가 등의 인용으로 작품이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쇼스타코비치의 개성적인 작품은 잃지 않았다.

제 1악장 '궁전 앞 광장(The Palace Square. Adagio)', 제 2악장 '1월 9일(January 9th. Allegro)', 제 3악장 '영원의 기억(In Memoriam. Adagio)', 제 4악장 '경종(Tocsin. Allegro non troppo)' 으로 각 악장에도 부제가 붙어 있다.

제 1악장 '궁전 앞 광장(The Palace Square. Adagio)', 제 2악장 '1월 9일(January 9th. Allegro)', 제 3악장 '영원의 기억(In Memoriam. Adagio)', 제 4악장 '경종(Tocsin. Allegro non troppo)' 으로 각 악장에도 부제가 붙어 있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 Dynamic Festival

5월 17일(토)~5월 18일(일) 오후 8:00  
해운대 씨네파크

5월 17일 토요일

출연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무용단

사회 : 손지현(부산MBC아나운서)



지휘자 박 호 성



안무자 홍 기 태



가수 박 현 빈



드리프터즈 크루



버숨새

5월 18일 일요일

출연 :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사회 : 손지현(부산MBC아나운서)



지휘자 김 정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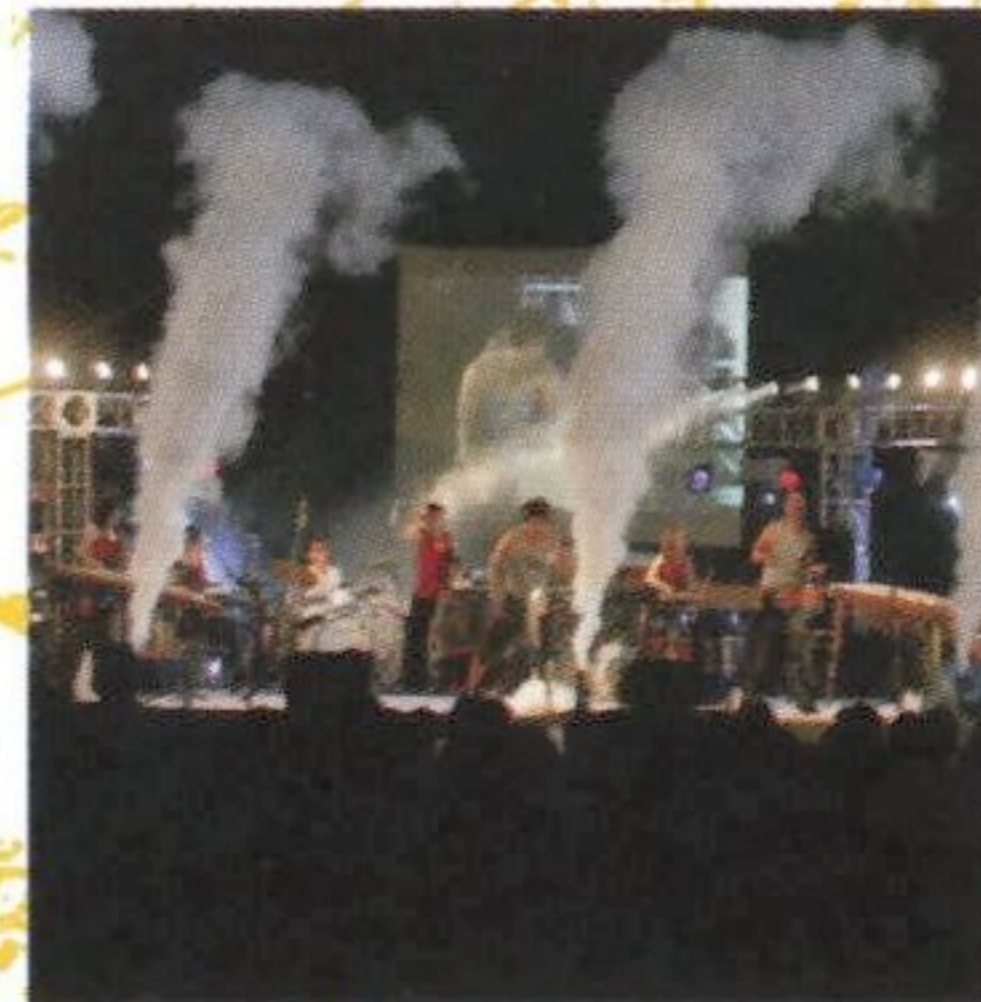
소프라노 박 정 원



테너 김 영 환



가수 정 수 라



타악퍼포먼스 비트씨클



부산문화회관에서는 2008년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5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해운대 씨네파크에서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담은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다이나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도시 부산을 알리고,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부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등 부산시립예술단과 부산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이나믹한 축제의 장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다양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부산의 열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정원, 테너 김영환, 파워풀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정수라와 신세대 트롯트 가수 박현빈, 비보이 한류의 주역 드리프트즈 크루가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5월 17일 첫 무대는 우리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살려내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부산시립무용단이 연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지휘하고 신세대 트롯트 가수 박현빈, 드리프트즈 크루(B-boy), 버슴새(풍물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박성희, 정선희(소리)가 우리 가락과 어우러지는 열정적인 무대를 펼친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부산시민을 위한 창작관현악곡으로 선곡한 '아름다운 인생'을 비롯 오늘의 만남을 관현악으로 표현한 영화 '왕의 남자' 주제가 '인연', 우리의 풍물과 B-boy가 만나는 다이나믹 부산을 위한 B-boy와 풍물놀이 협주곡 '상쇠' 등 다이나믹 페스티벌과 어울리는 열정의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5월 18일에는 SBS 예술단 단장 김정택의 지휘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부산시립합창단이 감미로운 클래식 향연을 펼친다. 이번 무대를 위해 소프라노 박정원, 테너 김영환, 가수 정수라와 타악 퍼포먼스팀 비트써클이 부산시민들에게 다이나믹

한 열정의 무대를 열어준다. 특히 이날 무대는 일요일 밤 가족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감미로우면서도 편안한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선곡했다.

테너 김영환은 '오 나의 태양이여', 소프라노 박정원은 아르디티 '입맞춤', 소프라노 테너 듀오로 듣는 '끝없는 사랑', 타악 퍼포먼스와 함께 듣는 '야니 \_ 스탠딩 인 모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 정수라의 '도시의 거리', '환희', '내 나이가 몇인데' 무대에 이어 부산시립합창단이 들려주는 '여행을 떠나요' '부산 갈매기'가 봄 밤하늘에 울려 퍼진다.

17일 전통 비보이팀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슴새와 함께 공연할 B-boy팀 드리프트즈 크루는 2004 배틀오브더이어 코리아(퍼포먼스 부분 1위), 2005 MBC 스타댄스배틀 1위, 2006 독일 배틀오브더이어(퍼포먼스 부분 세계 30여개국 중 4강), 2006 퍼포먼스오브더이어 KOR 등에서 우승하여 세계 무대에서 비보이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팀이다.

18일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는 김정택은 2000년 새천년 밀레니엄 축제 음악감독, 16대 대통령 경축행사 음악감독,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음악 작·편곡,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개·폐회식 음악 작·편곡을 맡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도 친숙한 소프라노 박정원은 세계 최대 콜롬비아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미국, 유럽 및 일본에서 활동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영환은 '엔리코 카루소' 밀라노 국제 성악콩쿠르, '카를로 코치야' 노바라 국제 성악콩쿠르, 'G.B.Viotti' 베르첼리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자코모 아라갈' 스페인 토로엘라 몬그리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우승했다.

**5월 17일 (토) 20:00 프로그램**

- 오프닝 (부산시립무용단 쇼 케이스)
- 부산시민을 위한 창작관현악 '아름다운 인생'
- 대중가요와 국악의 만남-가수 박현빈
- 부산시민의 정서 화합을 위한 창작관현악 '공감'
- 오늘의 만남을 표현한 관현악 영화 왕의 남자 주제가 '인연' 등

**5월 18일 (일) 20:00 프로그램**

- 클래식 명곡 모음
- 에두아르도 디 카푸아/오 나의 태양이여-테너 김영환
- 루이지 아르디떼 / 입맞춤-소프라노 박정원
- 플라시도 도밍고 & 모린 맥거번 노래 '끝없는 사랑'
- 야니/스탠딩 인 모션 (...with 타악 퍼포먼스) 등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1~8, 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2008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한  
극단 맥 대표 이 정 남

부산연극제와 부산국제연극제가 열리는 부산의 봄은 연극애호가들에게는 골라보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계절이다.

8개 극단의 경연작품과 6개 단체의 자유 참가공연이 펼쳐진 2008년 부산연극제가 지난 4월 14일 막을 내렸다. 올해 부산연극제는 '환생신화'를 선보인 극단 맥이 최우수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극단 맥의 연출가이자 대표인 이정남 씨(41). 연극제가 끝났지만 5월 3일 막이 오르는 부산국제연극제 축하공연과 6월 1일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를 앞두고 있어 그는 실 틈이 없다.

“상이라면 어떤 상이든 좋은 것이겠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당장 전국연극제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부산연극제 공연에서 지적되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남은 시간동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에 최우수 작품상과 우수 여자연기상을 수상한 '환생신화'는 아버지 제삿날 재산을 둘러싼 양생, 양정, 양현 삼남매의 아귀다툼 속에 숨을 거둔 어머니가 자신이 죽은 뒤에도 자식들의 싸움이 계속되자 환생을 하여 형제들을 심판하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이다.

이정남 씨는 이번에 직접 작품을 쓰고 연출을 했다. 연출이 직접 극작까지 하면, 객관적으로 작품을 볼 수 없고 극의 긴밀성이나 합리성이 적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연출가로서 마땅한 창작 희곡이 없으니 힘든 작업을 자처하게 된다.

1986년 12월 창단된 극단 맥은 그동안 전통연희 형식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을 발표해왔다. 극단 맥은 1987년 '노인 새 되어 날다'로 전국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이정남 씨 개인으로서는 1996년 '셋바람 부는 날에' 이후 10년 만에 받는 큰 상이다. 올해는 작품상을 수상한 극단에게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참관 기회가 주어져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단하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연극을 봐주셨습니다. 연극을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아 많이 좋아한 것 같습니다. 남은 공연까지 텍스트를 보완하고 배우양상부를 맞추도록 더 노력해야죠.”

지난해 11월 30일 부산연극제 참가 신청을 마치고 무대에 오르기까지 5개월 남짓 시간이 흘렀지만 계속 이어지는 공연 일정과 배우 부족으로 인해 처음 의도한대로 '환생신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다.

21살 때 극단 맥을 통해 연극과 인연을 맺은 이정남 씨는 올

해 연극입문 20년을 맞았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는데 난 연극공연장을 찾았지요.”

그를 연극계로 인도한 친구는 오래전 연극을 그만 두고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이정남 씨는 그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20년간 부산 연극계를 지켜 왔다. 인형극 줄잡이로 연극을 시작했지만 조명 스텝, 배우를 거쳐 적성에 맞는 연출로 방향을 전환했다. 중간에 돈 안 되는 연극이 힘들어 몇 차례 외도를 했지만 매번 무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의 연극적 본능을 감추지 못하고 회귀했다. 인생의 동반자인 부인 심미란 씨도 연극이 맺어준 인연이다.

부산연극계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그이지만 부산에서 전업 연극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나마 극단 맥은 아동극단을 같이 운영하며 공연을 쉬지 않고 올리고 있어 다른 극단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힘든 중에도 극단 맥은 2005년부터 동래문화회관 야외에서 야외마당극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투자한 만큼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경제논리와는 분명 역행하는 일이지만 매년 여름 1만여명의 관객과 만날 수 있어 보람이 크다.

이정남 씨는 요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로 덕천중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연극적인 상상력, 창의력을 불어넣는 일이 창작만큼 즐겁다. 학교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가 겪어왔던 힘든 연극작업을 쉽게 권할 수는 없다.

지방활동에 한계를 느낀 그는 전국 무대에 얼굴을 내밀면서 극단 맥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상복이 많은 편인지 참가하는 연극제마다 좋은 결과를 얻었다. 2004 경기연극제 무대예술상에서 단체 금상, 무대예술상, 여자연기상, 특별연기상을 수상했고 2005년 거창국제연극제에서는 '흥가에 별들어라'로 단체 은상과 최우수 여자연기상을 수상했다.

2005년 부산광역시 대표 극단으로 참가한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에서는 '안용복 장군'을 연출했고 극단 맥이 최우수 여자연기상을 수상했다. 2006년 경기연극제에서는 '부모님 전상서'를 연출, 단체 동상과 최우수 여자연기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에도 제4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에 작품 '동래별곡'으로 참가해 단체 은상과 연출상을 수상했다.

이정남 씨는 2007년에는 2005년부터 진행해온 동래야외극 페스티벌과 폭넓은 연극활동으로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가 수여하는 제 2회 올해의 연극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글/백경옥〉

귀에 쟁쟁한 김순애의

# 그대 맞음에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 연구소 이사장

앞으로 잔걸음을 치는가 하면 뒤로 뒷걸음을 치기도 하던 봄이 이제는 완연한 자태를 갖추기에 바쁘다.  
4월을 맞고 보니 박목월의 시 <4월의 노래>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김순애 작곡의 이 노래는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이 노래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의 애창곡이 되었다.  
박목월의 작시로 <4월의 노래>와 함께 애창되는 가곡으로 <산도화>와 <구강산>이 있다. 이 두가곡은 모두 조두남 작곡이며 <산도화>는 바리톤 박성원이 노래했고, <구강산>은 테너 안형일이 노래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김순애 작곡의 가곡 가운데 가장 널리 애창된 것은 역시 김남조 작시의 <그대 있음에>가 아닌가 한다.

그대의 근심 있는곳에  
 나를 불러 손잡게 하다  
 큰 기쁨과 조용한 갈망이  
 그대 있음에 내 맘에 자라거늘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그대의 사랑 문을 열 때  
 내가 있어 그 빛에 살게해  
 사는것이 외롭고 고단 함  
 그대 있음에  
 사랑의 뜻을 배우니  
 오! 그리움이여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그 빛에 살게해

이곡은 매우 섬세하고 뜨거운 정이 넘쳐 흐르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곡가 김순애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작곡가이다. 황해도 안악에서 교역자(敎役者) 김성로(金聖魯) 목사의 여섯 남매 중 세째로 태어나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도소리와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며 자랐으며 주일학교에서 손가락을 5선지로 하여 악보 읽기를 배웠다. 함북 길주 보통학교, 함북 성진 보신 여학교, 함남 성생여고, 서울 배화여고를 거쳐 1937년 이화여전에 입학, 피아노를 전공했으나 1938년 미국에서 작곡수업을 하고 귀국한 김세형의 화성학 강의에 심취해 마침내 김교수의 권유로 작곡을 전공하게 되었다.

1941년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대구신명여고에서 그의 첫 음악교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 후 상경여고, 풍문여고, 숙명여고, 경기여고 등에서 교편을 잡다가 8·15해방을 맞이했다.

그의 창작에 대한 첫 시도는 이화여전 재학시절에 자작시에 작곡한 <네잎 클로버>이다. 이 노래는 소녀의 순정을 담백 담은 노래로 행복과 희망을 마음껏 구가하고 있다.

1946년 8월 15일 서울 신문사 후원으로 한국 최초의 개인작곡 발표회를 경기여고 강당에서 가졌었다. 이날 가곡 <동경> <환상> <발> 등은 베이스 김형로가, <낙화> <네잎클로버>는 그

의 일년 선배인 소프라노 김자경이 김순렬 반주로 각각 불렀다. 또한 피아노 소품 <황혼> <환상> 변주곡 등은 작곡자 자신이 연주했고, 바이올린 소나타를 계정식(桂貞植)의 바이올린과 이인형의 피아노로 발표했으나 이채(異彩)롭기가 더 이를 데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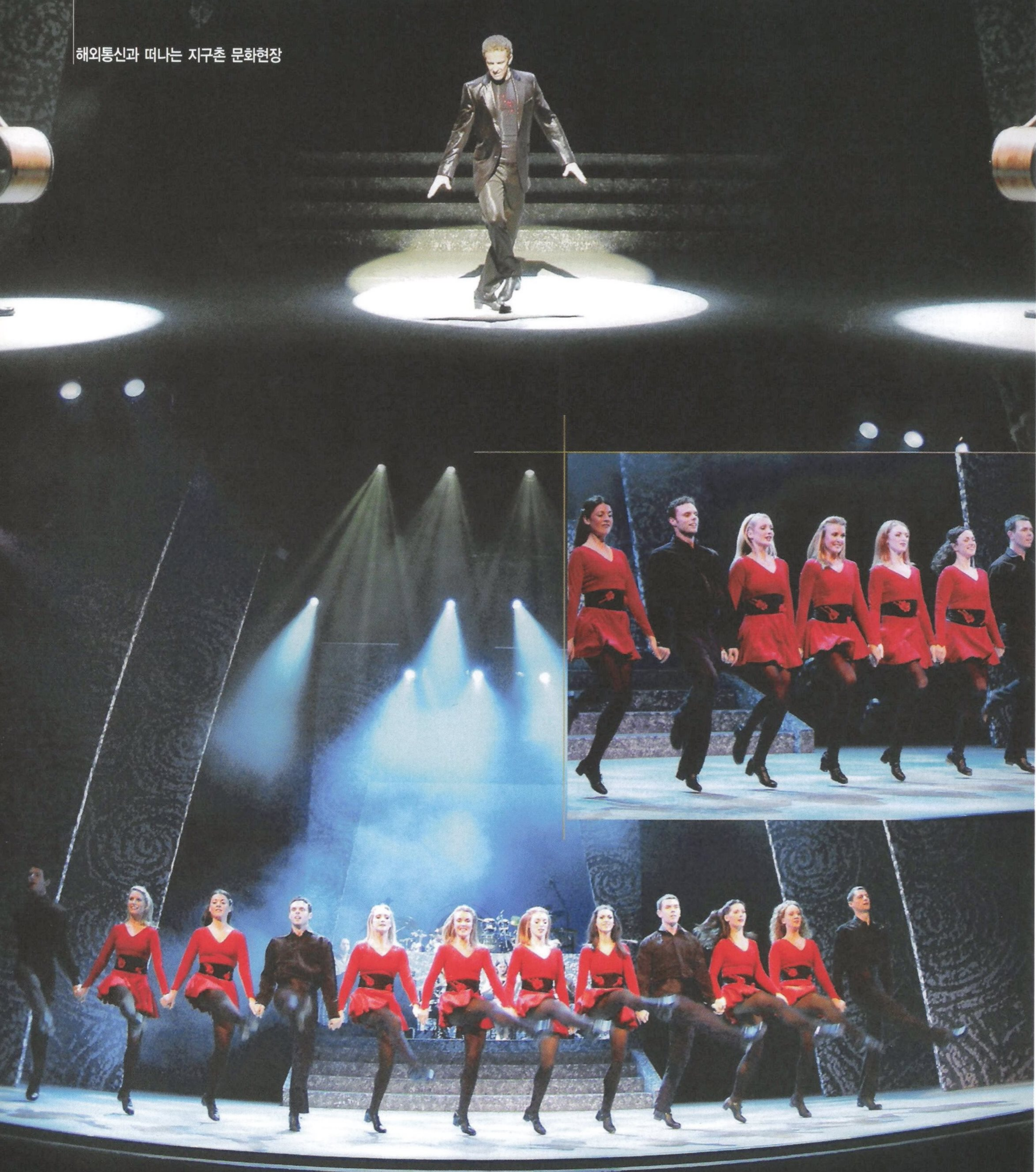
1946년 9월 2일 성악가 김형로(金炯魯)와 결혼식을 올렸는데 참석한 음악인들을 보면 맨 먼저 현제명 박사가 신랑을 데리고 입장했고, 웨딩마치는 피아노 임원식, 바이올린 문학준, 첼로 이경렬 트리오가 멘델스존의 <한 여름밤의 꿈> 서곡으로 신혼부부를 맞이했다. 박태준 박사의 축사, 김자경의 축가, 객상수 지휘로 승동교회 합창단이 바그너의 <로엔그린> 합창이 올려퍼질 때 이들은 한쌍의 부부가 되어 식장에서 걸어나왔다.

1948년 이화여고 음악교사, 다음해 경기여고로 옮겼고 부산 피난시절인 1951년 10월 제 2회 작곡발표회를 남성여중 강당에서 가졌다. '김순애 가곡의 밤'으로 열린 이 발표회에서는 가곡 <해당> <날라리> <눈> <또 하나 나의 태양> <파초> <가는 길> <모란이 피기까지는> <송별> <낙화> <출정사> <바람의 노래> <사랑의 영혼> <진달래꽃> <여름바다> <찢어진 피리> 등이 연주 되었고 출연진으로는 베이스 오현명, 배덕윤, 바리톤 조상현, 테너 홍진표, 이인범, 소프라노 정영식, 김천애, 알토 이정희 등이었고 반주는 정재동(鄭載東)이었다.

연주된 곡이나 출연한 성악가들의 면면으로 볼 때 한국 최초의 작곡가가 여는 한국초유의 거대한 음악의 향연이었다고 하겠다. 특히 이날 음악회에 참석한 시인 조지훈은 자작시 <낙화>를 듣고 매우 흡족해 했다고 한다.

여사의 남편인 김형로는 1941년 전 일본음악 콩쿠르에서 2위로 입상한 베이스로, 동양의 '살리아핀'이란 절찬을 받았다. 서울음대 교수로 오페라 운동과 후진양성에 진력하고 있었으나 6·25동란이 일어났던 1950년 9월 18일 납북되어 소식이 없다. 김형로에게 지도 받은 성악인으로는 오현명, 조상현, 이정희, 배덕윤, 홍진표, 황영금, 오인환 등 쟁쟁한 멤버들이다.

김순애는 1953년 숙명여대 조교수, 1955년 이화여대 조교수 겸 작곡주임, 1957년 미국 이스트맨 음대(Eastman, School of music)를 졸업, 1960년 이화여대 교수로 소급 발령을 받았으며 슬하에 세 따님을 두었다. 여성으로서 우리나라 작곡계 뿐 아니라 음악풍토 전반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그의 <사월의 노래> <그대 있음에>가 귀에 쟁쟁하다.



*memory rich in song the heart come home*

# 시애틀 파라마운트 극장(The Paramount Theatre)과 리버댄스 순회공연(The Riverdance Irish Dance Troupe)

김 현 속 | 미국통신원,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워싱턴 대학 무용학과 재학 중

음악공연 외에는 마땅한 퍼포먼스가 없었던 시애틀의 공연계는 봄기운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는 2월을 시작으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두더지 마냥 공연예술가들도 추운 겨울 동안 땀 흘려 준비한 성대한 잔치가 시작됨을 알리듯 공연이 하나 둘씩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 선두에 나선 공연이 바로 아이리쉬 댄스(Irish Dance)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리버댄스(Riverdance). 아일랜드(Ireland) 전통음악과 탭 댄스(Tap Dance), 그리고 다양한 전자악기와 접목시켜 대히트한 퍼포먼스인 리버댄스(Riverdance)는 전 세계의 공연 분야에 아일랜드 선풍을 불러일으켰다.

리버댄스(Riverdance)는 처음 1994년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획기적인 기획으로 아일랜드 전통음악에 아이리쉬 탭(Irish Tap)을 접목시킨 7분짜리 짧은 공연으로 첫 선을 보여 관객과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붙잡았다. 그도 그럴 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을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 북(1초 35회 탭 기록)에 오른 아일랜드 무용계의 스타인 마이클 플라들리(Michale Flatley)를 비롯한 최정상급 아일랜드 탭 댄서들과 작곡가, 연출가, 감독, 안무가들이 뭉쳐 만든 야심찬 작품이었다. 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힘입어 2시간짜리 정식공연으로 만들어져 유럽전역과 미국 브로드웨이에 까지 진출하여 지금까지 대성공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도 TV광고와 서울공연을 통해서 그 명성을 익히 들었던 터라 모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리버댄스공연이 우연히도 시애틀에서, 더욱이 시애틀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파라마운트 극장(The Paramount)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세계인이 동감하는 아름다운 극장과 감동의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 2월 1일 황금의 금요일 저녁 8시, 다운타운

9th Pine Street에 위치한 극장을 서둘러 찾았다.

시애틀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기로 유명한 파라마운트 극장(The Paramount Theatre : 1928 ~)은 주변경관과 외관이 뉴욕의 브로드웨이 극장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진 않았지만 공연장 실내의 고풍스럽고 화려한 인테리어 때문에 전 세계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선호하는 공연장소로 유명하다. 1928년에 개관하여 80년의 역사를 가진 파라마운트 극장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가 마사 그라함(Martha Graham)을 비롯하여 앨빈 에일리(Alvin Ailey), 마크 모리스(Mark Morris) 등 많은 유명무용가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사랑하는 공연장이라 시애틀 시민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 파라마운트 극장의 가장 큰 장점은 1층 객석이 공연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를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좌석 완전 자동변환 시스템(Automated Convertible Seating Floor System)이라고 하는데, 공연과 모임의 성격에 맞춰 최소 200개의 좌석에서 최대 2,000개의 좌석 배치는 물론이고 1층 좌석을 전부 비워내어 연회장까지 소화시키는 미국 최초의 극장으로 개인공연, 리셉션, 디너쇼, 기업의 이벤트장소 등으로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극장내의 커피숍과 식당, 호텔까지도 겸비되어 연간 250건 이상의 이벤트를 유치하는 등 최고의 극장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필자가 이른 시각에 파라마운트 극장에 도착했음에도 많은 관객들은 벌써 이태리풍의 실내 인테리어와 천장과 벽에 달린 300만개의 크리스탈 구슬과 218개의 촛불 조명이 주는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에 취해 기다리고 있었다. 또 일부는 각 층별로비에 마련된 와인바에서 간단한 스낵과 와인, 맥주잔을 기울이며 공연에 대한 기대와 감상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여유

로운 모습도 눈에 띄었다.

2막 13장으로 구성된 리버댄스의 오프닝 무대는 강렬하고 박진감이 넘치는 탭댄서들이 줄지어 서서 화려한 탭(Taps)을 보여주는 군무로 시작한다. 이번 공연의 주역인 남녀무용수가 눈으로 믿기 어려울 만큼의 빠르고 기막힌 탭댄스로 2,807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을 2시간 여정의 작품 속으로 단번에 끌어 들였다.

양손을 골반에 고정시키고 턱과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연신 환한 웃음으로 발의 탭과 점프, 발끝으로 회전하고 킁을 차는 모습이 마치 발바닥에 스프링을 달고 움직이는 발레리나 인형 같았다. 아이리쉬 전통 탭 댄스에서부터 시작된 공연은 리듬 탭, 핑키 탭, 재즈 탭댄스를 두루 선보이며 발레와 현대무용과 같은 동작표현도 스스럼없이 접목시켜 또 다른 레퍼토리를 만들어 보였다.

이 바탕에는 아일랜드를 비롯한 인류의 역사와 문화, 현대사 회, 계절, 평화와 자유에 관한 진지한 스토리를 내포하여 창작 된 듯 하다. 재미와 인기가 많았던 뉴욕 재즈 탭퍼들과 유럽 전통 탭퍼들의 탭댄스 배틀은 인종, 문화적 차이를 춤으로 극복 하고 친구가 되는 모습을 코믹하게 연출해 관객의 웃음과 괴성을 지르게 만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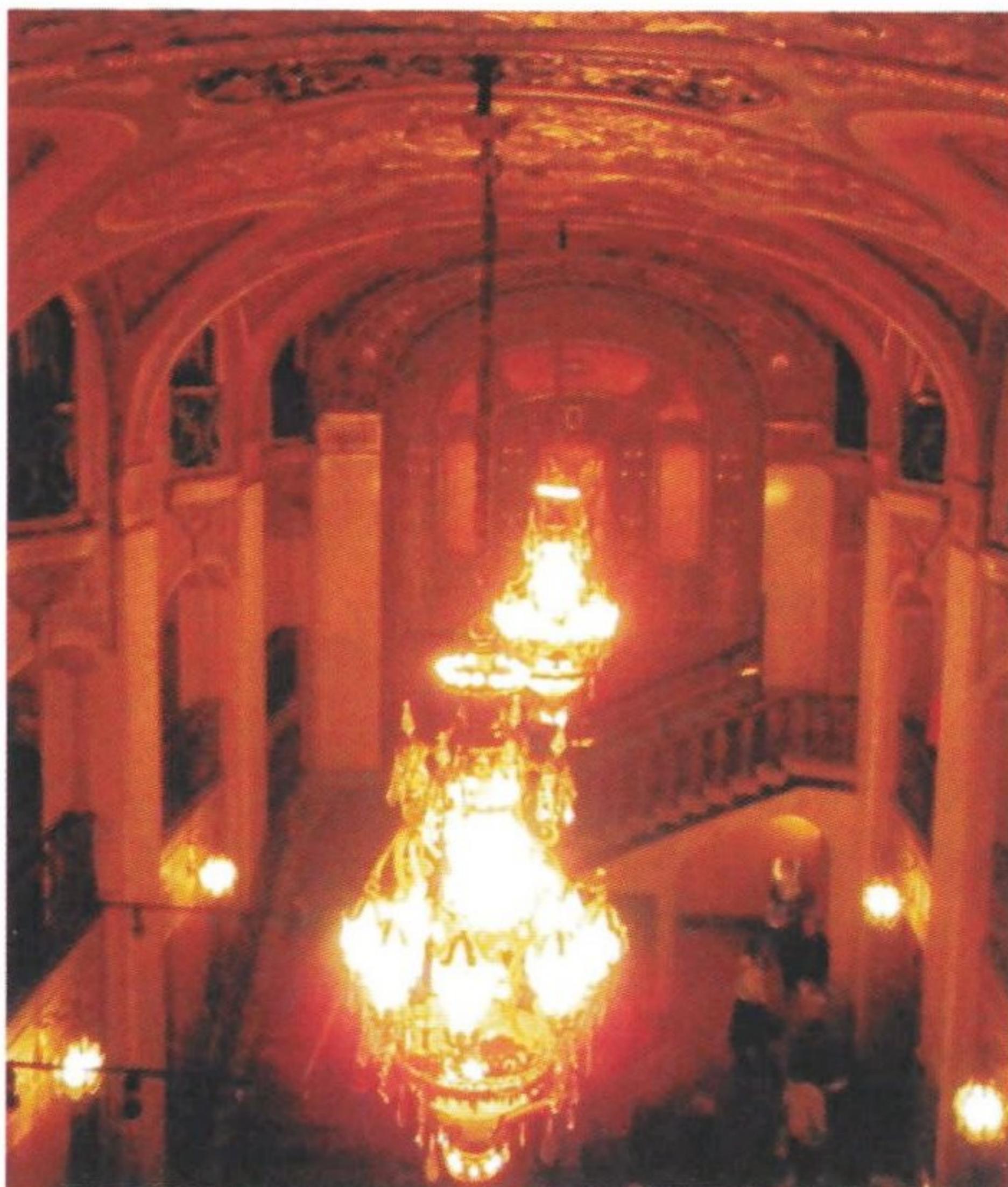
즐겁고 화려하기만 할 것 같은 탭댄스를 노래와 춤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동을 주는 데는 리버댄스 밴드단의 아일랜드 전통악기의 소리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매트 바쉬포드(Matt Bashford)의 울리언 피리(Uilleann Pipes)의 휘슬은 애절한 듯 감미로운 소리로 극의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고, 팻 매

건(Pat Mangan)의 피들(Fiddle) 소리는 경쾌하고 활발한 비올라음색으로 장면들의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불어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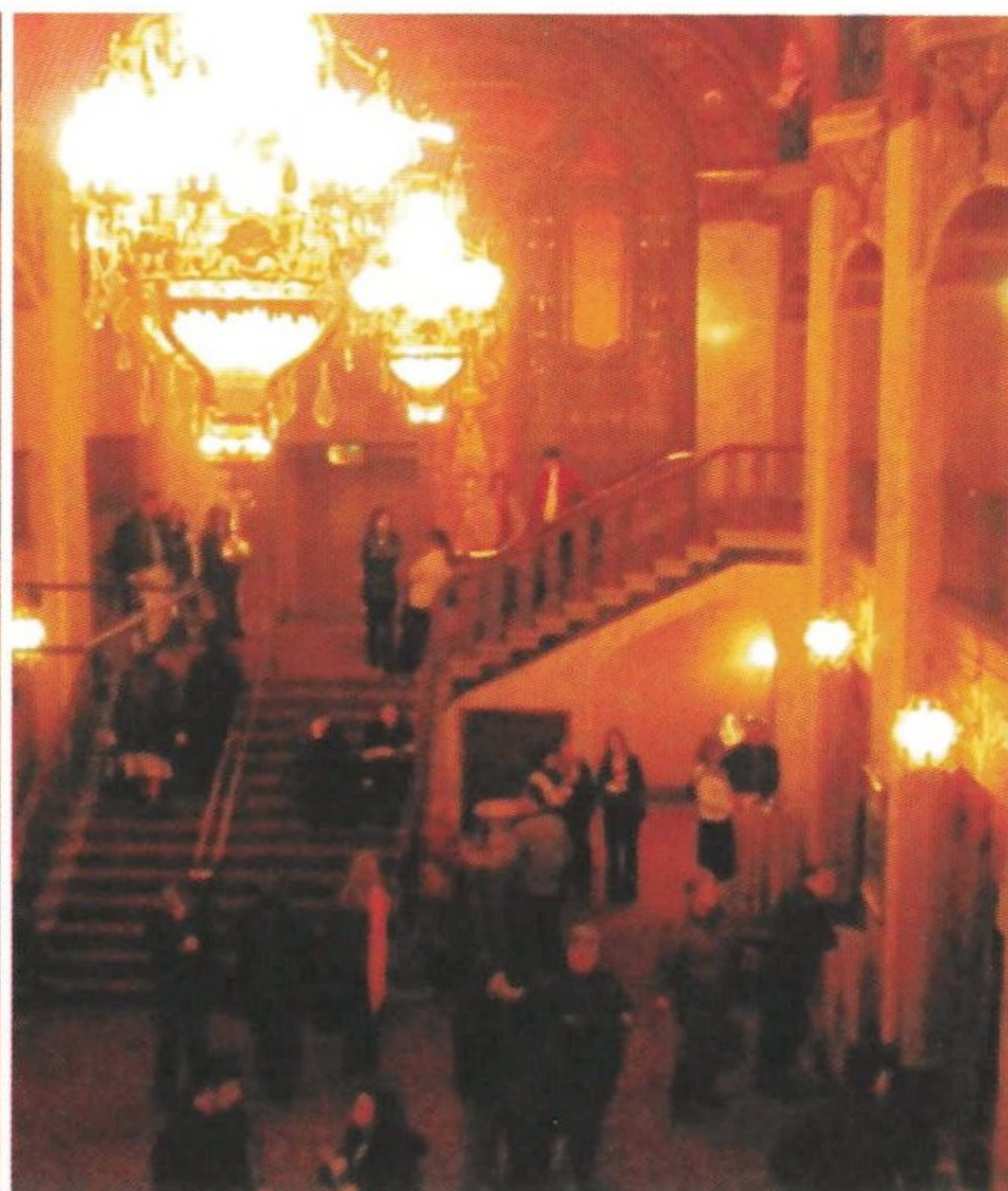
이처럼 아일랜드의 서정적이고 애절한 듯 신비스러운 선율을 담고 있는 피들과 울리언 피리소리는 싱어들의 청명하고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연주 속에 녹아들어 관객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듯 따뜻하고 편하게 느끼게 했다. 그러다 때론 갑자기 집시들의 흥겨운 가락연주처럼 역동적인 연주선율에 곁들여진 플라멩고, 발레, 현대무용, 살사, 러시아민속춤, 재즈 등이 결합된 탭댄스가 조화롭게 펼쳐졌고 역시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2시간 공연의 춤 시리즈는 극의 카리스마적인 전체 연출이 처음부터 익숙하게 보아온 것인양 자연스럽게 조차 했다.

리버댄스는 단순한 탭댄스나 춤이라기보다는 잘 차려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는 듯한 웅장한 스케일과 화려한 무용극이다. 세계 각국에서 입단한 무용단원들의 신기에 가까운 탭댄스 실력과 한 치의 오차가 없는 기계같이 완벽한 팀 호흡은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탄성을 지르게 만들어 아이리쉬 댄스에 빠져버리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아름다운 파라마운트 극장에서 리버댄스 팀이 피나는 노력으로 얻어진 뜨거운 땀의 열기와 정열, 기꺼이 보답하는 관중들의 우뢰와 같은 기립박수와 환호성. '지난 수세기 아일랜드에서 보여줬던 음악, 연극, 영화의 모든 공연을 통틀어서 리버댄스(Riverdance)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감각적이며 화려한 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평했던 세계 언론에 나의 한 표를 보태고 싶다.



1층 로비 천정에 매달린 크리스탈 구슬과 촛불전등(3층로비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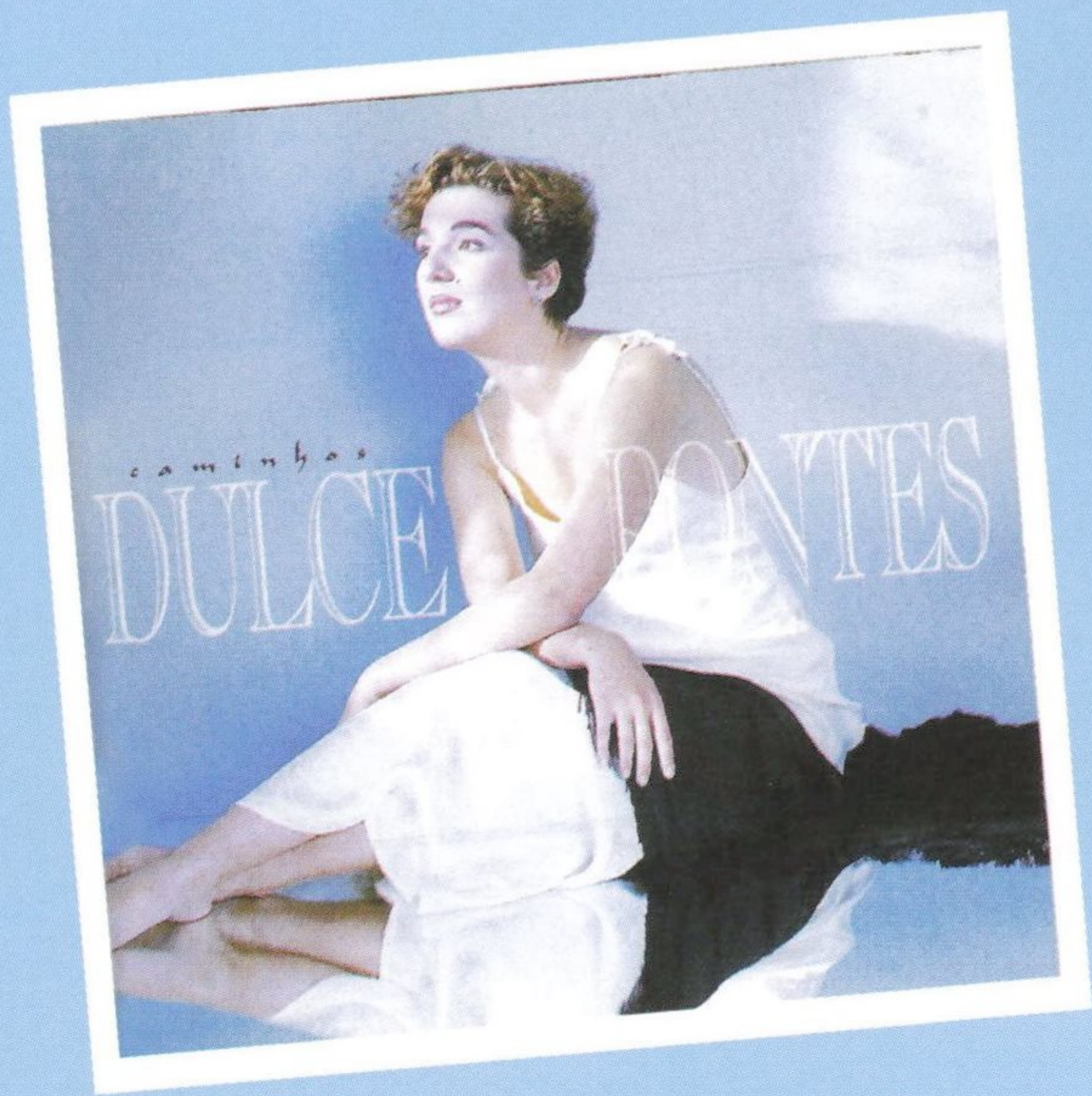


층별 로비에 배치된 와인바



## 포르투갈 Ⅲ

# 변모하는 파두(Fado)의 모습



황 윤 기 | 음악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 진행자

파두는 지역과 스타일에 따라 '리스본 파두'와 '꼬잉브라 파두'로 나누어진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은 '리스본 파두'에 대한 것들이다. '리스본 파두'가 포르투갈 사람들 특유의 한의 정서인 '사우다드'를 어둡고 통속적인 감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꼬잉브라 파두'는 다분히 지적이고 낭만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 포르투갈 북부의 유서 깊은 교육도시인 꼬잉브라에서는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남성 가수들이 비교적 밝고 힘찬 운율로 시적인 가사를 노래해왔다.

1932년 안토니우 살라자르의 철권독재통치가 시작되면서 포르투갈 현대사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데, 민중 계몽의 메시지를 담기도 했던 '꼬잉브라 파두'는 독재정권 시절 저항음악의 바탕이 되기도 했다.

파두의 전설이라 불리는 '아말리아 호드리게스' 이후 등장한 파디스타들은 현재 월드 뮤직이라는 장르화된 율타리 속에서 더욱 큰 감동으로 세계 음악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뒤를 이을 첫 번째 주자로 손꼽혔던 'dulce pontes(Dulce Pontes)'는 풍부한 표현력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파두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모한 사운드 속에 담았고, 내한공연과 함께 우리 노래 '보리밭'을 부르기도 했던 '미시아(Misia)'도 꾸준한 활동으로 파두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리스본 파두' 진영에서는 흔치 않은 남자 가수로 '남자 아말리아 호드리게스'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던 '까마네(Camane)'와 지적인 감성으로 파두를 표현하는 '크리스티나 브랑쿠(Cristina Branco)'도 놓칠 수 없는 현재의 파두 가수들이다.

여러 음반들과 내한공연을 통해 국내 월드뮤직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마리자(Mariza)'는 세계 음악계가 인정하는 현역 최고의 파두 가수로 손꼽힌다. 전통과 변화의 틀을 넘나드는 악기 편성 속에서 보여주는 '마리자'의 놀라운 가창력과 음악성은 '아말리아 호드리게스의 재래'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 외에 '까띠아 게헤이루(Katia Guerreiro)', '마팔다 아르나우트(Mafalda Arnauth)' 등이 '마리자'와 함께 대표적인 신세대 파두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파두에는 고유한 악기가 뒤따른다. 우선 '기따하 포르투게사(Guitarra Portuguesa)' - '포르투갈 기타'라고 부르는 파두 특유의 악기가 있다. '파두 기타(Guitarra do Fado)'로 불리기도 하는 이 악기는 반원에 가까운 몸통의 류트형의 악기이다. 12현으로 팽팽한 고음의 소리를 지니고 있어 음의 파장은 짧지만, 투명한 음색은 파두 고유의 어둡고 청승맞은 분위기를 주도한다. 아랍 음악의 영향이 엿보이는 가수의 절절한 가창과 함께 파두 고유의 향기를 피워 올리는 가장 중요한 악기인 것이다. 여기에 포르투갈에서는 '비올라'로 불리는 클래식 기타나 스페니쉬 기타가 화음을 담당하며, 베이스가 함께 한다.

한편, 파두는 1990년대를 전후로 '노바 파두(Nova Fado)-새로운 파두'라는 현대적인 모습으로의 변모를 꾀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악기 편성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전형적인 악기들 외에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이 가세해 파두의 감성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전통음악, 또는 다른 장르와의 퓨전 현상도 빈번하게 일어나 다양한 사운드를 배경으로 하는 파두 음악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파두를 레코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파두의 창법을 고수하는 가수와 다른 악기들과 함께 등장하는 '포르투갈 기타', 그리고 곡조에 담긴 고유의 감성은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즉, 음악의 뿌리는 여전히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는 뜻이다.

# 지폐에 깃든 역사와 문화

채 경 헤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화폐는 닥나무 흰 껍질로 만든 지폐로 조선시대 법전인 대전통편(호조편)에 저화(楮貨)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지만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에 위치한 화폐박물관은 세계 70여 개국의 은행권이 전시되어 지폐예술의 향기를 전하고 있으며, 시간당 전지 6,0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요판인쇄기 모형(독일산, 1975년 구입)과 하루 5톤의 은행권 용지를 제조할 수 있는 초지기(抄紙機, 독일산, 1983년 구입)를 볼 수 있다.

지폐는 '뷰링(burin)'이라는 조각도로 동판을 긁어 이미지를 만들고, 긁혀진 오목한 부분에 잉크나 물감을 넣어 종이에 찍어내는 인그레이빙(engraving)기법을 사용한다. 이 기법은 격조 높은 선묘의 효과를 얻는 대신 고난도의 숙련이 필요해서 현대에서는 주로 지폐 제작과 우표에만 쓰이는 추세다. 그렇다면 지폐는 판화 작품인가? 어떤 이는 지폐도 판화의 에디션 넘버처럼 고유번호가 찍히고, 많이 찍더라도 제 값을 받게 되니 가장 비싼 판화라고 우스개소리를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지폐의 소재는 순면이다. 면은 부드러우며 질기고 때가 덜 타고 잉크가 잘 스며드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영국은 면에다 아마(亞麻)를 섞고 일본은 삼(麻), 펄프를 혼합한다. 1988년 호주는 플라스틱 재질의 폴리머(polymer)를 지폐용지로 사용하고 뉴질랜드도 그 뒤를 따랐다. 폴리머는 물에 젖지 않고 수명이 길고 재활용이 가능한 반면, 잘 안 펴지고 깨지는 단점도 있어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가로형 은행권을 사용하지만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세로형 지폐이다. 스위스지폐는 마치 한 폭의 파스텔화를 연상할 만큼 밝고 화사한 색감을 자랑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위조하기 어려운 지폐로 알려져 있다. 자외선을 비추면 선명하게 드러나는 투명잉크를 비롯하여 무려 14가지의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있다. 그러면 위폐방지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2007년 국제화폐발행협회는 보안성이 뛰어난 차세대 지폐를 선정했다. 대상(大賞)은 세계 최초로 양면에서 모두 보이는 은선(security thread)을 채택한 <카자흐스탄 1만 텡게>가, 우수상은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특수 폴리머로 제작되어 가정용 장비로는 복제가 불가능한 <멕시코 50페소>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렌즈 띠를 사용한 <스웨덴 1,000크로나>가 차지했다.

은행권 디자인 속에는 국가마다의 특성이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또 긴 세월동안 통용되어온 세계 각국의 지폐에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있다. 프랑스는 18세기 초 루이 15세 때 최초의 지폐가 등장하였고, 루이 16세는 <아시냐>라는 지폐를 대량으로 만들면서 본인의 초상을 넣었다. 그러나 경제파탄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자 루이 16세는 마부로 변장하여 해외 탈출을 시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폐의 초상화에 익숙한 시골 농부의 신고로 붙잡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프랑스 프랑은 문화예술의 나라답게 정치인을 배제하고 문화예술인이나 과학자를 우선적으로 등장시켰다.

남미의 지폐 앞면에는 유독 혁명가나 민족지도자 초상이 많다. 그것은 신생독립을 쟁취한 역사적 산물로서 독립정신의 계승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쿠바의 3페소에는 20세기 최후의 게릴라 <체 게바라>의 초상이 담겨져 있는데, 그는 1959년 1월 카스트로와 함께 수도 하바나에 입성하고 그 해 쿠바중앙은행총재에 올랐다. 그리고 지폐에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총재의 서명이 있으나 한·중·일 문화권에서는 서명 대신으로 인장을 찍는다.

세계 지폐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영국의 엘리자베스2세 여왕으로 영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모두 15개국 32종의 지폐에 새겨져 있다. 그리고 호주의 지폐에는 한 면은 여성, 다른 한 면에는 남성이 그려져 있어 남녀평등을 보여준다. 세계 각국의 지폐를 보면 인물 초상이 매우 많은 편이며, 초상은 상징성과 함께 잘 기억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네덜란드 지폐에는 인물 초상이 없다. 1982년 새 지폐부터 인물 대신에 강렬한 색채의 기하학적인 그림과 꽃, 등대 등 국가 상징물을 새겼다. 해바라기가 그려진 50굴덴 지폐는 특히 아름다워서 요즘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한 아차 실수가 일어난 지폐도 있었다. 프랑스는 1993년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초상, 필리핀은 2004년 아로요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지폐를 발행하면서 스펠링을 착오하여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태국 지폐에는 푸미폰 국왕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데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존경심이 유별나서 지폐를 접는 것도 싫어하고, 구겨진 지폐는 다리기까지만 한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1980년대부터 지폐에 소수민족의 모습을 실어 통합에의 의지를 보이고, 최근에 분리 독립의 요구가 이슈화되고 있는 티베트 라싸의 포탈라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중국지폐 50위안 뒷면에 아로새겨져 있다.

2002년 1월, 유럽경제통화연맹은 12개국의 자국통화의 유통을 정지시킨 후 유로화를 발행하였다. 모두 7종인데 전 지폐의 앞면은 '유럽의 열린 마음'을 상징하는 문과 창문을, 뒷면은 유럽의 건축양식과 다리, 유럽지도가 그려져 있는데, 다리는 유럽과 세계와의 소통을 의미한다.

이렇듯 지폐는 각국의 얼굴로, 또는 국민정서의 표상으로 그 나라의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고, 그 시대의 현상과 정신을 담고 있다.



화폐박물관 제2전시실-〈요판인쇄기 모형〉



중국 2각 인민폐-〈소수민족의 모습〉



캄보디아 100리알 지폐-〈앙코르 유적지〉



쿠바의 3페소 지폐 앞면-〈체 게바라〉의 초상



푸른 쪽빛 바다와 빼어난 해안절경이 어우러진 남해안,  
그 끝자락에 위치한 해오름예술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체험공간이 어우러진 문화 휴식공간이다.



##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 남해 해오름예술촌

푸른 쪽빛 바다와 빼어난 해안절경이 어우러진 남해안, 그 남해안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어촌마을인 은점마을 한켠에 자리잡은 해오름예술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체험공간이 어우러진 문화 휴식공간이다.

아름다운 바닷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해오름예술촌은 고등학교 선생을 지냈던 촌장 정금호씨가 사비를 들여 폐교였던 한 초등학교를 다양한 문화행사도 즐기고 직접 문화체험도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2003년 5월 개촌식을 가진 후 이 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해오름예술촌은 이제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찾는 남해의 새로운 문화명소가 됐다.

해오름예술촌에 도착하면 우선 유럽의 아름다운 주택을 연상케 하는 뽀족지붕과 테라스 등 건물 외관과 장승과 솟대, 다양한 조각상이 들어선 넓직한 운동장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운동장 한켠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칠 수 있는 야외무대가 마련되어 있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의 연주회와 민속놀이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펼쳐진다.

건물 1층에 들어서면 정금호 촌장이 30여 년간 수집한 5만여점의 다양한 옛날 물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미닫이문이 있는 텔레비전과 석유풍로, 옛날 돈, 딱지 등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옛날 생활용품에서부터 6, 70년대 교실과 만화방을 재현해놓은 추억의 공간은 빛 바랜 사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2층에는 독일 와인과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독일음식문화관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인근에 위치한 독일인 마을과 연계해 와인세미나, 옥토버 페스티벌 등 독일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 기획전이 열리는 호정 갤러리에서는 그동안 모형선박, 장승과 서예의 만남, 토우전, 도예전 등 특색있는 전시가 열리기도 했다.

무엇보다 해오름예술촌에 가면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인기있는 체험은 바로 도예와 알공예 체험. 도예의 경우 유약의 성분과 가마의 온도에 따라 각양각색의 색깔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도자기 색깔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높다. 만든 작품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마에 구워 택배로 보내주지만, 이 곳을 잊지 못해 직접 찾으러 오는 관람객들도 많다고 한다.

즉석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알공예는 왕초보라도 쉽게 만들 수 있어 더욱 인기가 많다. 종류도 목걸이와 열쇠고리로 이용되는 메추리알에서부터 인형과 종, 시계를 만드는 오리알, 거위알, 타조알까지 다양하기만 하다. 이밖에도 천연염색, 솟대만들기, 칠보공예 등 취향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 해오름예술촌을 방문한 후에는 인근 독일마을과 남해천연죽방렴에도 들러볼 수 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독일마을은 1960년대 후반 독일로 갔던 한인 간호사와 광원들이 현지에서 독일인과 결혼해 살다가 황혼에 가족과 귀국해 함께 모여 사는 마을로, 독일풍의 아름다운 전원주택이 자연풍광과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을 연상시킨다. 또 인근 지족해안의 천연죽방렴은 바다에 그물을 쳐놓고 조수간만의 물살을 이용해 멸치를 잡는 원시어업으로, 아무데서나 볼 수 없는 이색 생태체험을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할 수 있다.

■문의/해오름예술촌(055-867-0706)

〈글/정복엽〉

## 판화의 매력에 빠진 POP 판화동호회

가장 대중적인 장르이면서도 막상 실생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판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모인 POP 판화동호회는 판화의 매력에 빠져사는 아마추어 작가들의 모임이다.

POP 판화동호회는 지난해 부산시립미술관이 개설한 판화강좌 1, 2기 수강생 장미영, 김미경, 김은주, 김진, 최숙경, 조서정, 김현숙, 강수현, 이미경 등 9명으로 결성되었다. 대중미술의 약자인 팝아트(Pop art), 즉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대중미술로서의 판화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동호회명 POP는 P(print), O(open, opportunity), P(possibility, prospect), 판화를 통해 희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도 담겨있다.

현재 과반수 가까운 회원들이 1기 초급과정에 이어 2기 중급과정을 마치고 지금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3기 강좌까지 수강하는 등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 또 강좌가 열리는 매주 화요일에는 수업 후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작품으로만 접근하려는 전공자들에 비해 POP회원들은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는 그 과정자체를 즐긴다”는 판화가 채경혜 씨. 1기 강좌부터 수업을 맡았던 인연으로 동호회의 판화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채경혜 씨도 판화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들과 함께하는 동호회 활동이 재미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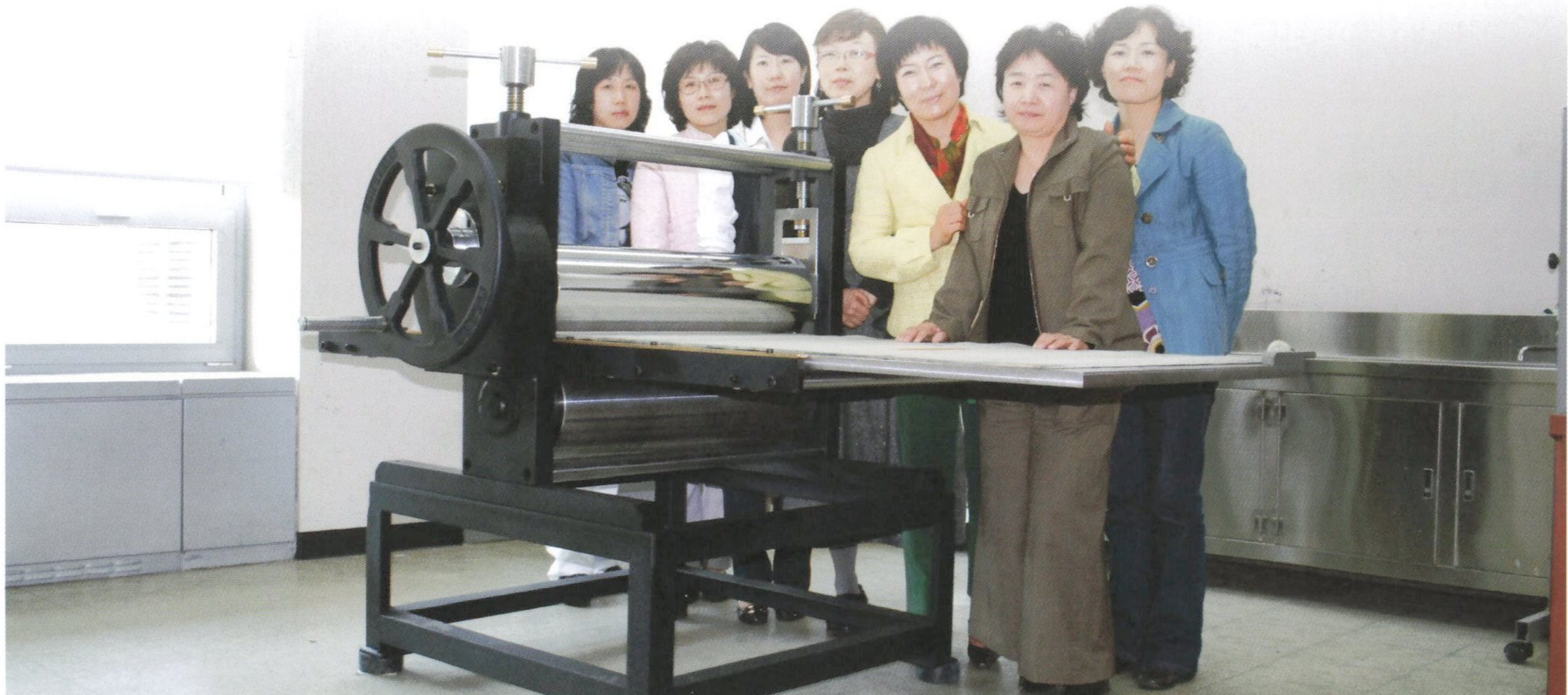
지난해는 회원 김진 씨와 김은주 씨가 2007 행주미술대전과 부산미술대전, 구상전에서 입상해 아마추어의 열정을 자랑했다.

“다양하면서도 감각적인 판화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는 최숙경 씨. 현재 POP 판화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신문이나 잡지, 간판을 보더라도 판화작업에 어떻게 활용할까 먼저 생각이 든다”는 열혈 아마추어 작가이다.

대학시절 크로키, 데생 등을 배우기도 했던 조서정 씨는 판화강좌 2기생으로 POP 판화동호회와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1기 수료생의 작품전을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되면서 판화의 매력에 빠지게 됐다는 그는 매주 강좌와 정기모임이 열리는 화요일만큼은 빠지지 않고 시립미술관으로 발길을 옮긴다.

지난 4월 금정문화회관이 주최한 금정프리마켓에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시민들과 만나기도 했던 POP 판화동호회는 앞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판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설치해 판화의 매력을 알린다는 당찬 구상을 하고 있다. 또 올해는 동호회 이름을 건 첫 그룹전을 가질 계획이다. 판화강좌 수업 후 마련된 수료전을 통해 회원 모두가 전시경험은 있지만 POP 판화동호회의 이름을 건 전시는 처음이라 하반기에 열릴 첫 전시에 거는 기대는 크기만 하다.

“판화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김진 씨. POP 판화동호회 총무인 그는 “초대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일반 회화에서 느낄 수 없는 판화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전하겠다”며 의욕이 넘친다. <글/정복엽>



# 고음악 연주의 기수들 3

곽 근 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Nikolaus Harnoncourt)

아르농쿠르를 소개하는 인터넷은 이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감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느끼는 지휘자’. 생각은 감성적으로 하되 그것을 냉철하

게 컨트롤하는 지휘자라는 의미일 게다. 실제로 아르농쿠르는 ‘음악이란 로맨틱한 예술이다. 나아말로 진짜배기 로맨티스트이다’라고 자신의 예술적 입장을 토로한다.

확실히 아르농쿠르는 우리 시대의 주목받는 인물일 뿐 아니라 상당한 흥미를 지니고 지켜 볼만한 이색적이고 유능한 지휘자이다. 특히 바로크 음악에 관한 한 그는 아주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항상 정격음악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그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박물관 음악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바흐나 루이 14세를 방문하기 위한 안내 따위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는 단순한 복원주의자, 또는 발굴자가 아니라는 강변인 것이다. 고악기와 그 시대의 정신을 이 시대에 되살리기는 하되 그것이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현대적) 재해석의 창조행위라는 주장인 것이다. 아르농쿠르의 음악을 이해하는 귀중한 잣대가 되는 사항이다.

아르농쿠르는 베를린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국적은 오스트리아이다. 양친이 모두 귀족 혈통이다. 부친은 벨기에 남부 아르

농쿠르 마을의 백작 가문 출신이고, 모친은 합스부르크家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명문가 출신이다. 1929년 12월 6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초등교육은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에서 받고 대학은 빈(Wien)국립 아카데미로 갔다. 전공은 첼로였고, 부전공으로 첼로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고악기 비올라 다 감바(viola da gamba)를 독학으로 습득했다.

1952년, 빈 교향악단에 첼로주자로 입단한 아르농쿠르는 본격적인 오케스트라 생활을 하는 한편, 비올라 다 감바 독주자로서의 활동에도 진력하였다. 1953년엔 <빈 콘센투스 무지쿠스(Concentus Musicus Wien)>라는 본격적인 고악기 앙상블을 결성하고 1957년에 데뷔 연주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주활동에 돌입했다. 1960년대에는 해외공연도 활발해지고 빈 콘센투스 무지쿠스와 아르농쿠르의 이름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다.

1970년, 음반 역사상 처음으로 바흐의 <마태 수난곡>을 오리지널 악기로 녹음하였고, 1971년엔 역시 고악기로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울리시스의 귀환>을 상연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잇달아서 바흐의 <미사 나단조>와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헨델의 많은 작품들을 발표한다.

특히 1966년, 영국에서 있었던 헨델의 <메시아> 연주회는 이들이 거둔 가장 빛나는 성공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시절만 해도 생소하기 만했던 오리지널 악기를 사용한 이들의 연주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농쿠르에 대한 인지도와 고악기에 대한 그의 해박한 연구성과에 대한 평판은 매우 호의적인 것으로 형성되어 갔다. 아르농쿠르는 <에라스무스상> <지멘스 음악상> <네게리 메달> <막스 음악상>등 수많은 음악상을 받았다.



### 2008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미국 스퀼크 오페라 BIPAF : The Opera

**대극장** | 5월 3일 토요일 오후 7:00  
5월 4일 일요일 오후 6:00

2008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을 축하하는 미국 스퀼크 오페라단의 개막 특별공연 'BIPAF : The Opera'.

부산국제연극제를 위해 특별 기획된 'BIPAF :

The opera'는 부산의 옛 모습과 현재의 모습, 지난 부산국제연극제의 기록, 부산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그린 상상의 지도, 도시사람들의 인터뷰 등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공동체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이미 20개가 넘는 세계 도시에서 공연된 이 작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현란한 영상과 현대적 음악으로 표현한 음악극이다.

'Squonk(스퀼크)'는 어떠한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닌 단순히 재미있는 소리를 나타내는 일종의 여흥구라고 전해진다.

- 예술감독/스티브 오헌(Steve O'Hearn), 재키 뎀시(Jackie Dempsey)
- 출연/재키 뎀시(Jackie Dempsey), 스티브 오헌(Steve O'Hearn), 오펜 에이어즈(Autumn Ayers), 케빈 코니키(Kevin Kornicki), 데이빗 윌리스(David Wallace), 네이슨 윌슨(Nathan Wilson)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



### 부산시립합창단의 7080 가요합창음악회 네번째 이야기 아직도 못 다한 우리들의 이야기

**대극장** | 5월 7일-8일 수-목요일 오후 7:30

7080 세대들에게 아련한 추억이 있는 대중가요를 수준 높은 합창음악으로 편곡, 새로운 문화 상품을 선보인 부산시립합창단의 7080 가요합창음악회 네 번째 무대 '아직도 못 다한 우리들의 이야기'.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인 김강규의 지휘 해설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해바라기, 신촌블루스, 풍선 등의 멤버로 70년대 포크음악을 이끈 이정선이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 프로그램

- 2007 세번째 이야기 화상/산골 소년의 사랑이야기, 행복한 사람, 광야에서  
꿈 가득한 노래/네 꿈을 펼쳐라(양희은), 솔개(이태원), 아에이오우(예민)  
정태춘 노래 돌/촛불, 시인의 마을  
아버이 날에 드리는 노래 꾸러미/부모, 애비, 아빠의 청춘, 당신만 곁에 있어 준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송창식 모음/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사랑이야, 그대 있음에 등 수록
- 지휘 · 해설/김강규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수석지휘자)
  - 협연/이정선(포크가수), 김진훈(드럼), 김정태(포크기타)
  - 편곡/하순봉, 최석태, 윤지영, 백현주

- 관람료 1층 20,000원 · 2층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최재호, 진형준의 2인음악회 -령과 령의 만남-

5월 1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대금주자 최재호, 피리주자 진형준이 정악 본령과 해령과 해령을 현대음악 어법으로 풀어낸 창작음악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 본령(本令)(대금/최재호, 피리/진형준, 해금/윤해승)  
해령(解令) 1장~16장(대금 최재호, 피리/진형준)  
승-굿(Good)-위촉초연(작곡/백규진, 대금/최재호, 피리/진형준, 가야금/김혜련)  
· 해설/조태원  
관람료 초대  
문 의 진형준(011-9523-8518)

### 2008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연극제 대상수상작 극단 맥 '환생신화'

5월 5일 월요일 오후 6:00, 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2008 부산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극단 맥의 축하공연. 아버지 제삿날 재산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환생하여 형제들을 심판하는 웃기고 슬픈 이야기이다.

- 작, 연출/이정남
- 출연/심미란, 전지숙, 허정현, 권은하, 정종호, 김창주
-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

### MAGNUS DREAM 한국오페라 60주년기념 매그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돈지오반니 & 카르멘'

5월 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한국오페라 60주년을 기념하는 매그너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오페라 갈라콘서트.

다면성을 가진 복잡한 구시대 귀족계급의 마지막 탕아 '돈 지오반니'와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며 총동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의 삶을 그린 두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 예술총감독, 지휘/최성근 · 연출/김성경
- 어린이합창지도/이경선 · 피아노/이현주

#### 출연

- 유영성, 강희영, 이창룡, 양승엽, 장원상, 이은미, 김행재, 고영호, 윤지영, 박수정, 김유진, 장은영, 김태형  
· 특별출연/김옥련, 고충진  
관람료 R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문 의 매그너스 드림(016-760-1233)

### 러시아 극단 코믹 트러스트 카바레 쇼 나프탈렌

5월 8일-10일 목-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1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5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한 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엄격한 지휘자로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곽승의 객원지휘로 마련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1회 정기연주회.

재미 피아니스트 제이슨 곽이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슈만의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 가단

조 작품 54를 들려준다. 제이슨 곽은 애틀랜타 스타인웨이 소사이어티 콩쿠르 1위, 한독 피아노 콩쿠르 1위, 미국 남부 피아노 콩쿠르 1위, 애틀랜타 음악 클럽 콩쿠르 1위, 조지아 주 음악교사 협회 콩쿠르 1위, 록키 리지 협주곡 콩쿠르 1위, 피터 페트로프 국제 콩쿠르 3위 등에 입상한 바 있다.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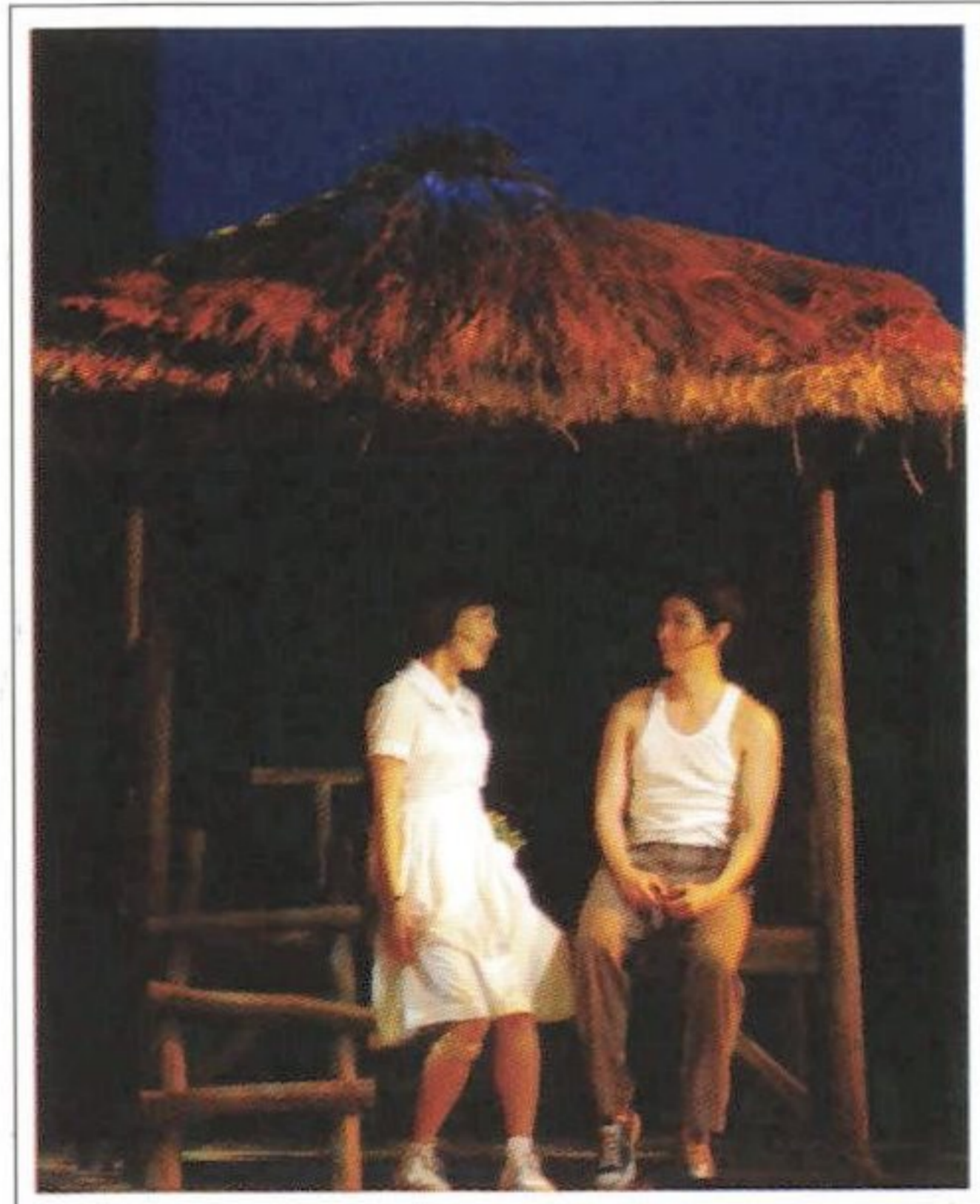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슈만/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54

드보르작/교향곡 제9번 마단조 작품95 '신세계로부터'

- 지휘/곽 승
- 협연/제이슨 곽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2008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한국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뮤지컬 '소나기'

**대극장** 5월 14일-15일 수-목요일 오후 7:30

서울시뮤지컬단이 대한민국 대표 문학으로 손색이 없는 소설 '소나기'를 4년여의 준비 작업을 거쳐 뮤지컬로 제작,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으로 선보인다.

뮤지컬 '소나기'는 원작에 담긴 소년과 소녀의 맑은 사랑 이야기를 소년의 입을 통해 들려준다. 원작 소나기의 빼어난 감성을 여과 없이 전달하기 위해 꾸며진 이번 무대연출은 실제 무대 위

로 쏟아지는 소나기와 판타지적 영상 효과, 그리고 수목화적 색채의 조명 디자인이 핵심이다. 관객은 무대 전체로 쏟아지는 소나기와 무대 위에 형성되는 시냇물, 그리고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노래하는 배우들에게서 원작 단편소설 소나기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인기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뮤지컬 '소나기' 주인공 소년 역 캐스팅되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 원작/황순원 · 예술총감독, 연출/유희성
- 극본/최명숙 · 작곡/오현석 · 작사/정영
- 음악감독/엄기영
- 출연/빅뱅(승리), 고준식, 이연경, 유미, 박봉진, 이경준, 왕은숙, 권명현, 주성중, 문정윤, 신대성 외

- 관람료 1층 25,000원 · 2층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

무언극, 춤, 광대극, 인형극, 묘사, 패러디 그리고 블랙 유머를 전형적인 러시아의 감성으로 표현하는 러시아 코미디극의 선두주자 극단 코믹 트러스트의 카바레 쇼 나프탈렌은 빠른 무대 변화, 캐릭터와 가면의 변화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감독/바딤 피송(Vadim Fisson)

관람료 일반 15,000원(19세 이상 관람)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



## 부산국제연극제 명창 박성희의 소리마당 수궁가, 흥보가

5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13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2003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극인 전통공연예술 판소리 한마당.

고 김소희 선생 <춘향가>와 <심청가>를, 전정민 선생 <흥보가>와 <수궁가>를 사사 받은 박성희는 1998년 판소리 <흥보가> 완창무대, 2001년에는 <수궁가>를 완창무대를 가졌다.

- 5월 10일 소리마당 1 - 수궁가
- 5월 13일 소리마당 2 - 흥보가

· 교수/신문범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

## 2008 부산국제연극제 트러스트 무용단 한국 올리브 나무\_all live

5월 13일-14일 화-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이 2003년부터 선보여온 심계를 주제로 한 세 번째 작품이자 그 완결편인 '올리브나무\_all live'. '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 ~하지 말라'의 계명이 전하는 오늘날 진실에 관한 고민과 우리의 존재에 관한 성찰과 자유를 위한 노래이다.

- 안무/김형희 · 연출/김윤규
- 음악감독/Yohm Project(연리목, 움브레)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 사무국(625-2711)

##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Soprano 전미나의 '행복한 엄마의 노래'

5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이화여자대학교 종교음악과(성악전공)와 미국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Master of Church Music) 수석 졸업하고 미국 Sarang Children's & Youth Choir 창단 및 지휘자를 역임한 소프라노 전미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와 미국의 근대음악'

대극장 | 5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현대음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음악과 미국음악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9회 정기연주회.

표제음악의 완성자인 베를리오즈 '헝가리 행진곡'과 가장 미국적인 작품을 만든 코플랜드의 '빌리 더 키드', 프랑스 음악 특유의 우아함을 잘 보여준 토마시의 트롬본 협주곡, 심포닉 재즈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들려준다.

대만순회연주회에서 협연자로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김용배와 부산시립교향악단 트롬본 수석 정선화가 협연한다.

### 프로그램

베를리오즈/헝가리 행진곡(라코치 행진곡)

토마시/트롬본 협주곡

코플랜드/빌리 더 키드 등

· 지휘/이동신(수석지휘자)

· 협연/김용배(피아노,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정선화(트롬본,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8)



## 부산시립무용단은 제 58회 정기공연 이쁜이 시집가는 날 춤극 '천생연분'

대극장 | 5월 22일-23일 목-금요일 오후 7:30

2007년 선보인 '이쁜이 시집가는 날'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천생연분은 '맹진사댁 경사'로 잘 알려진 희곡을 화려한 춤극으로 각색, 한국 전통 혼례 풍습 속에 녹아 있는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다양한 인물들의 아름답고 신명난 춤들을 감상할 수 있다.

무용수들의 몸짓과 장면의 이미지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위해 원작의 2막 5장을 3막 8장으로 나누었다.

· 원작/오영진 · 각색/하현관 · 연출/오정국

· 안무 및 구성/홍기태(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프로그램

프롤로그 - 빙탄상애(氷炭相愛)

제1막/태평성대(太平聖代)-함진애비, 희비(喜悲), 섬섬옥수

제2막/연목구어(緣木求魚)-소문, 덧옷, 청맹과니

제3막/백년가약(百年佳約)-초례, 초야

에필로그 - 청사초롱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58가족 한정 '가족할인 이벤트 3+1')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가 들려주는 '행복한 엄마의 노래'.

두 아들 입양으로 네 아이의 엄마가 된 소프라노 전미나가 치료가 필요한 입양대 상아동들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래한다.

· 피아노/강은진 · 기타/고충진

· 오보에/류재환

· 특별출연/글로리아 챔버 콰이어(지휘/김소천, 계은송 어린이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 의 대한사회복지회 부산지부(621-7003, 757-7400)

## 부산 하모니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 내겐 합창이 필요해요

5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상임지휘자 김강규와 함께 아름다운 합창의 묘미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하모니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 외에도 부산합창제, 부산국제합창제, MBC 목요

음악회 등에서 다양한 장르의 합창음악을 발표해왔다.

### 프로그램

계절이 있는 합창/보리밭, 눈, 강 건너 봄 오듯이

르네상스 다성합창/의인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를 찬양하라, 알렐루야

삶과 음악 그리고 합창/내겐 음악이 필요해요, 만일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인생의 영광스러운 음악 등 수곡

· 지휘/김강규

· 반주 및 편곡/윤지영

· 메조소프라노/차윤희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하모니합창단(610-1304)

## 제 3회 오페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최은주, 김은희 피아노 듀오연주회

5월 17일 토요일 오후 7:30 중극장

프랑스 에펠노르말 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최은주, 독일 에센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김은희가 들려주는 피아노 듀오연주회.

### 프로그램

코츠보스키/스페인무곡 작품 12

뿔랑/카프리치오, 소나타

거쉬윈/쿠바서곡 등

관람료 초대

문 의 최은주(011-592-5697), 김은희(019-9269-5567)



### Variety 클로드 볼링 Septet+재즈보컬 내한공연

대극장 | 5월 24일 토요일 오후 7:00

팝, 재즈 그리고 클래식 스타일을 혼합한 독창적인 작품을 통해 널리 사랑받고 있는 크로스오버 뮤직의 살아 있는 거장 클로드 볼링(Claude Bolling) 부산연주회.

프랑스의 그레미라고 할 수 있는 그랑프리 디스크를 여섯 차례 수상하고 미국의 그레미상에도 수 차례 노미

네이트되었던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 편곡자, 피아니스트인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은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 530주 동안 오르는 전설을 남기며 크로스 오버 음악사에 그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클로드 볼링은 장고 라인하르트, 스테판 그라펠리와 같은 프랑스 음악계의 전설적인 뮤지션과 동일 선상에 위치에 있으며, 첼로의 전설 요요마, 플루트의 장 피에르 랑팔 등과의 협연을 통해 프랑스 음악과 그의 크로스 오버 음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 출연/Claude Bolling(피아노), Pierre Maingourd(베이스), Vincent Cordelette(드럼), Michel Delakian(트럼펫), Pierre Schirrer(색소폰), Marc Thomas(보컬)

#### 프로그램

1부/Suite For Flute, Suite For Cello

2부/다양한 재즈 스탠더드 곡들(보컬) - Various Big Band Jazz Standards

■ 관람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 A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주)영브라더스(467-5747)



### 한낮의 유U; 콘서트 24th 꽃과 전원 [Flowers and Pastorale]

대극장 | 5월 27일 화요일 오전 11:00

아름다운 꽃과 전원의 싱그러움을 음악으로 전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24번째 무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인 부산대학교 박성완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꽃의 아름다움을 담은 남국의 장미, 꽃시계, 꽃의 왈츠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J. 스트라우스/왈츠 '남국의 장미'

J. 비 제/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세귀달라를 춤추며'

J. 프랑세/꽃시계-까마중꽃(03시), 자스민(12시), 가지꽃(17시), 끈끈이꽃(21시)

베토벤/교향곡 제6번 바장조 작품 '전원'

김동진/목련화

차이코프스키/'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 등 수곡

· 지휘/박성완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임병원)

· 특별출연/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전병호, 오보이스트 김화실

■ 관람료 균일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 오현정 바이올린 독주회

5월 18일 일요일 오후 7:30 중극장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Konzerdiplom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바이올리니스트 오현정 독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바이올린소나타 제 8번 사장조

바르톡/루마니아 민속춤 곡

프랑크/바이올린소나타 가장조 등

관람료 초대

문의 오현정(010-4126-2128)

###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 창단연주회

5월 18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아름다운 클라리넷 선율이 좋아 지난해 10월부터 틈틈이 수련해온 8명의 의사들이 부산 닥터스 클라리넷 앙상블을 결성,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창단 연주회.

관람료 초대

문의 김태훈(017-543-0883)

### 한국 피아노 학회 영남지부 제 8회 정기연주회

5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신라대학교 교환 교수로 활동을 시작한 피아니스트 에브게니 이소토브를 비롯하여 피아니스트 신문정, 김정숙, 박현정, 송학, 김현주, 이태희가 멘델스존, 아렌스키, 리스트 등의 솔로, 듀오 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의 이태희(010-5299-7446)

### 오현정 피아노 독주회-From the BAROQUE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시적인 아름다움과 인상적인 테크닉, 청중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갖춘 연주자' '탄탄한 테크닉 위에 노래가 넘치는 아름다운 연주'로 호평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오현정 독주회.

오현정은 Frinna Awerbuch 국제 콩쿠르, Kingsville 국제 콩쿠르, Academie Internationale du Moulin D'Ande 국제콩쿠르, Stravinsky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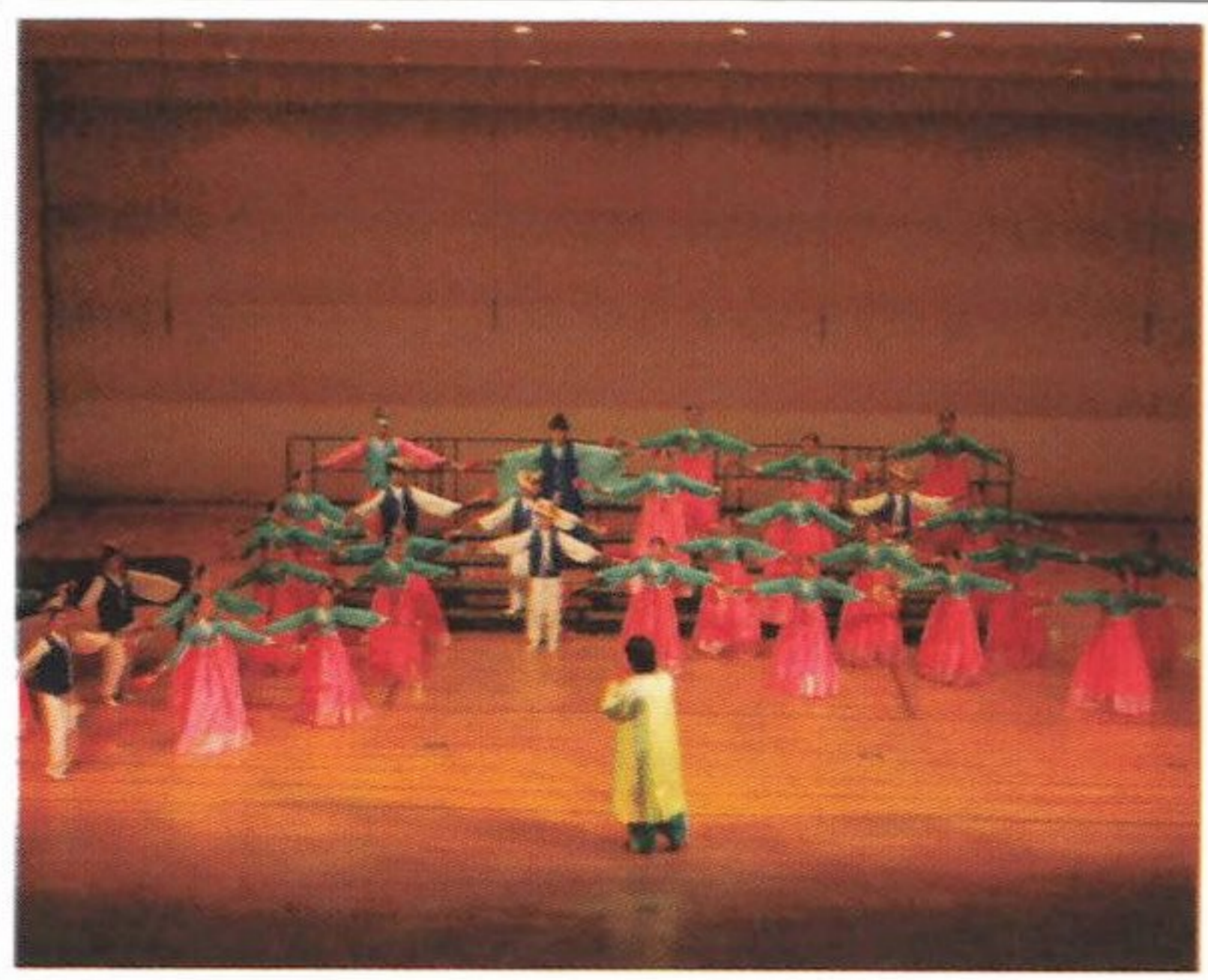
스카를라티/3개의 소나타

라벨/쿠프랭의 무덤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예은예술기획(635-6904)



###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및 창단 35주년 기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Friendly Concert'

**대극장** | 5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2008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 3대 지휘자 전상철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Friendly Concert'. 상임지휘자 임명운이 지휘하는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박훈이 지휘하는 부산진구소년

소녀합창단이 함께 하는 이번 무대는 신임지휘자의 취임 연주회를 겸한 무대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독일연주 위촉곡인 최석태의 '축제미사'를 초연한다. '축제미사'는 가톨릭 교회의 6개의 미사 통상문 중 4개를 발췌하여 작곡하였다. 가사는 라틴어이지만 음악적인 내용은 우리 정서를 많이 가미시켜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지는 새로움을 추구한 작품이다.

#### 프로그램

최석태/축제 미사-Kyrie, Gloria, Sanctus, Agnus Dei(2008년 위촉 작품)

동요모음/윤극영 동요 연곡-반달, 나란히, 고기잡이, 꼬부랑 할머니, 어린이날 노래

뉴질랜드 민요/파마이 또레오 아로하

한국민요/새야새야 파랑새야, 춤추는 춘향이, 경북궁타령, 추천가 등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자(합창)
- 특별출연/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임명운), 부산진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박훈)

■ 관람료 균일 2,000원

■ 문 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6131),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갤러리 예가 개관 5주년 기념 정경연 초대전

5월 1일(목)~5월 13일(화) 중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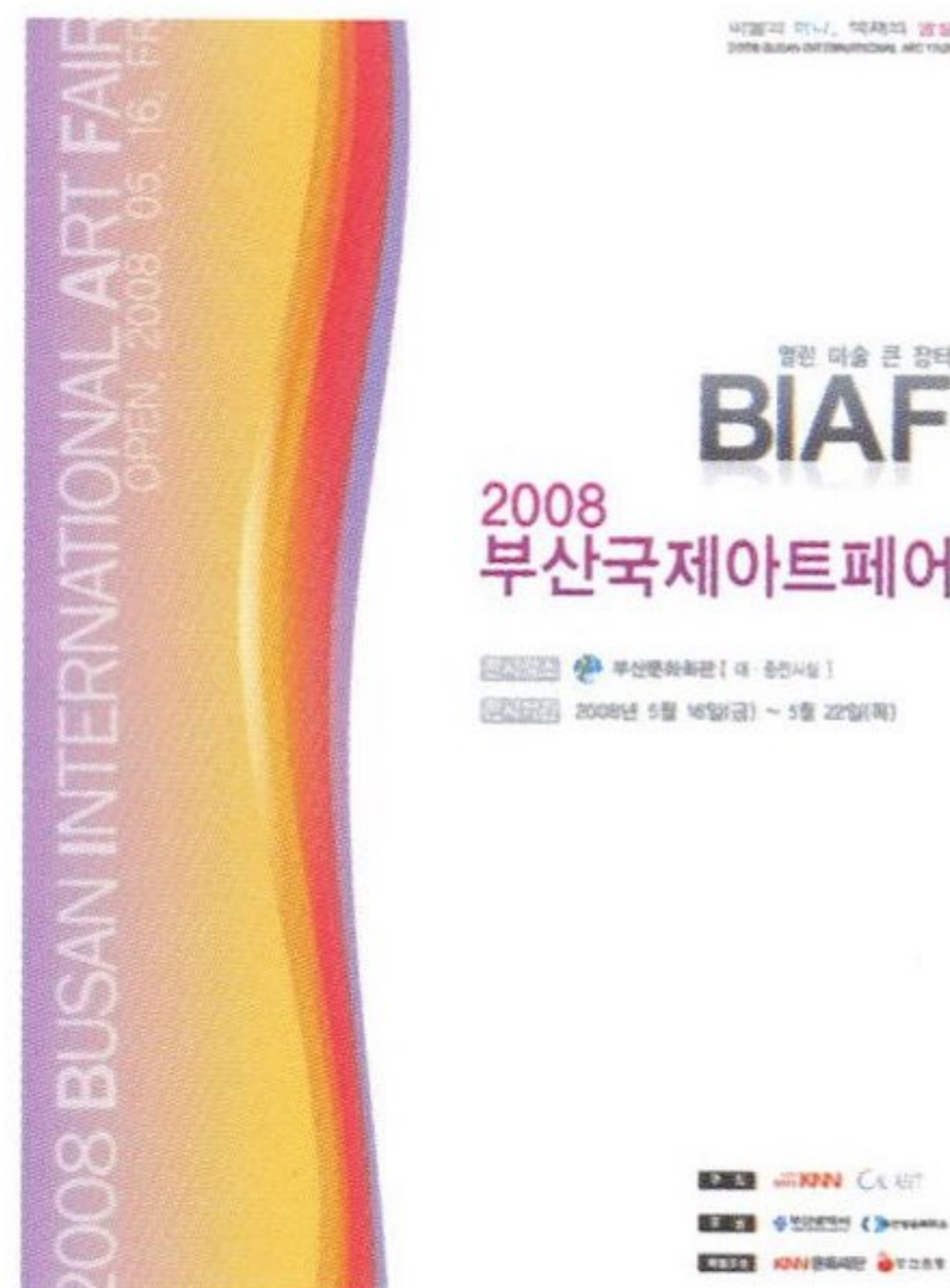
섬유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홍익대학교 정경연 교수의 부산전시회.

바그다드 세계미술제 동상(1986), 미술기자상(1988), 제1회 석주 미술상(1989), 오사카 트리엔날레 특별상(1990) 등을 수상한 바 있는 정경연은 장갑시리즈로 섬유가 아닌 테라코타, 브론즈, 세라믹 등의 다양한 시도와 독자적인 표현형태들로 전체 미술계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문 의 갤러리에가(624-0933)

### 2008 부산국제아트페어(BIAF) '미술의 바다 색채의 물결'

5월 16일(금) ~ 5월 22일(목) 대,중 전시실



불필요한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고 작가와 구매자가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열린 미술 큰 장터'인 부산국제아트페어는 2008년 전시회.

올해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작가들은 물론 미국과 남미, 남아시아를 아울러 총 4백여명의 작가, 천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 의 케이아트(803-8830, 011-882-8150)

### 신희원, 박영신 피아노 2중주 리사이틀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계명대학교 피아노과 교수 신희원과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신이 들려주는 피아노 2중주 리사이틀.

####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521

그리그/페르퀀트 모음곡 제 1번 등

관람료 초대

문 의 박영신(011-562-2694)

### 제3회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 정기연주회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와 두산건설이 함께하는 iTrio 연주회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지난 해 6월, 오케스트라 합주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각자의 개성과 수준 높은 하모니를 들려주기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악장을 비롯 현악 파트 수석 단원들로 결성된 부산챔버뮤직소사이어티(BCMS) 제3회 정기연주회.

####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대공'

헨델/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

멘델스존/피아노트리오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 의 양욱진(010-9441-4325)

### 동그라미 노래모임 제 14회 정기공연

5월 24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하비비, 도시의 그림자, 작품 하나 등 부산출신의 대학 가요제 스타들로 결성된 동그라미 노래모임이 들려주는 제 14회 정기공연.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김병준(831-4600, 011-562-4305)

### 피아니스트 황성훈 독주회

5월 25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현재 독일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부산출신의 피아니스트 황성훈 부산 독주회.

황성훈은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 에피탈 국제콩쿠르, 포르토 국제콩쿠르, 타이완 국제콩쿠르 등 세계적 권위의 31개의 국제콩쿠르에 입상해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 프로그램

리스트/발라드 제 2번

쇼스타코비치/6 Preludes from op.34 제 2번, 6번, 12번, 13번 등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 석 20,000원

문 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독주회

5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신상준 독주회. 2007년에는 현악4중주 유니스 콰르텟을 창단하여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비탈리/사콘느  
프로코피에프/소나타 NO.2 등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최연경(010-4565-7115)

### 부산예술고등학교 무용 정기공연

5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예고 무용전공자들이 그동안의 수업을 되돌아보며 현대무용, 발레, 전통 등 장르별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현대무용 '순례' (총 안무 및 연출/성은지)  
발레 '해적(LE CORSAIRE)' 중에서(재안무/이화성)  
한국무용 '하늘구멍' (안무/이은영)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515-8106)

### 바리톤 공정배 독창회

5월 26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캐나다로 활동무대를 옮겨 현재 북미주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바리톤 공정배가 오랜만에 들려주는 부산무대.

**프로그램**

하순봉/바람이 불어  
토스티/작은 입술  
이상근/눈이 내리네  
공정배/낙동강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016-368-2445)

### 부산예술고등학교 제 21회 정기연주회

5월 27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예술고등학교에서 음악도의 꿈을 키우고 있는 재학생들이 그동안의 음악수업을 되돌아보는 무대.

- 성악 합창 지휘/윤정윤
- 관현악 합주 지휘/오창록

**관람료 초대**

문의 부산예술고등학교(514-1232)

### 꿈유빌로 정기연주회

5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이창룡 교수의 제자들로 결성된 꿈유빌로는 종교적인 부분을 넘어서 불교 음악과 가톨릭 음악의 다양함과 폴리포니 음악의 진수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이영조/소요유(逍遙遊), 탄금대(彈琴臺), 경(經)  
그레고리오 성가/그레고리오 성가  
폴리포니/오, 예수 그리스도님, 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등

**관람료 초대**

문의 클래식아트매니저(011-862-4031)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2회 정기연주회

#### 부산MBC 창사 49주년 기념 혁명의 그랜드 심포니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바이올리니스트 마라 비젠갈리에프가 협연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2회 정기연주회.

마라 비젠갈리에프는 '놀라운 바이올린 연주가'(더 타임스), '벨기에의 천재적 바이올리니스트 외젠 이자이의 뒤를 잇는 연주가'(아메리칸 음악저널 팡파레지) 등의 찬사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

하차투리안/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쇼스타코비치/교향곡 제11번 사단조 작품103 '1905년'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제 1085회 MBC 목요일음악회 가정의 달 특집 부산 소년소녀 현악합주단 연주회

5월 29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부산의 초, 중등생들로 결성된 부산소년소녀현악합주단은 그동안 자체 정기 연주 및 일본 아마구치 크레모나 합주단과의 교류연주회,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프로그램**

미국 동요/ '메리는 작은 양을 가졌네' 주제와 변주곡  
파헬렐/캐논 등 수곡

- 지휘 및 음악감독/김지세 · 피아노/차현지
- 바이올린/함동휘, 조효주 · 플룻/장정린, 이소리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지세(010-6505-4030)

###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음악회

5월 3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중극장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들과 성악가들이 함께 준비한 사랑의 무대로 뮤지컬, 동요, 우리가곡, 오페라리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어린이발레단의 무용으로 꾸며진다.

**제1부 오후 3:00**

- 출연/불교어린이 합창단, CJ케이블 어린이합창단  
소프라노 박수정, 소프라노 박수진, 메조소프라노 박소년, 테너 구원모(반주/박성아)

**제2부 오후 7:00**

- 출연/김희선 성악아카데미, 맘 합창단, 김경태, 윤아름  
(반주/박민경)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손욱(011-9520-4649)

### 2008 김정순 발레 공연 발레를 사랑한 인고의 50년

6월 2일 월요일 오후 5:00, 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무용협회 회장으로 있는 신라대학교 김정순 교수의 발레인생 50년을 기념하는 무대.

2일 : 보은의 꽃 전 3장(출연/박승희, 강병찬 외 40명)

3일 : 스승을 빛낸 제자들(출연/남영, 이유하, 조재욱 최윤정, 김진권, 최희윤, 이원국, 이지영 외)

문의 김정순(017-572-9991)

**대한민국 기업사랑 음악회**  
2008. 6. 17(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연주\_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_ KNN 협찬\_ 후원\_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  
김지연(바이올린) 김덕수(트럼펫연인) 지휘\_ 오충근

### 시민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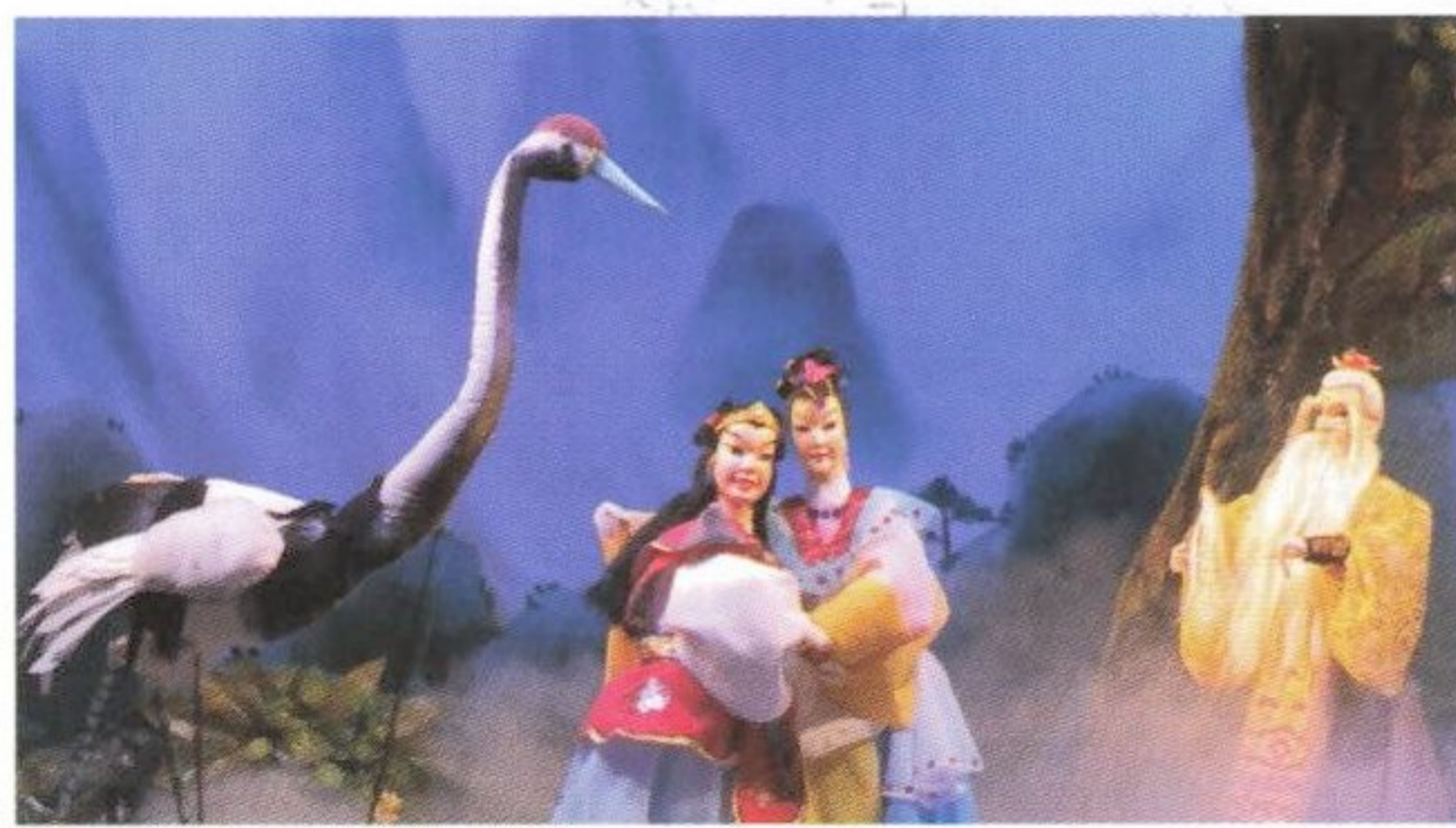
####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

5월 4일-5일 일-월요일 오후 2:00, 4:00  
대극장

꿈을 찾는 고양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세계적인 뮤지컬 '캣츠'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어린이 캣츠'.

관람료 S석 5,000원 · A석 1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CJ케이블넷(622-5744)



#### 부산국제연극제-손인형극 옛날 옛적에...

5월 4일 일요일 오후 3:00,  
5월 5일 월요일 오후 3:00, 6:00 소극장

중국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국의 전통 손인형극 '부 다이 시'를 만날 수 있는 무대.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부산국제연극제

#### M3\_A No Space Odyssey

5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좁은 공간에서 일상적 삶을 펼쳐야 하는 큐빅맨의 생생한 몸짓이 비디오 영상, 음향효과와 어우러져 웃음을 제공하는 모노드라마.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부산국제연극제 카르마

5월 10일 토요일 오후 7:30  
11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신들의 세계인 천상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음모의 대서사가 역동적인 춤과 군무로 선보인다.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부산국제연극제-경극 신화와 영웅

5월 11일 일요일 오후 3:00, 12일 월요일 오후 6:00, 13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패왕별희'의 화려함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경극 '신화와 영웅'.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아름다운가게 씨앗 기금마련을 위한 안치환&나팔꽃 나눔콘서트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00 대극장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그 판매

수익금으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가게가 마련한 나눔콘서트.

가수 안치환과 시인, 음악인 등이 모여 만든 시노래 모임인 '나팔꽃'이 출연해 훈훈한 사랑의 하모니를 들려준다.

관람료 초대

문의 아름다운가게(1577-1113)

#### 무용과 상송

5월 31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사)한국사회복지연구소를 돕기 위해 마련하는 자선 무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김현자 교수의 창작춤과 상송 가수 현주영 공연, 부산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관람료 일반 15,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사)한국사회복지연구소 이말선(610-1329)

### 금정문화회관

#### 캐릭터뮤지컬 으랏차차 짠돌이네

5월 2일 금요일 오전 10:30, 11:30, 3일-4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소공연장

기상천외 짠돌이가족의 근검절약 대작전이 신나는 춤과 노래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의 공연국단기획 친구친구(805-1355)

#### 노래하는 아프리카 어린이 초청공연 African Children Sing!

5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아프리카 합창음악의 보급과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노래하는 아프리카 어린이 초청공연.

· 특별출연/오카사랑앙상블, 기장군청소년리코더합주단

관람료 문의

문의 한국합창조직위원회(622-0534)

#### 부산국악작곡가회 제 7회 연주회

5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우리의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창작 국악곡을 작곡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의 7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시인들의 詩를 주제로 한 성악곡과

국제수준의 연주홀 녹음홀 글로빌아트홀에서 개최하는

### 제5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

607-06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글로벌아트홀(TEL. 051-505-5995)  
http://club.cyworld.com/glovil | E-mail : glovil@paran.com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이 감동하는 글로벌아트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 참가대상\_초·중·고·대·일반 ▶ 접수기간\_4월 14일~5월 2일

시 상 : 상금 총 300만원,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10만원  
(각 부문 1등, 2등, 3등, 장려상, 예총회장상, 음협회장상, 부산대예술대학장상)

5월 3일 작곡, 실내악 5월 5일 국악 5월 10일 피아노 5월 12일 현악, 관악  
5월 17일 실용음악(보컬, 재즈피아노, 기타, 미디) 5월 24일 성악 5월 31일 우수입상자연주회(CD제작)

▶ 과제곡 : 자유곡 ▶ 접수 : http://club.cyworld.com/glovil에서 다운로드 후 E-Mail로 접수 또는 방문 접수

기악곡, 합창곡을 들려준다.

· 작곡/황의중, 조익래, 윤소희, 이은경, 김월란, 박선영, 김수정, 백규진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대학교 국악과(510-1739)

### 바리톤 고정현 독창회

5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동덕대학교와 이태리 빠르마 성악, 오페라과정, 오르페오아카데미 등을 졸업하고 현재 해피양상블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리톤 고정현 독창회.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고정현(010-8885-3378)

###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 7일 제 2회 M&M Bellissimi Amici

어버이날을 맞아 성악전공자들이 들려주는 사랑과 감사의 음악회.

■ 14일 가족과 함께하는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신라대학교와 효성여대 대학원, 이태리 밀라노 음악원, 토스카니니 음악원을 졸업한 소프라노 박현정 독창회.

■ 21일 교사오카리나 바운스양상블 창단연주회

· 특별출연/문대진(테너, 고충진(클래식 기타)

■ 28일 제 36회 독우회 정기연주회 '재부 작곡가의 밤'

1994년 독일에서 유학한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독우회의 36번째 정기연주회.

· 연주/고태욱, 박정순, 김남숙, 이현주, 김정강, 신현희, 김영지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 부산국제연극제 - 뮤지컬 친구

5월 11일-12일 일-월요일 오후 6:00 소공연장

1970년~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구수한 사투리와 7080 음악이 함께하는 신나는 락큰롤 뮤지컬.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이은미 라이브 콘서트

5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8:00 대공연장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ST엔터테인먼트(1600-1716)

### 제 7회 아카데미 콘서트

5월 17일 토요일 오후 5:00 소공연장

아지무스 오페라단이 우수 신인들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마련하는 아카데미 콘서트.

관람료 초대

문 의 손욱(011-9520-4649)

### 부산신포니에타 러시아 Soloistis Volgograd 친선연주회

5월 19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부산신포니에타와 러시아 Soloistis Volgograd가 함께하는 친선무대.

· 지휘/노태철

· 협연/B.엘레나(소프라노), 김재원(바이올린), B.Milyawskiy(클라리넷)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 의 김영희(011-9519-0448)



### 오페레타 박쥐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23일 금요일 오후 7:30, 24일 토요일 오후 3:00, 7:30 대공연장

왈츠의 고향 비엔나의 송년파티에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슈트라우스의 대표적인 코믹오페레타 '박쥐' 부산초연무대.

· 연주/부산메트로폴리탄교향악단(지휘/박중희)

관람료 VIP석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문 의 손욱(011-9520-4649)

### 버블버블&매직(변검)쇼

5월 24일-25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소공연장

색색의 비누방울이 시선을 사로잡는 버블쇼와 신기한 중국 상하이 변검쇼가 한 무대에서 펼쳐진다.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 의 즐겨찾기(1544-1718)

### Tris 트리오가 전하는 Three Colors

5월 28일 수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바르톡, 드뷔시, 쇼스타코비치 등 현대작곡가들의 작품으로 마련되는 Tris 트리오 연주회.

· 연주/장형준, 이지선(피아노), 이은옥, 고진영(바이올린), 송언경(첼로), 선우지현(클라리넷)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정혜주 첼로 리사이틀

5월 30일 금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정혜주 첼로 리사이틀.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연주회

6월 2일 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b>책사랑 53년 대형서점</b> 지하1~5층 엘리베이터운영 <b>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b>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들고, 한·영지명 표시중 색상분변 선물용최고 <b>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b>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b>새 소식!</b>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우 <b>한국발명특허 획득</b>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장지도(값 5,000원)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b>문우당서점</b>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아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 <b>각종 공연에 매처</b> CGV10% 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	---	---

서정미와 변화무쌍함을 거침없이 표현해내는 첼리스트 양옥진과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인 피아니스트 정성흠이 들려주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연주회.

관람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 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어버이날의 부모송(父母頌)

5월 8일 목요일 오전 11:00 대공연장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어버이의 넓고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웰빙콘서트.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겸 수석 지휘자)
- 협연/박수관(동부민요 명창), 김태곤(대중가수), 박성희, 전학수, 이주현, 신문범, 최오성(이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입장료 초대(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  
문 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정명화, 김선옥 듀오콘서트

5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뉴욕타임즈로부터 '멋과 재능, 그리고 기교의 연주'라는 평가를 받은 첼리스트 정명화와 '리즈콩쿠르 한국인 최초우승, 클라라 하스킬콩쿠르 최연소 우승' 등 화제를 뿌린 피아니스트 김선옥이 함께하는 듀오무대.

관람료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문 의 공연기획 예성(582-2026)

작곡동인 잉태 작곡발표회 5월의 향기

5월 31일 토요일 오후 4:00 소공연장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곡가들의 모임인 잉태의 작곡발표회.

통영시 자생원 장애인들이 창작한 시에 곡을 붙인 창작곡들을 발표한다.

관람료 초대

문 의 송필석(010-9906-3321)

## 해운대문화회관

국악체험 놀이극 얼씨구나! 용궁가자

5월 4일-5일 일-월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전래동화 '별주부전'을 각색한 작품으로, 판소리와 민요, 탈춤, 꼭두각시인형극 등을 통해 우리의 전통음악을 배울 수 있는 국악체험 놀이극.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문 의 DUBU기획(02-2654-6854)

김성현 바이올린 독주회

5월 16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경희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비엔나 슈벨트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브릴란트양상블, 한국바로크양상블 대표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성현이 르네상스에서부터 바로크,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김성현(011-595-6060)

## 동래문화회관

가족뮤지컬 백설공주와 색깔요정

5월 2일(금)-4일(일), 23일(금)-24일(토) 평일 오전 10:20, 11:30, 주말 오후 2:00, 4:00

동화 '백설공주'를 가족뮤지컬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문 의 인형극단 가치(625-2117)

가족뮤지컬 걸리버 여행기

5월 29일-30일 목-금요일 오전 10:30, 11:30, 12:30

거인국, 소인국, 말의 나라 등 환상 속 세계를 여행하는 걸리버의 신나는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단체 4,000원)

문 의 극단 길(017-683-4083)

## KBS 부산홀

가족뮤지컬 '피터팬'

5월 3일-5일 토-월요일 오후 2:30, 6:00

환상적인 무대와 라스베가스 기술팀이 선보이는 역동적인 플라잉 액션 등이 선보이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A석 35,000원 · B석 25,000원(부산시립예  
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폴 포츠 부산공연

5월 7일 수요일 오후 8:00

휴대폰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오페라가수로 거듭난 강동의 주인공 폴 포츠 부산공연.

관람료 VIP 132,000원 · R석 110,000원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문 의 토시드(1588-8477)

인순이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5월 10일 토요일 오후 7:00

관람료 R석 88,000원 ·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B석 55,000원(부산시립예  
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주)AN시티(1644-4484)

**YAMAHA**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을 함께 만듭니다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기악**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 갈갈이패밀리와 함께하는 개그콘서트 vs 개그야

5월 31일 토요일 오후 4:00, 7:30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A석 33,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PS엔터테인먼트(1600-1602)

## 경성대학교

### 부산국제연극제-마임극 토끼와 나폴레옹

5월 4일-5일 일-월요일 오후 6:00 예노소극장

군대 요리사가 잔인한 독재자로 변해가는 모습을 놀라운 연기와 환상적인 미술로 담아낸 마임리스트 놀라레이의 마임극.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부산국제연극제 피터와 늑대

5월 5일 월요일 오후 3:00, 6:00

6일 화요일 오전 10:30, 오후 7:30 콘서트홀

생상스의 관현악모음곡과 프로코피에프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동화를 그림자극으로 제작한 두 작품이 선보인다.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부산국제연극제-그림자 인형극 까르노 루차

5월 5일 월요일 오후 3:00, 6:00

6일 화요일 오후 7:30, 7일 수요일 오후 7:30

멀티미디어 소극장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네시아 전통 그림자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관람 무료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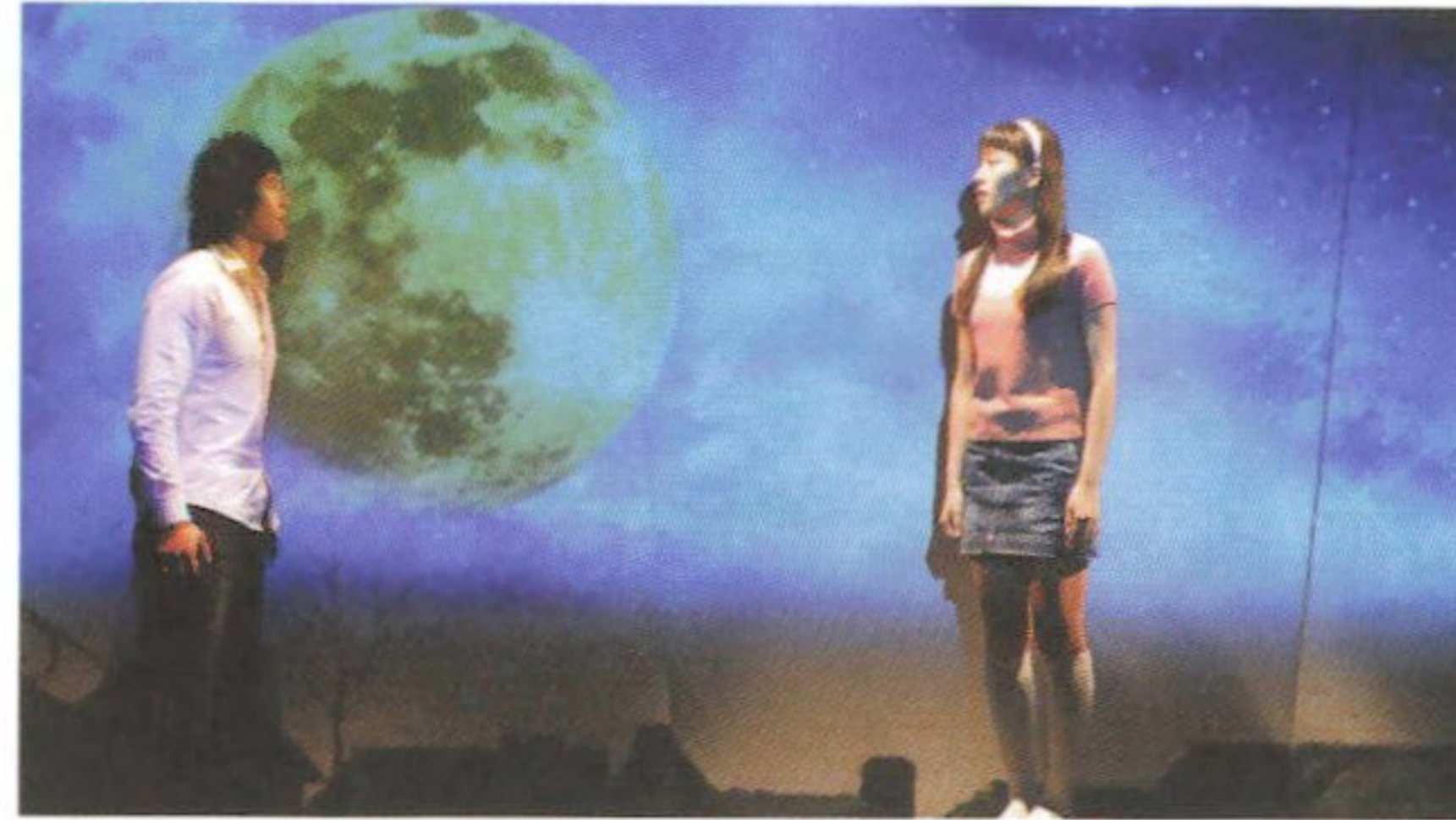
### 부산국제연극제 선녀와 나무꾼

5월 8일-9일 목-금요일 오후 7:30, 10일 토요일 오후 4:30, 11일 일요일 오후 3:00 예노소극장

창녀가 된 선녀의 슬픈 사랑이야기가 우리의 음악과 리듬으로 펼쳐지는 '선녀와 나무꾼'.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부산국제연극제 위대한 캣츠비

5월 8일(목)-14일(수)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6:00 콘서트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강도하의 만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으로 청춘의 어긋난 사랑과 방황을 담고 있다.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부산국제연극제 동화의 관

5월 13일-14일 화-수요일 오후 7:30

예노소극장

타국에서 죽어가는 한 여인의 한많은 삶을 그린 작품.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국제연극제(625-2711)

## 가톨릭센터

### PBC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6일 프리마돈나를 꿈꾸며

■13일 이미희, 김정대 부부음악회

■20일 소프라노 장은영 독창회

■27일 앙센느 플루트앙상블 연주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 글로벌아트홀

### 부산음악협회 제 35회 전국학생음악콩쿨 우수자 연주회

5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음악협회(634-1295)

### 류인영, 허단비 2인 피아노 리사이틀

5월 22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콩쿠르, 부산음고콩쿠르에서 1등 입상한 류인영과 허단비의 2인 음악회.

관람료 초대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김민아 첼로 독주회

5월 2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으로, 현재 부산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아 첼로 독주회.

관람료 초대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 제 5회 글로벌 전국음악콩쿠르 우수입상자 연주회

5월 31일 토요일 오후 5:00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추천업소

안녕하세요. 모짜르트입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가족 · 연인 · 친구 · 각종 모임에 찾아주세요.  
고객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생과일주스+쿠키 ₩5,000원
- ★생돈까스 ₩6,000원(디저트 포함)
- ★팔빙수+쿠키 ₩5,000원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 · 생일잔치 · 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인~100인)

### 부산의 소극장



#### 부산국제연극제-뮤지컬 Chat on love

4월 29일(화)-5월 12일(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 공휴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 작/이채경 · 연출/남미정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족뮤지컬 청개구리 이야기

5월 1일(목)-12일(월) 평일 오전 10:00  
주말 오후 12:00, 2:00 공간소극장

뭉든지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재미있는 춤  
과 노래로 제작한 창작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 의 오즈컴(817-1248)

#### 극단 자갈치 2008 우수마당극 선작공연 1 봄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5월 2일(금)-10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3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신명천지

역사마저 침묵한 가슴아픈 정신대 할머니의 이야기를  
현재적 시점으로 되살린 창작마당극.

· 작, 연출/공동구성, 전성호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2,000원

문 의 소극장 신명천지(515-7314)

#### 2008 JUMP 부산

5월 3일(토)-오픈런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IBK 점프부산전용극장

해운대 그랜드호텔에 전용극장이 들어서면서 공연기  
간을 정하지 않는 오픈런 공연으로 펼쳐지는 화제의 년  
버벌 퍼포먼스 '점프'.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문 의 (주)아트포(744-4885)

#### 부산국제연극제-한진수 모노드라마 12개의 성모상

5월 3일(토)-11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 공휴일 오후 6:00 액터스소극장

기러기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는 창작 모노드라마.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 가족뮤지컬 손오공과 도로시의 환상모험

5월 3일-5일 토-월요일 오후 2:00, 4:00  
동아대학교 석당홀

손오공의 신나는 모험이 탭댄스, 마술,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신체놀이로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 의 오즈컴(817-1248)



####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5월 13일(화)-6월 8일(일) 평일 오후 8:00, 주  
말 · 공휴일 오후 5:00(월요일, 6/6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교사인 엘레나와 학생들의 대립을 통해 자본주의 시  
대에 파생되는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 제기를 치밀  
한 극적 구성으로 보여주는 작품

· 연출/김세환 · 기획/황미애

· 출연/이정비, 조정우, 차승호, 김병철, 강현주

관람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문 의 열린소극장(555-5025)

### 시네마테크부산

#### 프리츠 랑 회고전

5월 9일(금)-25일(일) 상영시간 미정

표현주의적인 앵글과 조명이 어우러진 독특한 영상  
스타일을 창조한 대표적인 독일 표현주의 작가 프리츠  
랑 감독의 대표작 18편이 상영된다.

관람료 균일 4,000원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프랑스 영화제

5월 27일(화)-6월 1일(일) 상영시간 미정

프랑스 예술영화 최근작 6편을 상영하는 프랑스영화제.

관람료 균일 4,000원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 행사

#### 2008 조선통신사 축제

5월 2일(금)-4일(일)

영가대, 용두산공원, 광복로 일대

조선통신사의 출발지이자 도착지인 부산에서 펼쳐지  
는 한·일 문화교류축전.

문 의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816-3371~2)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아트컴과 함께...

☎ 633-2655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 2008 부산국제모터쇼

5월 3일(토)~5월 12일(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완성차와 이륜차, 캠핑카 및 부품, 용품 등 총 10개국 153개사가 참가하는 2008 부산국제모터쇼.  
관람료 일반 6,000원 · 청소년 3,000원(예매시 1,000원 할인)

문 의 부산국제모터쇼 사무국(740-7468)

### 제 43회 동래전통민속예술축제

5월 4일 일요일 오전 11:00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놀이마당

중요무형문화재 제 18호 '동래야류'를 비롯 동래학춤, 동래지신밧기, 동래고무, 동래한량춤 등 부산무형문화재를 소개하는 동래전통민속예술축제.

관람료 무료

문 의(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555-0092)

### 2008 어린이날 박기훈의 매직콘서트

5월 4일 일요일 오후 3:00, 7:00, 5일 월요일 오후 3:00, 7:00 롯데호텔부산 롯데아트홀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문 의 MK엔터테인먼트(626-7400)

### 감사의 마음 심수봉 디너콘서트

5월 8일 목요일 오후 7:00

부산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관람료 VIP 176,000원 · R석 154,000원(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1만원 할인)

문 의 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 제 72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5월 1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관람료 무료

문 의 김예강(019-516-1867)

### 제 22회 부산청소년예술제

5월 17일(토)~5월 30일(금)

시민회관 대 · 소극장, 전시실

■ 행사일정

- 17일(토) 15:00 소극장 개막식 및 축하공연
- 17일(토)~21일(수) 전시실 학생사진공모전 전시회

- 18일(일) 16:00 대극장 청소년창작무용공연
  - 19일(월)~23일(금), 26일(월)~30일(금) 소극장 부산청소년연극제
  - 21일(수) 19:00 대극장 부산청소년관악페스티벌
  - 23일(금)~27일(화) 전시실 학생그림공모전 전시회
  - 24일(토) 16:30 소극장 청소년 가요 · 힙합댄스 경연대회
  - 25일(일) 09:00 소극장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 문 의 부산예총(631-1377)

### 2008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5월 21일(수)~25일(일) 경성대학교, CGV 대연, 동명대학교, 광안리해수욕장

1980년 '한국단편영화제'로 시작, 그동안 국내외 우수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및 아시아 미래 영화의 주역을 배출해온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2008년 행사. 18개국 101편의 상영작이 소개된다.

문 의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742-9600, www.basff.org)

## 전시



### 김명식 'East Side Story&Pop Flower'

4월 1일(화)~5월 31일(토)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예비뉴엘 라운지

문 의 가양갤러리(752-7830)

### 우리바다의 고래들

4월 15일(화)~5월 31일(토) 수산과학관 전시실

문 의 수산과학관(720-3061~5)

### POPEYE展

4월 19일(토)~5월 17일(토) 아트갤러리 U

문 의 아트갤러리 U(623-1584)

### 프랑스 작가 초청전 '신기한 책'

4월 25일(금)~5월 16일(금) 경성대학교 제2미술관

문 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 영광문화예술원 첫 번째 기획사진전 흙의 노래

4월 26일(월)~5월 25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 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 도예전 '마음을 담는 소리'

4월 28일(월)~5월 11일(일) 부산아트갤러리

류기정, 문남주, 이종익, 하영주 등 도예가 4인의 개성과 예술 혼을 담은 도예전

문 의 부산아트갤러리(516-8722)



### 김재위 작품전

5월 1일(목)~5월 7일(수)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 정우범 초대전

5월 8일(목)~5월 20일(화)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 갤러리 예가 개관 5주년 기념 정경연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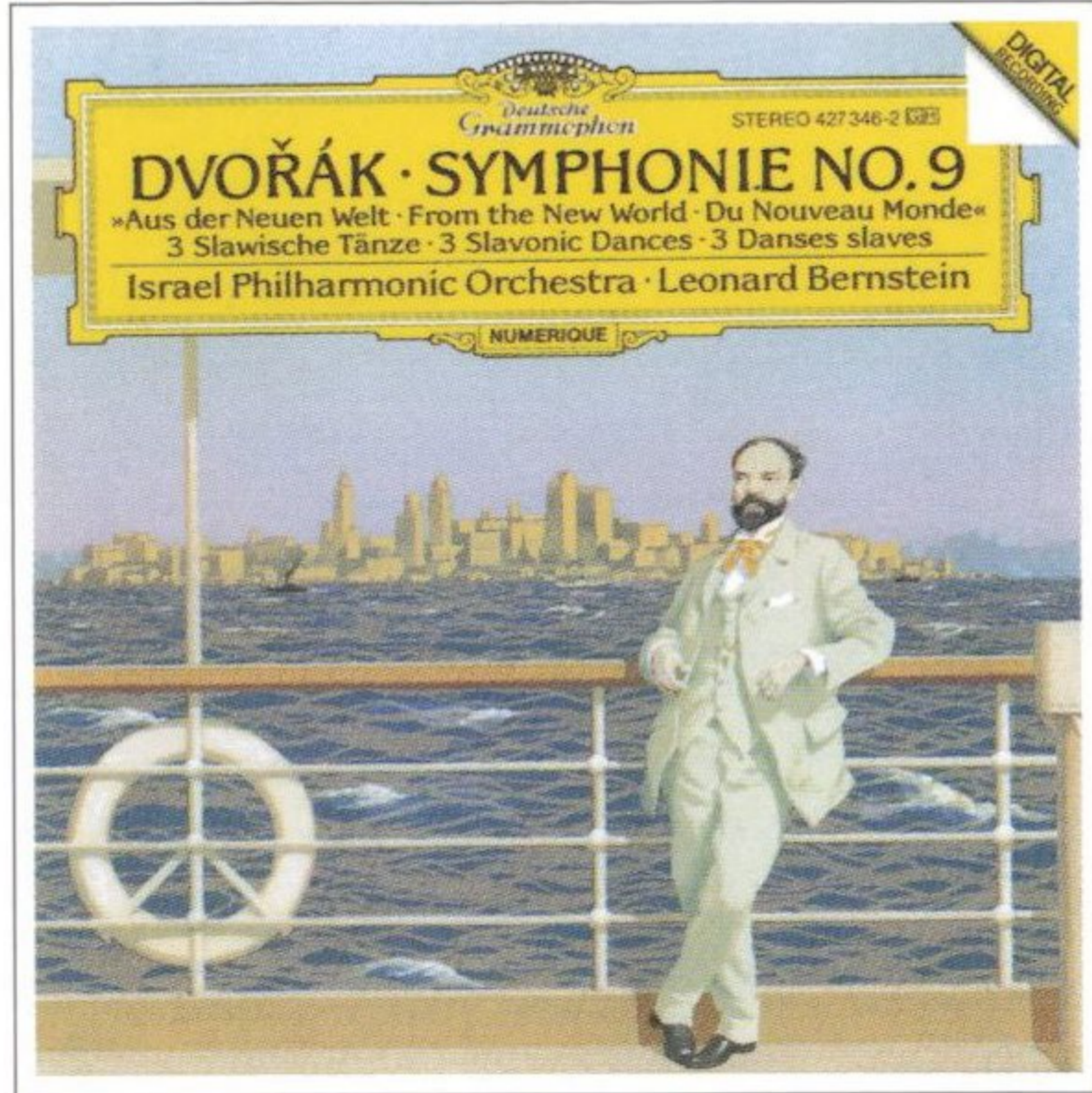
5월 16일(금)~5월 31일(토) 갤러리 예가

문 의 갤러리 예가(624-0933)

### 김순자 서양화전

5월 22일(목)~5월 28일(수) 타워갤러리

문 의 타워갤러리(464-3939)



##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작품95

· 지휘/ 레너드 번스타인

· 연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G(1986)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샹소의 스테디셀러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느림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나이와 계절을 아주 천천히 아주 경건하게 주의 깊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번스타인이 지휘한 이 음반, 특히 2악장은 느림의 미학이 무엇인가를 음악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것 같다. 이 음반을 제외한 다른 음반은 2악장이 대부분 13분을 넘기지 않는데 비해 이 음반은 무려 18분 22초라는 긴 시간을 보여준다. 그러나 단지 이런 수치만으로 음악이 설명될 수 있을까?

학창시절 '꿈속의 고향'이란 제목의 노래로 널리 불려 졌던 이 선율은 번스타인의 연주를 통해서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드보르작의 심경을 담은 망향가를 넘어 지극히 명상적이고 관조적이다. 그리고 느리게 연주되는 음악 속에서 여태껏 다른 음반에서 듣지 못했던 혹은 들었으되 스쳐 지나갔던 한음 한음이 매우 소중하고 아름답게 들린다. 마치 천천히 가는 자동차 안에서 창밖의 경치들을 느긋하고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3악장은 타 연주들에 비해 오히려 빠르게 느껴지고 4악장의 유명한 팡파레 테마는 장대하다. 매우 개성적인 해석으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해나가는 번스타인의 곡에 대한 통찰력과 무려 50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조금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력이 잘 어우러진 매력적인 음반이다.

멀리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 온 드보르작이 우수에 젖어 고향의 산천을 그리워하듯 말년의 번스타인은 극히 사색적이고 관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은 아닐까? 아무런 이유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 음반은 조금 천천히 조금 멀찍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늙은 지휘자의 메시지인 듯해서 늘 끌리는 음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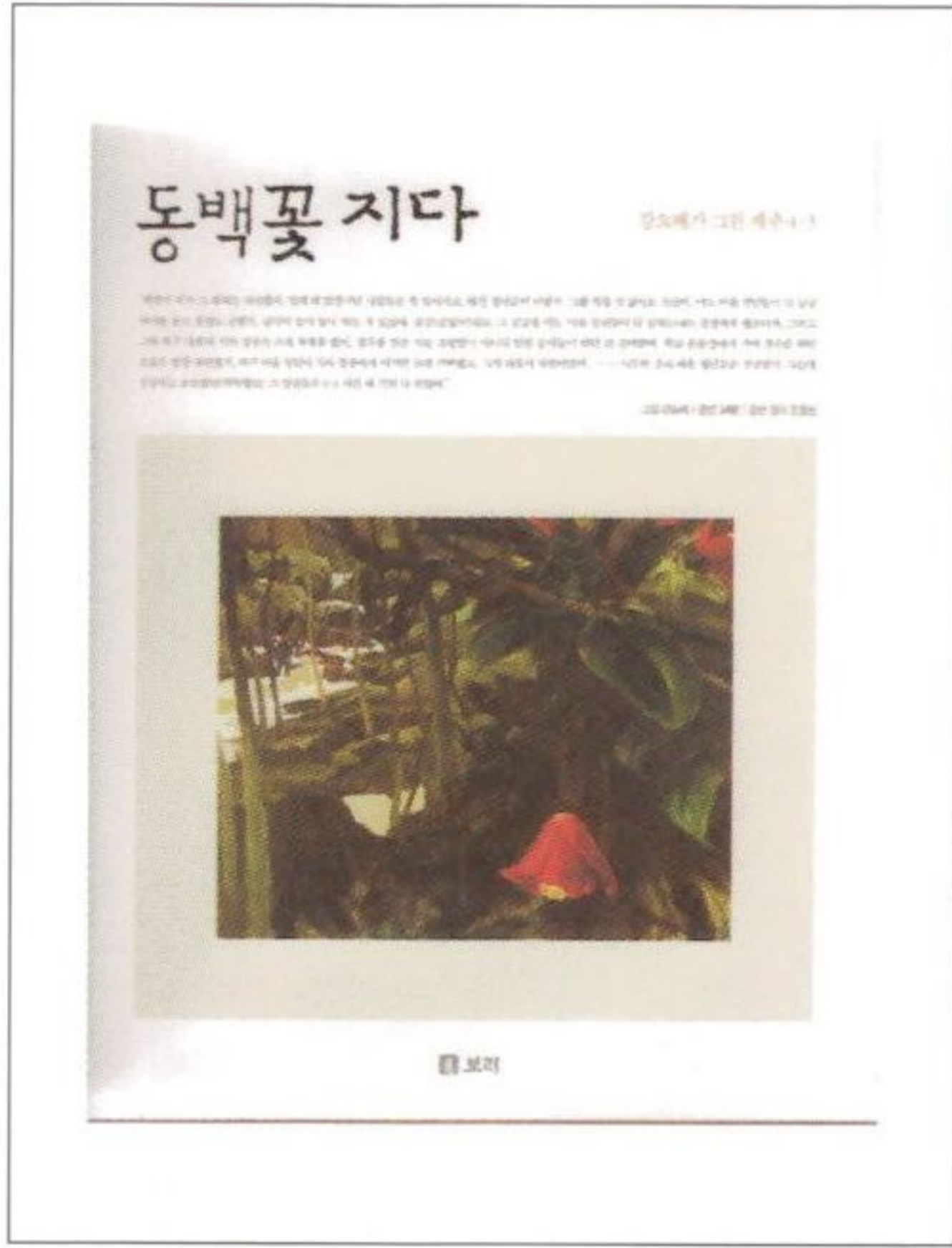
## 드보르작 현악사중주 제12번 '아메리카' 작품 96

· 연주/ 유니슨 콰르텟 EMI(2007)

고전파 시대 이후부터 현악사중주는 수많은 작곡가들에게 있어서 교향곡만큼이나 중요하고 도전적인 장르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전문 현악사중주단도 그리 많지 않는 현실에서 그것도 부산이라는 지방에서 활동하는 유니슨 콰르텟의 등장은 참으로 반갑고도 귀한 일이다. 게다가 그들의 음반까지 출판되어서 멋진 연주를 손쉽게 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는가.

교향곡 9번과 함께 드보르작의 대표적인 이 곡은 작곡자 특유의 민족적 색채와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현악사중주의 걸작이다. 유니슨 콰르텟은 앞서 나온 수많은 명음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연주력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필자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안정된 균형감이다. 각 악기들이 어떻게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는가가 실내악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데 이 음반에서 그들은 아주 정교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또한 연주자 한명 한명이 흡입을 데 없이 뛰어나고 화려한 개인기를 선명하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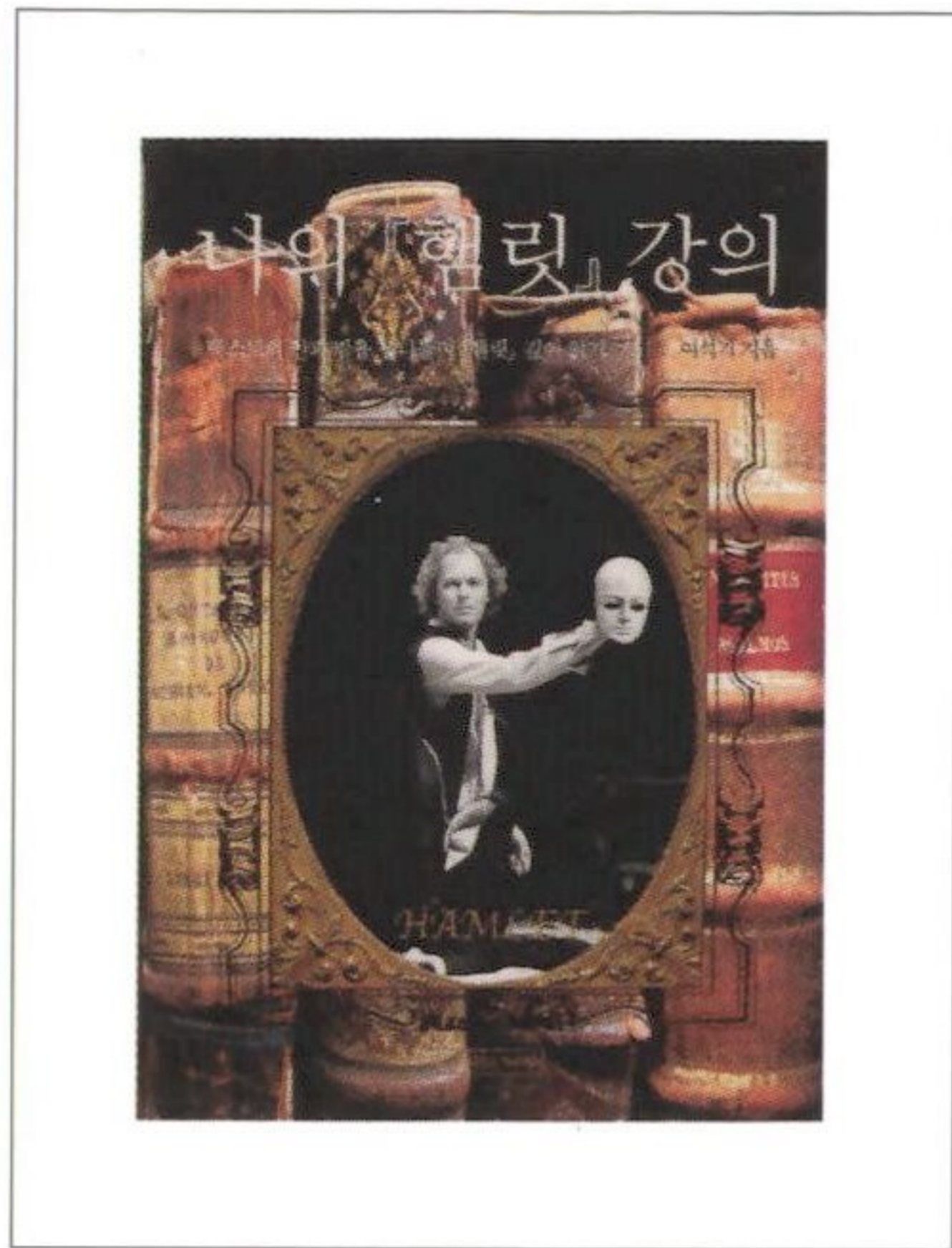
1악장에서 각 악기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주제를 옮겨 다니는 복잡한 텍스처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한다. 다이내믹의 움직임도 과다하지 않고 절제되어 부담스럽지 않다. 특히 명료한 리듬감은 이 악장의 매력을 한껏 더해준다. 2악장에서 들려주는 제1바이올린의 우수에 찬 노래는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절절하다. 단아한 제2바이올린, 매혹적인 비올라와 함께 간간이 들려오는 첼로의 깊은 음색은 이 악장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뛰어난 합주력을 요하는 3악장에서도 이들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담담하게 민속춤 풍의 개성 있는 음악을 들려준다. 4악장의 질주하는 듯한 1주제와 애뜻한 2주제의 대비도 절묘하여 악보에 적혀있는 모든 작곡가의 흔적들을 남김없이 표현한다. 커플링 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황제'도 역시 뛰어나다.



## 동백꽃 지다

· 강요배 지음 · 보리  
· 175p ·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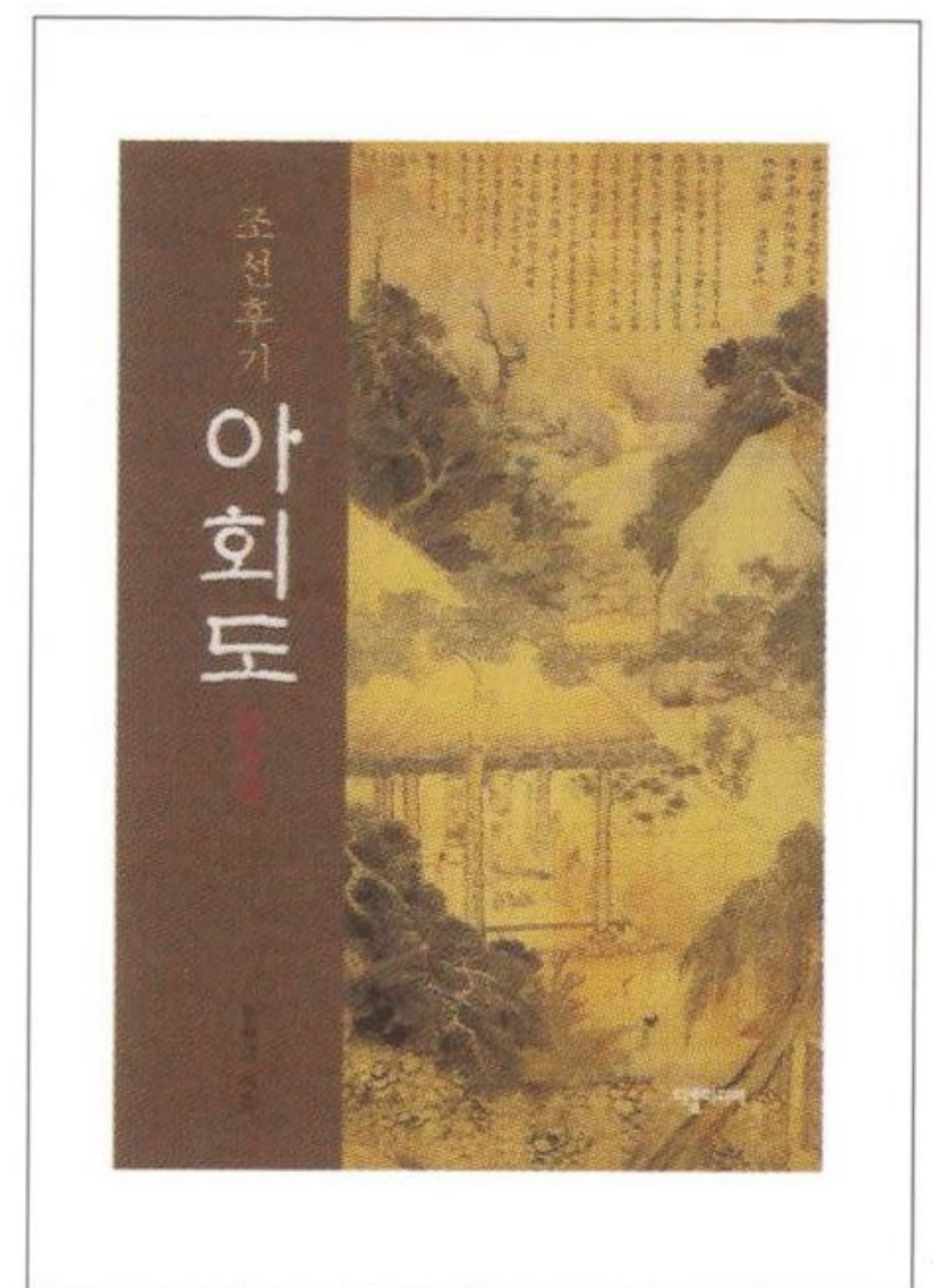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섬 제주. 격동의 한국현대사는 이 섬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다. 제주에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2년에 걸쳐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 4·3 항쟁이 일어난 것이다. 제주도에 신혼여행 온 부부나 수학여행 온 학생, 국내외 관광객 가운데 제주 4·3의 비극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강요배 화가의 그림이 그 날을 증언한다. 4·3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한 뒤, 4·3을 겪은 제주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읽어 낸 화가는 작업 기간 내내 제주 민요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제주 사람들의 한과 설움을 마음에 새기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3년 동안 제주 민중항쟁사 연작 그림을 완성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심광현 교수는 “시각적 풍부함으로 인해 강요배의 역사적 풍경화들은 웬만한 역사책의 서술을 훌쩍 뛰어넘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와 깊이를 드러내 보여 준다. 그 크고 작은 데생들과 유화들은 억압되고 잊혀져 가던 역사적 무의식을 환기시키며, 그것을 다시금 현재 시간으로 이끌어 올리고 있다”고 평했다.



## 나의 <햄릿> 강의

· 여석기 지음 · 생각의나무  
· 267p · 14,500원

30년 이상 고려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며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천착해온 원로 학자 여석기 교수가 들려주는 <햄릿> 강의. 골치아픈 문제를 만날 때 자연스럽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구나”라는 독백을 외우기도 하고, 햄릿형 인간 운운하지만 정작 <햄릿>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더구나 언어의 장벽과 시대의 간극을 넘어 의미의 심층에 다가서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셰익스피어 연구에 몰두했던 저자가 텍스트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햄릿>의 고전성을 이해하기 위한 통합적인 강의를 펼쳐 보이는 이 책을 통해 <햄릿>에 좀 더 가까이 가보자. 쓰여진 지 4세기가 지난 작품이지만 아직도 ‘지금껏 쓰인 작품 중 가장 실험적인 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햄릿>은 불멸의 극이자 마르지 않는 샘이다. <햄릿>은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창조되어 무대에 오르고 스크린에 걸린다. 무려 129편의 <햄릿> 영화가 있다. 그중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도 65편이다. 지금껏 상연된 <햄릿>과 그 파생극 그리고 검색으로 잡아낼 수 없는 작품들을 감안한다면 <햄릿>의 수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우리는 <햄릿>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 조선후기 아회도

· 송희경 지음 · 다?미디어  
· 377p · 18,000원

아회도(雅會圖)란 문인 사대부의 사적이며 자유로운 모임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여 자연을 감상하면서 차를 마시고, 시를 짓고, 바둑을 두고, 거문고를 타고, 그림을 감상하는 모임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모임을 시와 그림으로 남겼는데, 그 그림이 바로 ‘아회도’이다. 아회도에는 다양한 취미와 풍류를 즐기는 우아한 선비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정겨운 풍경에서 옛 선비들이 간직한 일상의 여유와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미술사학을 전공한 송희경 씨가 아회도를 통해 본 옛 선비들의 마음을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문인의 사적임 모임을 그린 그림을 ‘계회도’와 분리하여 최초로 ‘아회도’라 명명하였으며, 조선시대 문인들은 풍류 속에서 절제와 우아함을 간직하려는 문화예술인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아회도의 특징을 밝혀낸다. 70여 컷의 도판을 실어 당시 아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선비들 모임에 초청받은 듯, 고아한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인용 문헌들의 원문과 해석문을 부록에 실어 관련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배꽃 향기 가득한 4월 여행

# 울산고래박물관, 서생 배꽃 마을

새순이 움터나고 자연 만물이 기지개를 켜는 4월에는 어느 곳을 가든 아름다운 꽃들이 지천에 피어 있어 여행의 즐거움이 크다.

4월 정기회원 테마 여행은 각박한 세상살이에 퐁퐁 닫혔던 마음을 열고 동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고래박물관과 서생 배꽃 마을 여행길에 올랐다. 여행에 대한 설렘 때문일까. 오전 8:30 약속 시간보다 일찍 부산문화회관에 도착한 정기회원 가족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시립무용단 장래훈 수석단원이 동행한 4월 테마여행 가족은 모두 44명.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해 한 시간 남짓 달려 우리나라 산업 수도를 꿈꾸는 울산의 공단지역에 다다랐다. 공단 숲을 지나 장생포로 들어서니 드디어 바다가 보인다. 포경이 성행하던 시절, 고래잡이 전진기지로 유명했던 장생포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지만 삭막한 공단 지역에 우뚝 솟아 있는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초행자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에서 알 수 있듯 울산은 선사시대부터 고래가 뛰놀던 고래도시이다. 고래의 숨결을 따라 떠난 울산 고래박물관은 고래를 형상화한 건물 외형부터 호기심을 더해준다.

울산 고래박물관은 1986년 상업포경이 금지된 이후 사라져가는 포경유물을 수집, 전시, 보존함으로써 포경 역사를 재조명하여 선사시대부터 전해져 오던 울산의 고래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2005년 5월 문을 열었다. 고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12명의 해설사들이 고래의 생태며 세계 포경의 역사, 장생포항의 역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고래는요, 큰 놈이 30미터나 되는 지구상에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우리는 고래 고기만 생각하지만 고래는 수염에서





부터 가죽, 뼈, 기름 모두 유용하게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멸종 위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느 방문객들과 달리 고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정기회원 가족들을 만난 탓에 해설사도 신이 난다.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와야겠어요.” 고래를 유난히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오지 못해 아쉬워하는 한 회원은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더욱 열심히 고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고래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 서생 맑은내 배꽃 마을로 향했다. 맑은내 배꽃 마을은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의 체험형 여행객들이 많아지면서 서생의 특산물 배를 활용해 마을 전체가 팜스테이로 개발이 된 곳이다.

맑은내 배꽃 마을에는 봄빛이 따사롭다. 배꽃과 어우러진 썩이며 돌미나리를 캐고 4월 테마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할미 영감과장 공연이 펼쳐졌다.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장래훈 씨의 걸죽한 입담과 춤사위에 한바탕 웃음꽃을 피우며 할미 영감과장을 함께 배워 보는 시간도 가졌다.

동래야류 강습 후 시간은 썩떡 만들기과 두부 만들기 체험. 몸을 움직인 뒤라서 그런지 만들기가 바쁘게 입으로 들어간다.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썩바구니가 아쉬웠던지 두부를 만들다 말고 썩을 캐러 가는 회원들, 동심으로 돌아가 경운기 시승에 나선 회원들... 따사로운 봄별 아래서는 모두가 나이를 잊어버린다.

여행이 끝날 무렵 어느새 정이 든 정기회원 가족들은 5월 또 다른 여행을 기약하며, 아쉬운 이별을 나눈다.

〈진행 · 글/백경옥〉

※ 6월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과 **원동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테마여행 신청 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5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테마여행 당첨자

### 신규가입자

고원준(금정구 장전동)  
김미정(해운대구 좌동)  
김오남(사상구 모라1동)  
김세형(남구 대연동)  
김재민(동래구 온천 1동)  
손은경(사하구 하단동)  
손호철(동래구 온천3동)  
배은숙(수영구 남천동)  
이준엽(남구 감만동)  
최미정(남구 우암1동)

### 엽서 당첨자

김옥녀(부산진구 당감 2동)  
김최보리(남구 용호3동)  
김재경(중구 부평동4가)  
이성춘(연제구 연산5동)  
이심순(남구 대연4동)  
정규내(금정구 장전동)  
정미정(수영구 민락동)  
정창숙(연제구 연산9동)  
조종호(부산진구 전포1동)  
홍정남(연제구 연산5동)

# N | E | W | S

NEWS 1

##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협약 체결 -문화도시 부산 만들기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공동 진행-



향토은행인 부산은행이 지난 3월 24일 부산광역시와 문화도시 부산을 가꾸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은행은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부산을 가꾸기 위해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부산시민들에게 공연향유 기회를 주기위해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부산은행 장학문화재단과 부산시립예술단은 2008년 한해 동안 70회 이상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지원하고 공연에 필요한 예산 5천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5월 24일에는 부산은행 협찬으로 금정산 북문광장에서 부산의 진산 금정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산상음악회를 펼칠 예정이다.

NEWS 2

## 5월 13일 독일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08년 신임수석지휘자 전상철과 함께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이후 처음으로 세계음악의 중심인 독일의 함부르크, 베를린 한인회 초청으로 26명의 연주단이 5월 13일 독일 연주 길에 오른다.

신임수석지휘자 전상철과 함께 5월 15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광장, 베를린국회의사당, 통일전 장벽에서 갖는 야외공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독일 연주일정을 시작하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6일부터 독일 함부르크 한인회가 주최하는 '독일북부청소년 및 유럽 입양인 참가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에 참가, 현지 청소년과 유럽 입양인을 위로하고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16일 전야행사 연주를 시작으로 17일 450석 규모의 함부르크

Gesamtschule Steilshoop Music Hall 연주, 18일 함부르크시립공원 야외 공연, 1,000석 규모의 함부르크 한인 교회 연주 등 바쁜 연주 일정을 소화해 낼 예정이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부산의 우수한 청소년 문화와 한국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최석태의 '축제 미사'를 위촉,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음악성을 세계 무대에 알린다. 해외 공연을 겨냥해 작곡된 '축제미사'는 가사는 라틴어이지만 음악적인 내용은 우리 정서를 많이 가미시켜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지는 새로움을 추구했다. 이 곡 외에도 반달, 나란히, 꼬부랑 할머니, 어린이날 노래 등 동요모음곡과 새야 새야 파랑새야(채동선 편), 경복궁타령(김희조 편), 추천가(김희조 편) 등 한국 민요로 교포들의 향수를 달래줄 예정이다.



# N | E | W | S

## N|E|W|S 3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5월 3일 제 34회 보성다향제 참가 5월 23일 국립국악원 예약당 2008 Dynamic Busan!, Hi Seoul 개최



5월 시작과 함께 제 34회 전남 보성 다향제에 초청 받아 2일 보성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보성다향제 연주에 이어 5월 23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2008 Dynamic Busan!, Hi Seoul을 펼친다. Dynamic Busan!, Hi Seoul은 200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창단 20주년을 계기로 지역의 한계성을 벗어나기 위해 서울 연주를 기획, 부산을 소재로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한 창작음악으로 많은 화제를 모은 공연이다. 4회를 맞는 올해 연주는 굵고 열정 넘치면서도 섬세한 박호성 지휘자의 지휘로 중견작곡가들의 창작음악으로 서울 청중들을 매료시킬 계획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의 본능을 주제로 만든 김선제 곡 아름다운 인생을 비롯해 2007 창작위촉곡 조원행 곡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 이지영 곡 창작관현악 '공감', 백성기 곡 소리가 있는 창작 관현악 '추억의 동백섬', 2004년 창작위촉곡인 강상구 곡 해금협주곡 '세상풍경'을 들려준다. 2007년 창작 위촉곡들은 서울 초연무대이다.

## N|E|W|S 4 부산시립예술단 5월 찾아가는 공연 활발 - 시립극단 4.17~5.1 미스터 용고집, 시립무용단 천생연분 쇼케이스, 시립합창단 환우위문 공연 등 개최 -

공연장을 찾기 힘든 부산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맞춤 공연 서비스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5월에도 활발하게 펼쳐진다. 4월 부산시립극단이 부산직업능력개발센터, 운봉종합복지관, 부산소년원 등 10곳에서 마당극 버전의 '미스터 용고집' 순회공연을 펼치는데 이어 5월에는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이 부산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무대를 갖는다. 특히 찾아가는 공연은 지난 3월 24일 부산은행과 협약으로 문화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 1년간 부산 전역에서 펼쳐질 계획이다.

### 5월 주요일정

- |                                  |                                     |
|----------------------------------|-------------------------------------|
| 5. 1(목) 16:00 화명종합복지관(출연/시립극단)   | 5. 3(토) 19:00 북구 덕천초등학교(출연/시립무용단)   |
| 5. 20(화) 13:30 고신의대 강당(출연/시립합창단) | 5. 21(수) 11:00 온천교회(출연/시립합창단)       |
| 5. 23(금) 14:20 동인고등학교(출연/시립합창단)  | 5. 24(토) 11:00 금정산 산상음악회(출연/시립교향악단) |

※ 이 공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7)

## 100자 토크

### 이무지치 실내악단 부산연주회

CD에서나 듣던 이무지치 음악을 실제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특히 전부터 즐겨듣던 사계를 들을 땐, 마치 사람들이 연주하는 음악이라기보다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것처럼, 바람에 부서지는 나뭇잎소리나 파도소리처럼 완전한 자연의 소리인 듯, 마음에 그대로 스며들었다.

박미라(연제구 연산2동)

### 토요상설무대 '부산시립무용단' 공연

부채춤 공연이 시작되니 화려하고 현란한 춤사위에

함께 가신 친정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에 전 웬지 눈물이 울컥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시며 박수도 잊지 않으시는 울 엄마가 대견스럽기도 했지요. 모처럼 효도한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한소연(사하구 장림동)

### 연극 '락시터'

낙시터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재미만점 이야기들을 한가득 잡을 수 있었던 락시터~~

싱싱하고 쫄깃쫄깃하고 부산 자갈치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그 회 한접에 버금가는 대사~!!

낙시터에서의 손맛만큼이나 감칠맛나는 그런 공연이 락시터였습니다~!! 가마골에서 웃음대물 낚고 왔네요.

김보람(서구 암남동)

### 부산연극제 참가작 '앵무야앵무야 홀로앵무야'

세상에 쉬운 것은 어디에도 어떤것도 없는건가 연극이 새삼 어렵다는 느낌이였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끊어짐 없이 계속 갔었다면 훨씬 이해하기 좋았을 것 같았는데 아쉽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이야기는 나름 인생의 깊이까지도 할애를 하여야 그 감동이 배가 되지 않을까...

심종석(부산진구 전포3동)

### 서면 거리문화제 '문화 봄을 부른다'

사람 많고 복잡하기로 이름난 서면 도심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선율이 울리고 있다.

바쁘게 지나던 사람들을 끌어 앉히는 힘이 보인다.

국악관현악단 민들레의 섬세한 연주와 소리꾼의 깨끗한 소리는 높은 건물들을 타고 봄 하늘을 오른다.

조기정(금정구 남산동)



**방 법** [bsculture@naver.com](mailto: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가로

- 휴대전화 외판원을 하다가 TV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한 영국의 팝페라 가수.
- 호는 만정(晩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판소리 명창.
- 1967년 제작된 김기덕 감독의 괴수영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1999년 발표한 심형래 감독의 영화.
- 건원지간인 베로나의 명문가 몬테규가(家)와 캐폴렛가(家) 두 주인공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셰익스피어의 5막 비극.
- 영화 '가위손'에서부터 '캐리비안의 해적', '스위니 토드' 등에 출연, 개성넘치는 연기로 사랑받고 있는 배우.
- 인상파 음악을 창시한 프랑스의 작곡가. 대표작으로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등이 있다.
-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던지시 암시하는 서술.
- 여름에 붉은색, 흰색의 겹꽃이 가지 끝에 피는 석죽과의 여러해살이풀. 어버이날에 이 꽃을 가슴에 다는 풍습이 있다.
-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인 이곳에서 매년 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 여섯 개의 줄을 솔대로 뜯어 연주하는 우리나라 전통 현악기.
- 파리에서 추상조각의 거장으로 활동했던 우리나라 조각가. 고향인 마산에 그의 이름을 딴 시립미술관이 있다.
- 대사없이 표정과 몸짓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 마임.
- 아프리카 북부의 9백만 km<sup>2</sup>에 달하는 넓이를 차지하는 지구 상에서 남극 다음으로 넓은 사막.
- 제사 때 신위(神位) 앞에 놓는 밥. 혹은 궁중에서 '밥'을 이르던 말.
- 노래말을 지음.

- 세계적인 상송가수 피아프가 부른 상송의 명곡. 당시 연인이었던 권투선수인 M.세르당이 비행기사고로 죽자 그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노래라 한다.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여성. 000의 상자.

## 세로

- 종이 필름, 현상약, 인화지가 하나로 된 필름을 쓰며, 촬영 후에 카메라에서 꺼내면 자동적으로 인화되어 나온다.
- 합법 정권인 과도정부와 반군 세력의 대립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된 국가.
-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그가 남긴 바이올린곡은 모두가 어려운 기교를 결집한 것으로 형식적인 면보다 즉흥적인 화려함에 그 특색이 있다.
- 기와처럼 얇은 돌 조각으로 지붕을 올린 집. 너새집.
- 조선시대 조선에서 일본의 막부(幕府)장군에게 파견되었던 공식적인 외교사절. 최근 들어서는 한, 일 문화교류축전으로 새롭게 펼쳐지고 있다.
- 미국 일리노이주 2/3를 차지하는 미국 제 2의 경제도시. 2007년 부산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 리들리 스콧, 제임스 카메룬, 데이빗 핀처, 장 피에르 쥬네 등 세계적인 감독이 시리즈 제작에 참여하고 시고니 위버가 강인한 여전사로 등장한 영화.
- 공자를 모신 사당.
- 영국의 괴기소설가 B.스토커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 이 소설은 흡혈귀 소설의 원조가 되었다.
- 연극의 극본을 쓰는 사람.
- 밀양 영남루에는 밀양부사의 딸인 00이 유모와 달구경을 갔다가 겁탈을 당할 뻔 하자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켰던 00전설이 어려웠다.

## 지난호 정답

한	여	름	밤	의	꿈		토
석			과				민
봉	황		낮		살		상
	사	계			리	허	설
이		릭			에		무
무	크		개	나	리		대
지			선				판
치		나	문	희		화	두

## 퍼즐 당첨자 명단

### ■ 큰집 식사권

- 김정혜(동구 수정3동)
- 김현영(서구 서대신동 2가)
- 박명자(수영구 망미1동)
- 박명자(부산진구 연지동)
- 조종호(부산진구 전포2동)

### ■ 필하모니 식사권

- 김병수(남구 감만1동)
- 박상현(부산진구 부전2동)
- 이복희(부산진구 범천2동)
- 장호원(해운대구 우1동)
- 조귀남(수영구 망미동)

### ■ 가미골 소극장 초대권

- 김은심(연제구 거제1동)
- 오수정(동구 수정1동)
- 이진숙(사상구 학장동)
- 전병웅(동래구 안락동)
- 조경남(부산진구 양정1동)

###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 김경화(금정구 부곡3동)
- 김현양(동래구 안락1동)
- 신화령(사상구 학장동)
- 이탁곤(해운대구 재송1동)
- 임강현(수영구 남천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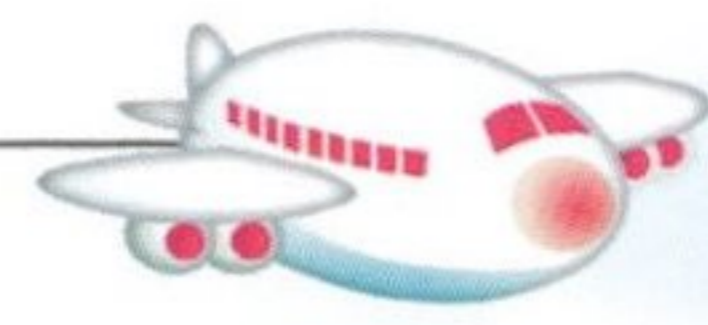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미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미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Sin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628-2592  
◆ 연주회 뒷풀이 장소로 더욱 좋습니다. (20~80명)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5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 해외여행비 3% 할인 이벤트



\* 특별할인 혜택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 하나 [www.hihana.co.kr](http://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 가정의 달 효도여행

일년에 한번~  
특별한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



카멜리아 타고~  
[설운도 콘서트] 북큐슈 온천 4일

JKP746

519,000원~



♣武陵桃源♣  
[무릉도원] 장가계/원가계 4일

CCP777

649,000원~



베트남 여행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5일

AVP710

669,000원~

## 3대 피요르드 완전일주 유럽여행

환상의 피요르드  
유람이 시작되는  
북유럽



푸른빙하와 피요르드 유람  
북유럽 4개국 + 러시아 12일

ENP380

5,190,000원~



환상의 피요르드 유람  
북유럽 4개국 + 네덜란드 꽃축제 9일

ENP381

4,590,000원~



요정의 길과 피요르드 완전 일주  
북유럽 4개국 9일

ENP382

3,890,000원~

## 여유와 풍요로움의 여행 미주여행

부산에서 떠나서  
편안하고 부담없는  
미주여행



알로하!  
하와이 5일

HUP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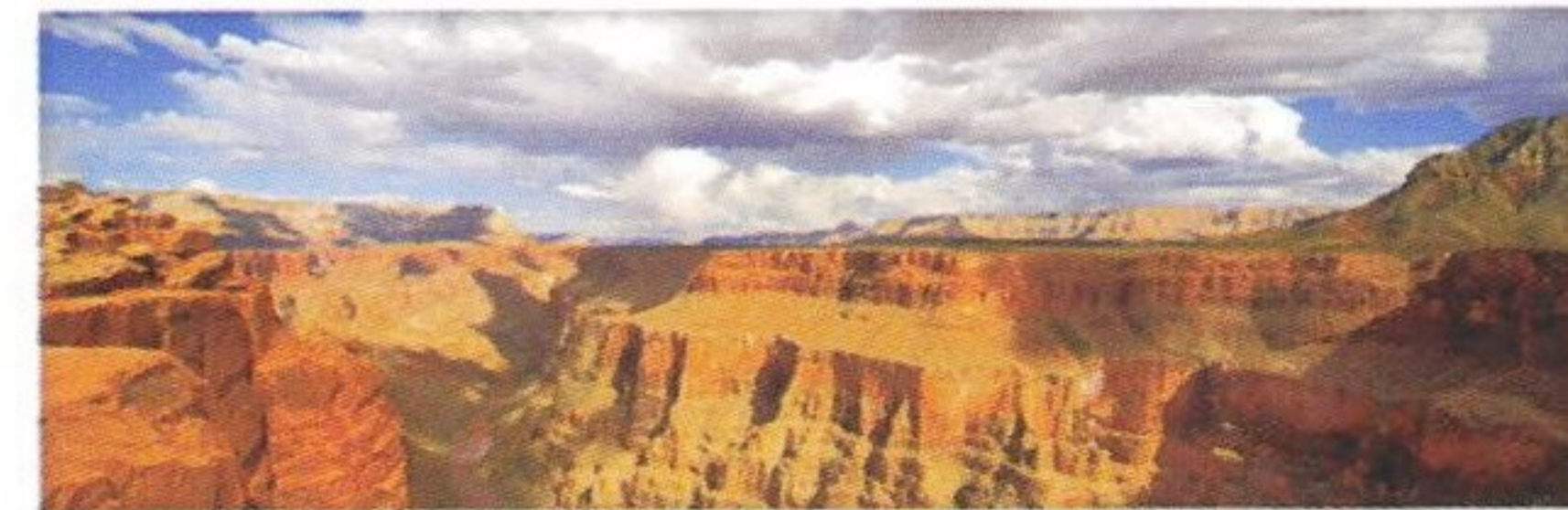
1,390,000원~



감동과 만족여행  
미서부/미동부 11박 13일

HUP705

2,390,000원~



미서부의 절경 즐기기  
미서부 일주 7일

HUP701

1,490,000원~

## 중국명산 4산4색 중국여행

중국의 광활한 대지  
오호! 장관이로구나~



[궁중요리 특식]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

CCP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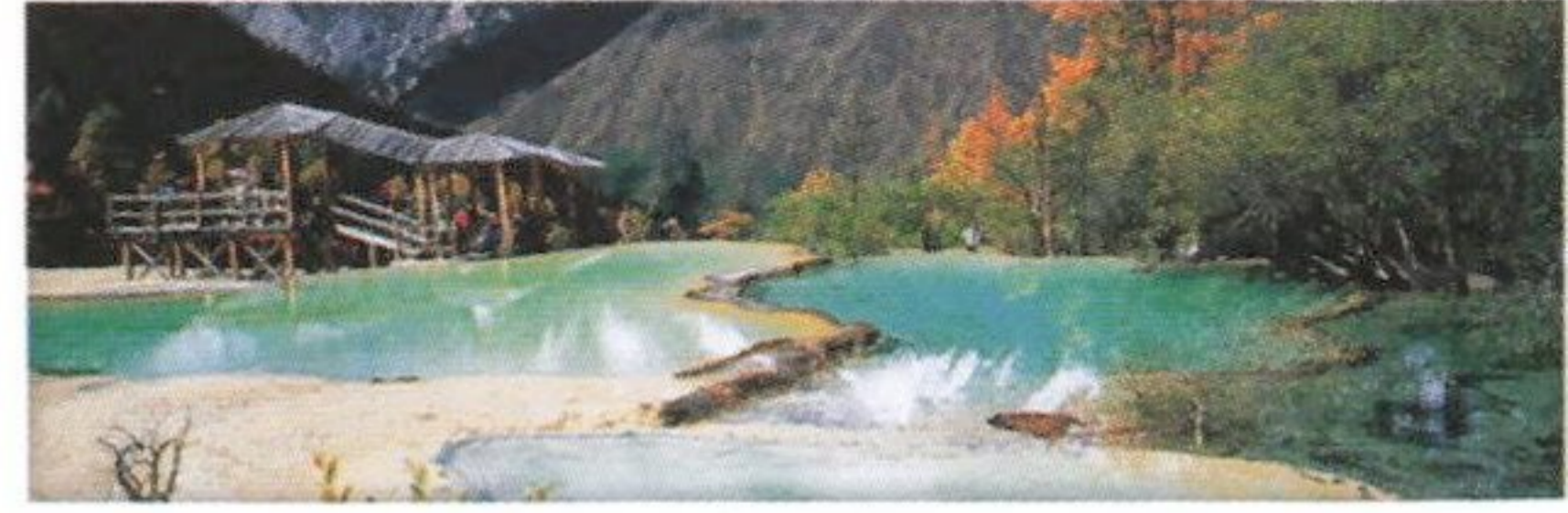
959,000원~



계림관광의 하이라이트 이강유람  
[新계림] 이강유람/양삭 + 상해 5일

CCP759

899,000원~



황룡풍경구/오채지/낙산대불  
북경/성도/구채구 5일

CNP762

1,199,000원~

#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5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서지영무용단 공연

1997년 창단한 서지영무용단은 그동안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APEC 전통문화체험마당 '부산의춤' 공연, 제15회 전국무용제 시·도의 날 초청 부산대표 공연, 낙동강변 페스티벌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 프로그램

**승무(춤/정선영)** 우리춤이 가지는 정, 중, 동 그리고 공중에 휘뿌리는 장삼자락으로 인간의 갈망을 표현하는 춤으로, 우리춤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부채춤(춤/조지영, 방수빈, 황재심, 김여진, 안민진, 이수정, 이진주)** 기하학적 무늬의 구성은 우리춤의 백미로, 외국에 우리춤을 알릴 때 선호되는 춤이다.

**진도북춤(춤/윤정미)** 쌍북채를 이용하고 북을 장구처럼 어깨에 메고 허리에 고정해 장고 장단과 같이 다양한 기법을 구사한다.

**검무(춤/방수빈, 이수정, 황재심, 이진주)** 아기자기한 춤사위와 변화무쌍한 칼놀림의 섬세함을 기초로 단아한 자태와 호탕한 변화성을 함께 보여준다.

**삼고무(춤/김여진, 안민진, 정선영)** 승무의 외복가락을 응용하여 삼면에 북을 놓고 추는 춤이다.

**길닦음춤(춤/서지영)** 일반적으로 무속에서 영혼을 천도하는 의미를 가지는 지전을 이용해 우리춤의 기본정서인 한을 승화시킨 춤이다.

**소고춤(춤/방수빈, 황재심, 이수정, 안민진, 이진주, 정선영)** 두드리는 소리와 민첩한 발동작이 조화를 이뤄 몸과 음의 리듬이 합쳐서 흥을 이루며 소고잡이의 날렵한 회전력과 신명성이 보이는 흥분시킨다.

## 5월 24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시립합창단 '5월은 동요 세상!'

### ■ 프로그램

오프닝 날아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무대 하나 엄마, 아빠의 동요세상 연곡(최석태 편곡)

무대 둘 우리들의 동요세상(최석태 편곡)/울챙이노래, 아기염소 외

무대 셋 함께 부르는 동요세상/섬집아기, 풍당풍당

무대 넷 만화영화 주제가 모음(최석태 편곡)/캔디, 마징가 Z 외

무대 다섯 5월의 노래(이영수 편곡)/어린이, 스승 그리고 어머니

· 지휘 및 해설/김강규(수석지휘자) · 피아노/이승윤, 이경미

## 5월 31일 토요일 오후 4:00 퓨전국악그룹 히나래 연주회

### ■ 프로그램

신재현/Return

최주실(편곡)/Fly me to the moon

정주애(편곡)/영화 '왕의남자' 중 '인연'

임채섭(편곡)/New 아리랑

정주애(편곡)/상젤리제, 오블라디 오블라다 등

· 출연/조은경(대금&소금), 최주실(가야금), 김소현(해금), 신재현(아쟁), 강주미(신디사이저), 최백송(노래), 차민영(피아노)

· 해설/조은경



• 관람료 : 무료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http://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 2008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 6월 13일(금) 낙동강 에코센터, 원동 매실따기 체험

인간과 사람이 함께 사는 낙동강 하구를 만들기 위해 건립된 낙동강 에코센터와 낙동강변에 위치한 원동의 명물 매실을 직접 따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원동 순매원 도착, 매실따기 체험
- ▷ 11: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3:00 순매원 출발
- ▷ 14:00 낙동강 에코 센터 탐방
- ▷ 16:00 다대포 아미산 전망대 방문
- ▷ 17:30 부산문화회관 도착



### ▶ 7월 11일(금) 조상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청도 여행

세상의 시름을 잊고 풍류를 즐기던 청도 선인들의 지혜와 여유를 만날 수 있는 청도의 고택, 시골의 후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풍각 장터나들이, 대표적인 여름과일인 상큼한 자두따기 체험으로 청도의 여름을 즐겨본다.

- ▷ 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풍각 장터 기행
- ▷ 12:00 자두 따기 체험
- ▷ 14:00 청도 고택 탐방-운강고택, 임당고택, 만화정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8:00 부산문화회관 도착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5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www.wendl-lung.co.kr

###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 Wendl & Lung



주: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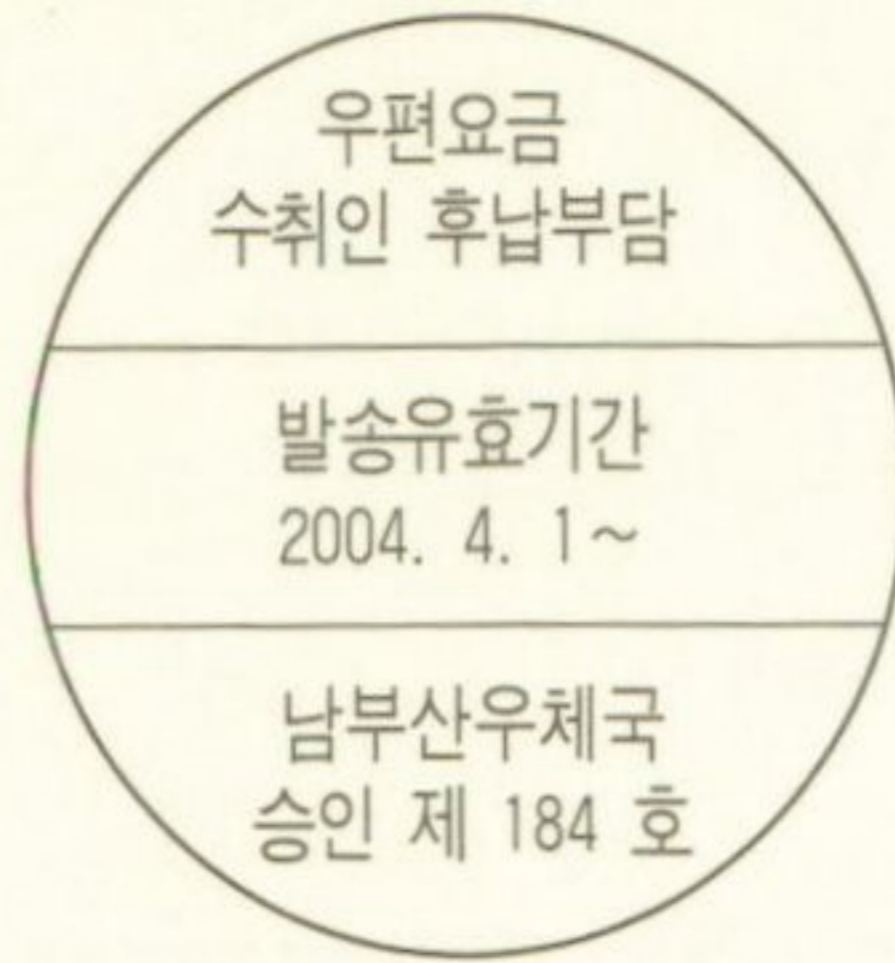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로맨틱 코메디  
Chat on Love

10% 할인



▶ 날짜: 2008. 4. 29(화)~5. 12(월)

▶ 시간: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 작/이재경 · 연출/남미정

▶ 입장권: 균일 25,000원

▶ 장소: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051-245-0042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2008. 4. 1(화)~6. 30(월)

▶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10% 할인

• 날짜: 2007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 시간: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대학과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BUSAN 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BUSANCONSERVATORY Art Hall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사무실 TEL. 051-501-3999  
FAX. 051-505-3999  
홈페이지. www.bscon.co.kr

## 부산콘서바토리오악원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합니다.

창단 35주년기념

# 제 3대 전상철 수석지휘자

## 취임연주회

제 122회 정기연주회



# Friendly Concert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최석태의 축제 미사 (2008년 위촉 작품- 한국초연)
  - Kyrie(자비를 구하는 기도) · Gloria(대영광송)
  - Sanctus(거룩하시다) · Agnus Dei(신의 어린양)

- 부산진구어린이합창단
  - 아리랑 · 코시코스의 우편마차 · 어머니

### 특별출연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 임명운)

부산진구어린이합창단 (지휘: 박훈)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반달 · 나란히 · 고기잡이 · 꼬부랑 할머니 · 어린이날 노래

-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 Sancta Maria · Nella Fantasia · 파마이 또레오 아로하
  - 아가 코끼리 걸음마 · 아프리카 댄스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새야 새야 파랑새야 · 춤추는 춘향이 · 경복궁터령 · 추천가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후원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2008. 5. 31(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균일 2,000원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6131 인터넷 예매 ■ 부산문화회관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 티켓링크 -콜센터(1588-7890) www.ticketlink.co.kr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 DYNAMIC Festival

다이너믹 페스티벌

사회: 손지현 (부산MBC 아나운서)

2008. 5.17 (토) 2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지휘 박호성)  
부산시립무용단 (안무 홍기태)  
박현빈(가수) / 드리프터즈 크루(B-boy)  
버슴새(풍물패) / 박성희, 정선희(소리꾼)

5.18 (일) 20:00

부산시립교향악단(지휘 김정택)  
부산시립합창단  
김영환(테너) / 박정원(소프라노)  
정수라(가수) / 비트 씨클(타악 퍼포먼스)

해운대 씨네파크-야외공연  
(부산시립미술관 옆)

문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

051)607-6041~8, 6057  
www.bsCulture.busan.kr

무료관람

주최



부산일보사

주관

부산문화회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